



하늘 나라

2014년 창간호



하늘나래

2014년 창간호

인천하늘고등학교 교지 『하늘나래』는
학생 여러분의 글과 소식으로
매년 1회 발행되는 문예지입니다.

Contents:

01 지금 우리 학교는

- 학교 안내** _ 학교 기본 정보 | 008
- 사진** _ 사진으로 정리한 하늘고 2013년 | 010
- 교지 발간사** _ 이젠 도약의 날개를 펼쳐 비상하자 | 022
- 인사말** _ 학생회장 조성철 교지 인사 | 024
 - 교지 편집장 봉수지 인사 | 026
- 인터뷰** _ 인천하늘고등학교 설립사 | 028
- 학교 안내** _ 정규 교육과정 | 034
 - 특색 있는 방과 후 프로그램 | 035

02 꿈과 열정을 위한 인터뷰

- 인터뷰** _ 지용택 이사장님 | 040
 - 강동석 이사님 | 046
 - 이용선 설계사님 | 051
 - 김성근 감독님 | 056

03 우리 학교만의 특색 있는 활동들

- 학생활동** _ 2013학년도 동아리 소개 | 062
 - 학습동아리 | 066
 - 1인 1예 1체 프로그램 | 067
 - 1인 1예 1체 활동 수기 우수작 | 072
 - 역대 체육대회 총정리 | 078
 - 농촌 봉사 활동 | 082
 - 수학여행기 | 086
 - 학술제(2011~2013) | 092

특별취재 04

116 | 인천하늘고의 지식의 보고, 도서관

하늘인들의 날개 펴기 05

122 | **교지 작품 응모**_ 시 누가 흰색과 검은색은 외 3편

130 | **백일장**_ 시 공중전화 외 2편

133 | **백일장**_ 산문 삶과 죽음

136 | **글마당**_ 한문보고서 한시 바꿔 쓰기

140 | **글마당**_ 환경 자가진단

143 | **그림마당**_ 일러스트 3편

교사들의 이야기 06

146 | **편지**_ 이영종 선생님의 5월의 군자당훈

150 | **기획 인터뷰1**_ 김경훈 선생님

154 | **기획 인터뷰2**_ 신은재 선생님

158 | **기획 인터뷰3**_ 이종연 선생님

특집기획 07

164 | 하늘고 설명서 VER.1 <장소> 편

178 | 하늘고 설명서 VER.1 <선생님> 편

190 | 편집후기 08

지금 우리 학교는

학교 안내:

꿈을 향한 비상
세상을 움직이는 열정
도전을 즐기는 배움터

꿈 그리고 열정

인천하늘고등학교 교가

작사 강석을
작곡 정덕기

모듬 백크기로 웅장하게



교화 · 교목

매화는 예로부터 만물이 추위에 떨고 있을 때 꽃을 피워 봄을 가장 먼저 알려줌으로써, 봄의 열정에 굴하지 않고 고결한 품성의 선비를 상징합니다. 이는 매화의 맑고 청아한 기상으로 굳건하게 목표물을 향하는 인천하늘인을 의미합니다.



교육목표

건학이념_

- 열린 마음을 가진 글로벌 리더 양성

핵심가치_

- 지성과 인성 • 공동체적 가치
- 창의적 도전 • 세계인을 꿈꾸는 요람

교육목표_

- 개 인 : 지덕체의 조화로운 전인적 인간, 1예, 1체
- 사 회 :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개척하고
공동체적 시민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인간
- 세계화 : 국제적 감각과 역량을 바탕으로 세계와 교류할 수 있는 인간

학교장 경영방침

건학이념의 구현_

- 꿈과 열정을 지닌 창의적, 도전적 인재로 키운다.
- 나눔과 베품의 정신을 실현하는 공동체 시민을 기른다.
- 국가의 장래를 선도할 책무성 강한 글로벌 인재를 육성한다.

교원상_

- 투철한 국가관과 교육신념을 가진 건강한 교원이 된다.
- 사랑과 정성을 다해 제자를 교육하는 헌신적 교원상을 수립한다.
- 창의적인 교육과정과 특색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창출한다.

학생상_

- 지성과 인성을 겸비한 글로벌 인재로 자란다.
-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학생으로서의 본분과 의무를 다한다.
- 미래를 선도하는 새시대의 선구자적 인재가 되고자 노력한다.

사진:

사진으로 정리한 하늘고 2013년

● ● ●
임성준

1기들이 치른 하늘고의 첫 수능! 첫 완성 학년으로의 새 출발! 유난히 ‘첫’이라는 수식어가 많이 붙는, 그래서 더욱 의미 있는 하늘고의 2013년을 사진으로 되짚어보자!



2013년 3월 4일 신입생들이 입학하였다. 드디어 완성된 3개의 학년으로서 첫 발을 내딛는 해의 신입생들의 푸른 비상이 기대되는 자리였다.



2013년 3월 5일 미국 College Board사와 AP수업, SAT수업에 관한 협의를 거쳤다. 하늘고가 드디어 AP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2013년 3월 29일 3월 학부모 컨퍼런스가 있었다. 2013학년도 대학 입학사정관제와 학교생활에 대한 설명회였다.



2013년 4월 27일 2014학
년도 입학 을 위한 제1차
하늘고 입학설명회가 있
었다. 미래의 하늘인을
꿈꾸는 학생과 학부모님
들과의 기분 좋은 만남이
었다.

2013년 5월 16일 교
내 체육대회가 있었
다. 이날 오전부터 진
행된 각종 체육행사
와 응원전, 삼겹살 파
티는 모두 하늘고 학
생들에게 한 여름날
의 뜨거운 추억이 되
었다.



2013년 5월 24일 비제의 대표적 오페라 '카르멘'을 관람했다. 문화를 사랑하는 하늘고 학생들에게 순수한
예술의 영혼을 불어 넣는 좋은 시간이었다.



2013년 6월 20일 브루나이 문화교류 행사가 있었다. 하늘고에 방문한 브루나이 학생들의 전통 무용, 음악, 무술 공연을 보고 조별로 브루나이의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다.



2013년 6월 21일 6월 학부모 컨퍼런스가 있었다. 2014년 6월 평가원 모의평가를 통한 대입 지원 전략을 주제로 한 특강이었다.



2013년 7월 13일 진로 아카데미에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에게 직접 진로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자신의 꿈과 진로를 찾기 위해 한걸음 더 나가는 학생들의 모습은 아름다웠다.



2013년 7월 16일 도서관에서 '나도 그대에게 무엇을 좀 나눠주고 싶습니다.'라는 이름 아래 안도현 시인과의 만남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의 자작 시, 시화, 수필 전시는 행사의 품격을 한층 높여 주었다.

2013년 7월 25일~28일 하늘
고의 R&E 중 KAIST Vanderbilt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카이
스트 석학의 지도 아래 이공계
학생들은 한층 깊은 학문의 맛
을 느낄 수 있었다.



2013년 7월 27일 제2차 하늘고
입학설명회. 무더운 여름 날씨에
도 불구하고 가득 찬 체육관이 하
늘고의 위상을 말해준다~



2013년 8월 31일 제3차 하늘고 입학설명회. 연이은 입학설명회에도 불구하고 넓은 체육관을 학생과 학부모
님들이 모두 메우는 모습을 통해 외부 학생들의 하늘고 입학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직접 느낄 수 있었다.



2013년 9월 13일 '2013 인천 스카이 페스티벌'에 참석하였다. 서희태 마에스트로의 오케스트라 연주, 피아니스트 이루마의 연주 등 가을밤의 정취에 어울리는 아름다운 음악의 선율을 느꼈다.



2013년 9월 27일 인천 시립무용단의 '찾아가는 무용단 공연'이 있었다. 국내 최정상 무용단의 공연에 하늘고 학생들은 신명나는 추임새와 박수 소리로 화답했다.



2013년 10월 22일~25일 인천하늘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해외 체험 활동으로 중국의 북경과 천진을 다녀왔다. 대륙의 기운을 받으셨나요?



2013학년도 10월 23일~25일 인천하늘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농촌 봉사 활동이 있었다. 우리가 먹는 과일과 채소와 소고기의 소중함을 알 수 있었다.



2013년 10월 31일 하늘고 2기와 3기 후배들의 1기 선배들을 위한 수능 응원 플래시몹이 있었다. 2기 학생회를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진 공연은 하늘고 전통과 문화의 장을 넓혔고 하늘고의 '첫사랑' 1기에게 자금심과 용기를 불어 넣어 주었다.



2013년 11월 7일 대수능. 하늘고의 자랑인 1기 선배님들의 대박대박 기원을 위한 학생, 학부모님, 모든 선생님들의 간절한 응원이 하늘고를 애웠습니다.



2013년 12월 16일 2014학년도 하늘고 4기의 신입생 OT가 있었다. 하늘고의 자람이 될 신입생들의 학구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어서와, 하늘고는 처음이지?



2013년 12월 30~31일 2013년의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한 하늘고의 축제! 2기 학생회를 중심으로 더욱 새로워진 제3회 하늘 학술제가 12월 30일과 31일에 걸쳐서 개최되었다. 1년 동안 열심히 활동해 온 R&E, 과제연구, 학습동아리 등 연구 논문 결과 발표, 동아리와 1인 1예 1체 발표회, 하늘스타 H와 뜨거운 밤을 불태운 댄스파티까지! 알맹이만 가득했던 제3회 학술제!

사진으로 2013학년도를 요약해 보았다. 2014학년도에도 새로 입학하는 4기와 이제 고3이 된 2기까지! 모두 더욱 알찬 학교생활 이어나가요!

이젠 도약의 날개를 펼쳐 비상(飛上)하자

● ● ●
강 석 윤 교장

인천하늘고가 개교한 지 3년이 지나고 첫 졸업생을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많은 우여곡절과 시련을 겪은 우리 첫 졸업생이라서 더욱 자랑스럽고 대견하기만 합니다. 결국 우리는 인천을 대표하는 명문고로서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 동안 고생한 3학년 학생들과 선생님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2013년을 정리하는 이 교지를 발간하면서 우리는 진정한 명문학교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간에는 대학 진학률이 높은 학교를 일컬어 명문고라 부르지만, 사실 그것은 진정한 명문고의 의미가 아닙니다.

진정한 명문고란 학생들을 제대로 훌륭하게 교육하고, 졸업생이 사회에 진출하여 크게 성장한 후 국가와 사회에 훌륭한 업적을 이루게 한 그런 학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영국의 윈스턴 처칠 경을 비롯해 20명 정도의 영국 수상을 배출한 이튼(EATON) 스쿨은 영국을 발전시킨 인재를 키워내는 명문교로 유명합니다. (최근엔 이튼칼리지로 명칭이 바뀌었음)

인천하늘고가 지향하는 학교의 모습은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고 발전시키는 그런 인재를 배출하는 교육의 장을 추구합니다.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고 이웃과 사회의 아픔을 외면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설령 자신이 희생되더라도

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런 인재가 되리라는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하여 몇십 년이 지난 후 하늘고 졸업생 중에서 우리나라의 대통령, 장관, 대기업의 CEO도 많이 배출되어 하늘고가 명실상부한 명문고가 되리라는 꿈을 가집니다.

우리의 교훈인 ‘꿈 그리고 열정’이 그런 결과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먼 훗날 우리가 자랑스럽게 하늘고의 교정을 다시 찾아와 홈커밍데이의 장을 마련하여 후배들의 귀감이 되어 주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이젠 하늘고도 가일층 도약의 날개를 펼 때가 되었다는 사명감을 갖고 힘차게 새해를 맞이합시다.

2014년 1월 초순



인사말:

스스로 만들어가는 학교가 되기를

조 성 철 학생회장

안녕하세요! 하늘고등학교 제 2대 학생회장 '조성철'입니다.

‘의사소통의 중심, 소통과 합의’를 외치며 부회장인 오대산, 이연정과 선거에 출마하였고 여러분들께서는 저희들을 믿고 뽑아주셨습니다. 당선이 된 후에 저희들은 선거 운동을 도와준 친구들과 학생들의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공약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부분을 학교에 건의하기 위해서, 앞으로의 활동과 후대의 하늘고등학교 학생회를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많더군요.

제가 당선이 되었을 당시, 학생회의 힘은 크지 않았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시키는 일들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의 본분을 지키는 내에서, 우리는 학교에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주인인 학생으로서 당당하게 행동하고 그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며 학생회를 통해 능동적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실현시키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제 임기가 끝날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와 학생들 사이에 신뢰를 쌓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학생들이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하늘고등학교 학생들의 능동적인 문화를 위해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면학실 분위기 형성’ 이었습니다. 학생의 본분인 ‘공부’를 위해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5분 전 자율학습을 준비하고 학생회 임원인 반장/부반장들은 학생들이 조용히 학습을 준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학교 선생님, 사감 선생님에 의한 타의적인 활동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의 자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처음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학생들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고 학교의 학생들에 대한 신뢰도 조금

씩 쌓여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외에도 하늘고등학교 제 1기 선배님들의 첫 수능 응원을 위해서 후배들이 ‘플래시 몹’으로 응원을 한 것, ‘수능 격려의 박수’를 위해 후배들이 일찍 기상해 기숙사에서부터 정문까지 선배들을 배웅한 것, 이 모든 것들이 학생들의 자발적인 모습이고 문화였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어떤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정말 수고했다. 이렇게까지 잘할 수 있을지는 꿈에도 몰랐다.”

우리 학생들의 모습을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정말 기쁩습니다. 앞으로도 신뢰감을 형성하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학교에서도 우리들의 공통된 의견들에 대해서 좀 더 귀 기울여 주고 우리를 믿고 무엇이든 맡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고등학교의 당당한 문화를 만들기 위해 학생회(각 반의 반장/부반장)가 학생들과 함께 하고 있으며, 다른 일들을 돕기 위해 학생행정위원회, 즉 기획재정부, 문화체육부, 학생활동지원부, 학교안전부, 학교홍보부의 부장 및 차장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대다수의 학생들이 이곳에서 급식과 간식, 체육대회와 학술제, 창의적 체험활동, 학생들의 안전, 게시판을 통한 소통에 관한 일들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 여러분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저의 부족한 점을 채워줄 수 있는 부회장인 오대산과 이연정, 학생회 임원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어서 정말로 기쁩니다. 남은 임기 동안 저의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며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 많은 생각과 노력을 하면서 활동하겠습니다. 하늘고등학교를 명문학교로 만드는 것은 우리입니다.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



인사말:

끝날 것 같지 않았던 편집이 끝나고

● ● ●

봉수지 교지 편집장

끝날 것 같지 않았던 편집이 끝나고, 벌써 마지막 글을 씁니다. 안녕하세요, 1기 교지편집부 기장 봉수지입니다. 한창 교지 작업 중일 때, 소소한 이야기나 작은 소재 하나도 ‘헐, 교지에 실어야지’ 했었는데, 시간은 부족하고, 페이지는 제한되어 있다 보니 계획에는 있었지만 실제로는 담지 못한 내용이 가득합니다. 꼭 실려야 할 그동안의 일들은 차곡차곡 담겨 있으나 학교 전체를 글자로 만들어 종이에 옮기고 싶었던 욕심은 그저 욕심으로 남았네요. ‘아직 창간호니까…….’라는 말로 위로가 된다면 좋겠습니다.

1년 내내 사건·사고가 넘쳐났던 것은 아니지만, 편집을 하면서 재밌기도 하고, 난감하기도 했습니다. 편집부에 2학년 학생들밖에 없는 탓에 1학년 학생들은 아는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할 때, 한창 수능 준비로 바쁘시던 3학년 선배님들께 엄청난 양의 설문지를 드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할 때 정말 난감했습니다. 가장 암담했던 것은 최근, 촬영한 사진이 모두 사라졌을 때였습니다. 예쁜 사진을 보여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몇 달 전, 동아리 시간 내내 ‘하늘고 설명서’를 위한 사진을 찍었습니다. 빗물이 고인 채 찍힌 장소도 있어서 며칠 뒤 화창한 날에 다시 몇 곳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진 저장하는 것을 깜빡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파일을 정리하다가 당연히 있을 줄 알았던 장소 사진, 같은 날 찍은 동아리 사진, 도서관 사진과 사서 선생님 사진이 없어서 그제서야 카메라를 확인했는데 모두 지워진 뒤였습니다. 다시 사진을 찍긴 했는데, 이미 겨울이 온 지라 모든 식물들이 갈색으로 변해서 그때 찍은 사진과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푸르지 않은 ‘푸른 가로수길’ 사진, 음악실이나 방송실 등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답을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우울했습니다.

그래도 그보다 훨씬 오랜 기간 즐거웠습니다. 그렇기에 지난 1년이 만족스럽습니다. 인터뷰, 사진촬영부터 단순히 교실에서 하는 회의도, 몇 백 장의 설문지를 문서화하는 작업도 모두 재미있었습니다. 학습동아리 활동 사진을 찍으러 다니다가 1면을 장식하겠다는 의지로 계속 포즈를 잡던 동아리와 20분 가까이 있던 적도 있었고, 설문지를 옮겨 적다가 타자소리만 들리는 교실 혹은 멀티미디어실에서 혼자 웃어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가장 즐겁던 것은 외부인터뷰였습니다. 2학기 들어서는 주로 교내에 있었지만 1학기 때는 인터뷰를 하러 학교를 자주 벗어났었습니다. 밖으로 나갈 때의 그 짜릿함이란……. 학교를 벗어나고부터 뵈기 전까지 어떤 분일까, 어떤 이야기를 해 주실까 궁금해하고 설레던 상태가 좋았습니다. 물론 여러분께 그 상황을 그대로 전달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울 정도로 인터뷰 자체도 재미있었습니다. 인터뷰 내용뿐만 아니라 교지에 답을 수 없는 어르신들의 모습에서도 감동과 배움이 일어났는데, 특히 지용택 이사장님 인터뷰의 경우 저희를 존중해주는 모든 면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난 1년간은 대략 이러했고, 지금은 시원섭섭합니다. 여러분께 바라는 것이 있다면, 저희는 기록만 했을 뿐, 학교와 관련된 모두의 이야기로 만들어진 교지이니 이 책으로 일상을 보셨으면, 몇 년이 지나고 학교에서의 생활을 추억으로 되살리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신 모든 분들, 좋은 글 주신 이영중 선생님, 감사합니다. 기장이 모자라서 힘들었을 편집부 아이들 고맙고, 같은 이유로 힘드셨을 이중언 선생님 감사합니다. 활동하느라 바빴음에도 사진이라는 부담스러운 부탁 들어준 동아리, 감사합니다. 많은 양의 설문지 작성하느라 힘들었을, 작품 보내준 학생들, 감사합니다.

이 책을 읽어주실 모든 분께 감사합니다.

인터뷰:

인천하늘고등학교 설립사(設立史) I

● ● ●
김동용 총장 강석윤 교장

공항 인근 지역의 명문고 육성을 지원함으로써 교육 환경을 개선하여 우수학생이 유출되는 현상을 개선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고 인천공항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또한 인천에 위치하고 있는 공기업으로서 지역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및 지방 교육 활성화 정책 등 정부의 지역발전정책과 자율화, 다양화된 교육체계를 지향하는 교육정책에 부응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공항 종사자가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정주여건인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학교가 필요하였으며 아울러 기숙형 학교를 운영함으로써 사교육 예방에 앞장서고자 하였다.

하늘고등학교 설립 역사의 에피소드들을 정리한다.

김동용 총장님(이하 김동용) 인천공항이 2001년도에 개항을 했습니다. 개항을 했을 당시에는 아무래도 이곳의 교육 여건이 기존의 수도권에 비해 취약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어린 공항 종사자들이 영종도로 이주를 했습니다. 큰 애들은 밖에 있는 학교를 비싼 통행료를 내고 다녔지요. 어린 아이들은 신도시로 이사를 와서 커가는 데 교육환경의 개선이 단시간에 되는 게 아니더군요. 그러다 보니 많이들 이사를 갈 생각을 하더군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기존의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공항공사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10여 개의 초·중학교에 연간 3~4000만원 씩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 제안을 받아서 지원을 하였지요. 사물놀이단, 외국어 연극팀 등 학교마다 전부 다르지만 이 프로그램이 성공을 했습니다.



강석윤 교장선생님(이하 강석윤) _ 그런데 문제는 고등학교 교육이었지요.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니깐 때마침 전 정권 교육정책이 자사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학교를 만들고자 한다면 초기 비용은 꽤 들겠지만 자율형 학교로 기숙사 학교를 만들면 좋은 학교를 만들 수 있겠다는 결론이 나왔죠. 처음에 관계 기관들과 협의할 때는 반응이 좋았습니다. 취지가 좋았으니까요. 또한 2009년 당시에 인천시가 계속해서 수능이나 학업성취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고 있었죠. 대체 인천이 왜 이럴까? 인천 시내 상위권 400~600여 명이 외지의 좋은 학교를 향해 떠난다는 분석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상위권 유출로 인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었던 거죠. 국제고, 과학고, 외고도 세워 보았지만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전국구의 자사고들로 유출되는 인원들까지 잡을 수는 없었죠. 그래서 인천 시장과 인천시교육청이 자사고를 세우기로 결심을 했고, 큰 기업이 재단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공항공사에 의뢰를 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김동용 그러나 막상 결정이 되려니까 매년 30억원 정도의 재정지원이 부담스럽다 보니 반대하는 소수 의견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지요. 근데 원래 반대하는 의견이 반향이 커요. 소수의 의견이라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자사고를 만드는 것이 우리 공학 종사자나 지역 발전을 위해 좋겠다는 결단을 하고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반대하던 소수의 의견들이 감사원에 들어가서 감사원 감사도 받았고 그런데 결론은 안 나왔지요. 하지만 공사가 중단된 상태여서 원래 날짜에 개교를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모든 면에서 잘 갖추어진 자사고의 모델을 만들면 소수의 의견도 잠재워질 것이라고 판단하여 개교 시점도 늦추지 않고 개교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1기 학생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3월 3일에 개교를 해야 하는데, 공사 상황이 어떻게 될지 예측이 정확히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교식에 외부 인사 분들도 초청을 못했지요. 적어도 보름 전에는 스케줄 조정을 해야 하는데 우리 학교가 개교 보름 전까지도 확정을 못했거든요. 정말 긴박했지요. 그래서 고민 끝에 인재개발원에서 개교를 할까 생각했습니다.

개교 완공을 위한 시간 싸움. 그 긴박했던 순간들

강석윤 결국 아무래도 3월 3일은 어렵다고 판단해서 오리엔테이션을 오대산에 가서 하고 3월 7일에 개교를 하자고 계획했고, 그래도 완벽히 개교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인재 개발원을 빌려서 수업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개교 시작 2시간 전에 개교식에 필요한 건물이 완성이 되었지요. 기숙사 입소를 해야 하는데, 부모님들이 와서 보니 아직도 아스팔트를 깔고 있고, 도로 정비도 안 되어 있고, 공사판이다보니 학부모님들도, 학생들도 짜증이 많이 났을 겁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웠던 게 기숙사 내부는 완벽하게 공사가 마무리가 된 상황이었지요. 그리고 3월 7일에 개교식을 했어요.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나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만 해도 난장판이었던 곳이 보도블록이 깔끔하게 정비도 잘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불안했던 마음들이 많이 풀어졌지요. 입학식 날과 그 전날 기숙사 내부를 보고 나서 말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들이었습니다.

김동용 개교할 때에 가장 우려되던 점은 여전히 한쪽은 공사, 한쪽에서는 수업을 했기 때문에 만일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이 설립 승인을 하게 해준 교육청과 개교를 준비한 관계자 모두에게 문제가 될 수 있었죠. 다행스럽게도 6개월 이상을 이런 상황에서 수업을 했는데 학생들이 규칙을 잘 지켜주어서 그 때 제대로 된 시설이 완성되었습니다. 준공식이 10월에 된 거죠. 근 7개월 동안 1기 학생들이 참 잘 해주었고 지금도 고마운 마음입니다.



인터뷰:

인천하늘고등학교 설립사(設立史) II

● ● ●
김 동 용 총장님

최고의 수업을 위해서 최고의 선생님들을
모셔라. 교사 초빙 에피소드

우리가 학교 설립 준비단을 만들었을 때 재단을 지원하기 위해서 행정 분야에서 5명, 기술 분야에서 6명, 그러니까 11명 정도가 준비단에 소속이 되어 공사 감독과 행정 업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 우리는 공항운영만 해보았기 때문에 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잘 몰랐지요. 그래서 빨리 준비 교원들을 모집했어야 했어요. 그런데 감사원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늦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괜히 교원을 뽑았다가 설립이 무산되면 취소해야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교사 모집이 지체될 수밖에 없었어요.

교장선생님과 준비 교원들을 채용하는 데 4, 5개월씩 연기가 되다 보니 우리들이 공부해가면서 개교를 준비할 수밖에 없었지요.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일단 좋은 선생님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고 해서 헤드헌터사에 부탁했고 준비 교원 여러 명을 제안 받았습시다. 서류 심사도 하고 면접도 보고해서 심주석, 이남승 선생님이 준비 교원으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준비 교원으로 일하면서 실질적인 개교 준비가 이루어졌죠.

조직 구성이 제대로 되려면 경력이 있는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교사 채용을 위한 강의 평가를 하는데, 경력이 있으신 선생님들이 젊은 선생님들에 비해 순발력이 부족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도 경력 있는 선생님을 채용하고자 노력했지만 전체 평균 연령이 34세가 되었죠. 다른 학교에 비하면 상당히 젊어요. 그래서 고민도 많았습니다. 혹시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데 첫해부터 학생들 반응이 참 좋았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 선생님들이 강의도 잘하고 젊다 보니 아이들과 소통도 되고, 열정도 있고…. 결국에는 학부모님들로부터 평가를 받는데 제일 높았던 부분이 교사의 질이었어요. 결국 걱정은 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성공 요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죠. 젊은 선생님들을 많이 뽑았던 것이 장기적으로는 어떨지 살펴봐야겠지만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선생님들을 채용하다보니까 주변에서 걱정을 계속 했어요. 젊은 선생님들이 너무 많다. 경험과 경력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였죠. 그래서 마지막 해에는 경륜 있는 선생님들이 많이 확보가 돼서 이런 우려도 많이 누그러졌습니다.

인천공항공사 그리고 하늘고등학교

우리가 공항 공사에서 개항을 어렵게 해서 처음에는 적자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 들면서 흑자로, 2005년에는 세계 1등 공항으로 되었죠. 그리고 사회에 공헌을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그러다 보니 교육에 대한 공헌으로 하늘고를 탄생시킬 엄두를 냈던 것이죠. 지역 주민이나 항공 종사자들은 과학교, 국제고가 있지만 낮두리만 했었죠. 좋은 학교긴 하지만 입학하기가 어려웠으니까. 그래서 결국 인천공항공사가 큰 꿈을 그리고 그동안 사회와 주민들에게 받았던 도움들을 다시 갚을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이곳에 정리하지 못한 에피소드들도 많지만 많은 우여곡절 끝에 인천하늘고등학교가 탄생하였고 이제 개교 4년차를 맞이하고 있다. 첫째 좋은 입시 성적을 냈고, 앞으로는 더욱 좋은 성적이 나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많은 이들의 꿈과 바람이 묻어 있는 하늘고등학교가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이라 믿고 우리 하늘 가족 모두가 그 발전을 함께 이루어나가길 기원해본다.

학교 안내:

정규 교육과정

• • •

1. 외교와 국제고의 장점을 결합한 자율형 교육과정

자율형 사립고로서 최고 수준의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함으로써
학부모와 학생이 만족할 수 있도록 교육의 질을 유지하도록 한다.

2. 전인적 성장을 위한 균형 있는 교육과정

지, 덕, 체를 겸비한 전인적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과와 교과 외 활동 및 교과
간 균형 잡힌 학습이 가능한 교육과정을 지향하고 있다.

3. 고교 - 대학 연계의 진로집중과정 도입

진학준비 교육과정으로서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따라
고교에서 선택하여 집중 학습하고, 대학의 모집단위별 교육과
대학입학전형을 통해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

4. 해외 대학 진학을 위한 국제과정 운영

글로벌 사회의 인재로서 국내 대학이 아닌 해외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을 위해 AP, IB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국제과정을 도입·운영한다.

5. 사교육비 ZERO를 지향하는 교육과정

학교 교육과정에 따른 학습만으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학생의 발달단계와 수준에 맞게 교육과정을 안내하고
방과 후 학교와 연계해서 완전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운영한다.

6. 기숙학교의 장점을 살린 교육과정

기숙학교 학생에게 적합하도록 정규 교육과정과 방과 후 학교,
주말 교육 프로그램 등을 연계시켜 자기주도적 학습은 물론
협동학습에 의한 문제해결력을 배양하도록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특색 있는 방과 후 프로그램



1. 대학교육과정 수준의 전공연구 강의

Good Opinion, 경제이론, 정수론, 영문학 원서강독, 문학작품토론, 복소변수함수론, Global Current Issues, 심화영어논술, Micro Economics 등의 내신 위주의 학습보다는 학습자 관심분야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전문지식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보여줌.

	강좌명	수업형태 및 내용	교재
1	물리 논술 따라잡기	실제 대학별 기출문제를 풀어보며 물리 I 과 물리 II 개념 살펴보기	각 대학별 수시 기출문제 유인물
2	Chemistry : A World of Choices	대학 수준의 화학을 공부 논문 연구와 병행하여 세미나 형식의 수업 진행	
3	G.O (Good Opinion)	신문 기사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문제를 제기하거나 오피니언 란에 게재된 다른 사람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의 글을 제시하거나 학생의 시선으로서 정부의 각종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비판적 독서와 글쓰기의 기능을 키우는 것은 물론, 여러 신문의 '오피니언' 섹션에 자신의 글을 기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연구 활동	
4	정수론(The Number Theory) 심화	1. 디오판토스의 부정 방정식 및 합동식에 관한 이해 2. 수업 내용에 대한 전반을 개인별 포트폴리오로 작성하여 이후 학교생활기록부에 이수 사항이 기재되는 강의	정수론 김응태, 박승안 지음
5	영문학 원서강독	George Orwell의 소설 Animal Farm을 영어 원서를 읽고 토론한 후 독후감(Book Report)까지 작성하는 수준 높은 수업	George Orwell의 소설 Animal Farm
6	문학 작품 토론	1. 토론을 통해 작품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뿐만 아니라, 문학이 현실의 반영임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한다. 2. 수렴적 사고가 아니라 발산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 3. 세상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인간미(人間味) 있는 학생을 길러낸다.	자체제작

7	고급수학 - 복소변수함수론	1. 복소평면 2. 방정식과 복소수 3. 복소수의 극형식 4. 단위근과 오일러공식, 원시 단위근 5. 극좌표와 그래프 6. 극방정식과 그래프 7. 극평면에서의 곡선과 그 교점 8. 접선과 교각 위의 일부 주제는 대학교재의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함	각 대학별 수시 기출문제 유인물
8	Chemistry : A World of Choices	해외에서 다루는 최신뉴스를 듣고 중심내용을 파악하여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토론. 뉴스에 나온 표현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듣는 연습을 통해 청해 훈련을 함. 비교적 형식적인 표현을 익힌 후에는 미국 드라마를 시청하여 일상적인 표현 습득. 표현들은 예문과 함께 정리하여 실제 텡스나 각종 어학시험에 빈출 되어 어휘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됨	
9	심화영어논술	각종 영자 신문 사실을 읽고 찬반을 나눠 영어토론을 하고 토론 후 자신만의 독특한 의견을 정리하고 영문 에세이를 작성하여 제시함	신문, 영어토론 및 에세이 작문 관련 프린트 자료
10	경제이론반	NIE와 관련된 활동을 위주로 논술 및 토론활동을 하며 포트폴리오 작성, 각종 대회 참여	멘큐의 경제학
11	물리인증제 대비반	한국물리학회 주관 물리인증제 시험 대비반	
12	Scholastic TEPS English	텡스와 관련하여 영어의 각 영역별로 심화학습과 실전문제풀이	해커스 텡스 실전 1200제 - 텡스 실전문제집

2. 해외대학과정 선이수 - AP

- 해외 대학 진학 희망자를 위한 AP과정 개설 및 AP 테스트 센터 운영.
- 미국 컬리지보드사로부터 AP 테스트 센터 지정, 운영.



3. 창의적 문제해결력 및 과제탐구능력 증진 - R&E Program

(1) 수학프로젝트 학습

: 러시아 석학 Tetenov 교수를 초빙하여 주당 2시간씩 과제연구를 운영하였음.

수학프로젝트 학습 커리큘럼			
1	March 7	March 8	Acquaintance test and introduction.
2	March 21	March 15	Functions and their graphs; Inverse images, inverse functions, functional quations. 함수와 그래프, 역상, 역함수, 함수방정식
3	March 28	March 22	The cardinality of a set. Bijective correspondence between sets. Countable and uncountable sets. 집합의 가산성, 집합의 일대일 대응, 가산집합과 비가산집합
4	April 4	April 5	Main properties of the real line and limits of sequences. 실수와 수열의 극한의 주요 성질
5	April 18	April 12	Limits of sequences and sums of the series. 수열의 극한과 무한급수
6	April 25	April 19	The limit of a function. Main theorems on function limits and inequalities. 함수의 극한, 수열의 극한과 부등식의 주요 정리
7	May 2	May 3	Infinitesimal functions and the evaluation of the limits. 극소함수와 극한의 계산
8	May 9	May 10	Continuous functions. 연속함수
9	May 16	May 24	Main theorems on continuous functions. The continuity of elementary functions 연속함수의 주요 정리, 주요 함수의 연속성
10	May 23	June 14	Asymptotes and graph sketching. 점근선과 그래프 그리기
11	June 13	June 28	Differentiable functions. Main properties of a derivative. 미분가능함수, 미분의 주요 정리
12	June 27	July 5	Differentiation techniques. 미분 기술
13	July 4	July 12	Theorems of Fermat, Rolle, Lagrange and Cauchy 페르마의 정리, 롤의 정리, 라그랑주와 코시의 정리
14	July 11		Final test

(2) KAIST-Vanderbilt R&E (Research & Education) 프로그램

: 개인 및 그룹별 프로젝트와 전문교과를 운영하여 지도교사(교수)의 지도 아래
집중 연구 후 연구보고서(논문)를 작성.

주제	교수
(수학) Math in Nature and Life	Woo-jin Choi, Ph.D. KAIST
(물리) Nonlinear Dynamics and Chaos	Soo-yong Kim, Ph.D. KAIST
(화학) Outreach 2013 Tentative Program	Hak-Joon Sung, Ph.D. Vanderbilt Uni.

인터뷰:

지용택 이사장님 인터뷰

● ● ●

지용택 이사장님



Prologue

현재 인천하늘고등학교의 재단인 하늘교육재단의 이사장님이신 지용택 이사장님을 뵈러 교지 편집부 ‘하늘나래’가 취재를 나갔다. 인천 시내에 자리 잡은 새얼문화재단에서 많은 분들의 환대 속에 이사장님과의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이사장님과의 인터뷰를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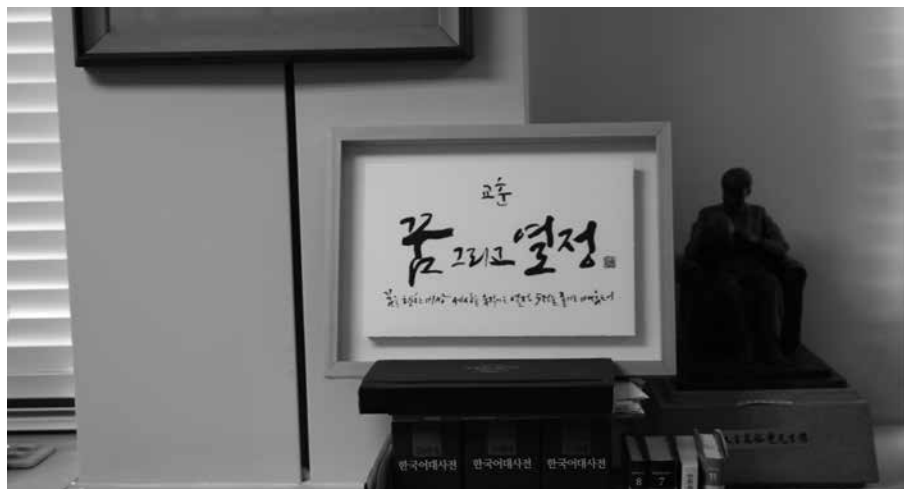
Interview

“책들 많이 읽니? 많이 읽어라. 책은 사회 나오면 읽지 못해. 책을 보는 습관, 그것이 몸에 익어야 된다. 책은 그냥 봐야 된다.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강요하지만 사회에서는 책을 읽는 것을 강요하지 않아. 책을 읽는 것이 습관이 되지 않으면 평상시에 읽지를 않아. 사회에 나가서 바쁜 일정으로 인해 책을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좋은 사람하고 대화라도 꼭 해라. 그건 책 20권을 읽는 것과 맞먹는 중요한 일이란다. 꼭 장관이나 국회의원이 아니라도 훌륭한 사람은 주위에 많이 있으니 너희가 찾아다니도록 해라.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두 가지를 꼭 하도록 해라. 책을 많이 본 사람, 경륜이 많은 사람과 첫 번째로는 대화를 하고 두 번째로는 여행을 같이 해라. 젊은 나이에 아무 데서나 자고 먹으며 무작정 여행을 떠나라. 나이 들면 힘드니까. 그리고 자기 계발을 해라. 나는 남이 알아주든 그렇지 않든 간에 왜 이렇게 책을 많이 읽느냐면, 그건 젊은 후배들과 대화하려고 그러는 것이다. 내가 공부를 해야 새로운 얘기를 자꾸만 해줄 수 있을 것 아닌가. ‘그 이한테 찾아가면 항상 새로운 걸 얻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지. 나는 젊은 사람들과의 대화를 원하거든.”

독서의 습관화를 강조하셨다. 이사장님께서 책을 읽으시는 이유는 결국엔 사람들과의 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이다. 나의 주변에 있는 나보다 좋고 나은 사람들과 함께하면 나 자신도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대화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셨다. 그리고 ‘하늘나래’가 준비해간 인터뷰를 진행하기 시작하였다.

이사장님께 인천이라는 도시와 하늘고라는 학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인천에서 많은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인천을 떠난다고 한다. 내가 지금 있는 곳은 알겠지만, 새얼문화재단이야. 시민재단이지. 카드도 예산도 없어. 난 그냥



봉사를 하는 거지. 왜냐하면 내 목표는 인천의 얼굴 키우고 싶은 거야. 그만큼 나는 인천이라는 이 도시를 사랑하지. 그러니 인재들이 나가는 게 무척 가슴이 아팠어. 가는 아이는 뭐고 남는 아이는 뭔가?

좋은 도시란 높은 빌딩과 시설이 좋은 곳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 살아야 좋은 도시야. 마침 이채욱 사장이 복지차원에서 이 학교를 세운다고 해서 그 뜻에 나도 가담을 했지. “인천에서 좋은 대학 가겠나?”하면서 인천을 비난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지. 너희들도 자존심 상하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였어. 하지만 하늘고가 그런 비난을 없애는 좋은 학교가 되었다. 인천의 교육열을 높이고, 다른 시도로 유출되는 인재들을 막고. 이제 하늘고는 인천의 긍지가 되었어.

그래서 난 우리 학생들이 좋은 대학을 진학하면서도 개성이 있는 학생이 되었으면 좋겠어. 특히 국어나 역사 같은 과목에서 여행, 동아리 활동 등을 많이 시켜달라고 해서 여행을 하면서 많은 경험을 해보렴. 그렇게 자기 계발을 하는 거야. 일류대학 박사가 된 어떤 마마보이가 있었어. 이 사람은 모든 것을 엄마한테 계속 물어보는 거야. 사회적으로는 점수가 좋지만 그 자체를 봐봐. 그런 사람은 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가 아니야. 정말 그런 사람이 많아졌다고들 하는데 우리 학교 학생은 그렇게 되면 안 돼.”

서가풍경에서 이사장님은 책이 수중에 들어오면, 먼저 맨 앞에 장서인을 찍으시고 자신의 나이가 되는 페이지에 찍는다고 들었습니다. ‘도장찍기’를 하시는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야. 이렇게 페이지를 펼쳐 보면서 ‘내가 그때 이 책을 봤구나.’하면서 정리를 하는 거지. 내가 책을 구매한 때의 나이와 같은 페이지에 도장을 찍어 놓는 것이거든. 그리고 집에 한 8000여 권의 책이 있어. 우리 아들들은 아파트 살다 보니 책 관리를 잘 못해. 그냥 내 취향같은 것이지. 그게 너희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 근데 이 도장이란 게 예술이란단다. 중국은 아직도 진시황의 도장이 있어. 그래서 중국이 대단한 거야. 글씨를 가지고 예술로 다루는 나라 중 하나는 중국이고 또 하나는 이슬람 국가야. 많은 글자체가 예술처럼 배열되어 있어. 글씨를 갖고 건축물에 새기는 거 말이야. 그건 아주 예술적인 일이지. 우리나라에도 그러한 중요 예술품들이 있지. 석굴암 가봤니? 토암산을 올라가다 보면 바로 위쪽에 비석이 하나 있는데 ‘영국은 인도는 줄지언정 세익스피어는 줄 수 없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는 석굴암에 석불은 절대 줄 수 없다.’ 이걸 인천 사람이 말했어. 고유섭 씨라고. 석불은 화강암으로 만들었어. 결도 있고 정말 단단하지. 만약 잘못 건드리면 바로 깨져버려. 그런 돌로 만들었어. 게다가 참 아름다워. 중국에 가보면 바위를 파서 불상을 세웠어. 그런데 석굴암은 돌을 조립한 거야. 이걸 건축물이야. 세계 유일이야. 이것 찾아내고 처음으로 대단하다고 느낀 게 바로 인천 사람이야. 대왕암 발견한 사람도 그 사람이지. 그래서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예술에 대한 조예도 깊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단다.”

지용택 이사장님이 살아오시면서 겪었던 가장 큰 역경은 무엇이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내가 어느덧 77년을 살았으니까…. 가장 가슴에 남는 것은 불효야. 내가 사회 운동을 하다가 서대문 형무소에서 있던 적이 있었어. 그곳에 있다가 출소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어. 내가 그곳에 들어간 것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만 어머니께서는 아들이 찬 방에서 자는데 내가 어떻게 따뜻한 방에서 주무시겠냐고 하시면서 방 밖에서 차갑게 주무셨다는 거야. 그것이 불효였는지 쫓을 때는 몰랐어. 그래서 지금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단다.

역경을 극복하는 일. 난 이렇게 생각한단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그것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인내하며 그것을 감당해야 돼. 그냥 그 자리에 있어. 피하지 말고. 그냥 당해내야 된다. 요령 부리지 말고. 난 그렇게 살아 왔어. 물론 마음속으로는 피하고 싶었지…. 그래도 내가 살아가면서 느낀 것은 어려운 일이 오면 그냥 당해내고 버텨야 한다는 거란다. 우리 학생들도 이 다음에 살아가는 데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절대 비겁하게 피하지 마라.”

이사장님의 꿈과 열정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꿈? 딱 한 가지가 있다. 내가 일제 시대에 태어났어. 해방. 혁명, 전쟁 등 많은 일이 있었잖아. 내가 그렇게 현대사를 많이 밟았어. 그 굴절 많았던 사회를 겪으면서 지금 바라게 된 것은 후배들에게 덜 부끄러운 사람이 되라고 부탁하는 일이고 나 역시도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이지. 즉, 스스로 자기가 부끄러움을 덜려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야. 어떤 세대든지 자기가 살아가는 그 세대가 제일 불행하다고 느껴. 처음



형무소에서 성경을 봤어. 얼마 뒤에 성균관대학교에서 논어를 넣어주어서 봤지. 그때 이 후로 동양 철학을 접할 수 있었고 지금도 이어져서 중국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어. 그때 그 인연이 바로 그 시작이었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려움이 있을 때는 비겁하게 피하지 말고, 짧게는 그게 불행한 것 같아도 죽음을 앞두고서도 비겁하게 피하지는 하지 말자. 고난을 피하기 위해 자기 안위를 위해 부끄럽게 꺾어야 하는 일들을 피하지 말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괜찮아, 그게 옳은 일이었다면.”

마지막으로 하늘고 가족 모두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하고 싶은 것 하고 살아라. 우리 하늘 가족들이 하고 싶은 거. 누군가가 구두 닳기를 좋아하면 구두닢이를 시킬 수 있는 것. 구두를 닦다가 더 발전해서 어떻게 닦고, 밭 형태가 어떻게 하는 아이디어들이 생길 수 있어. 그렇게 살다보면 회사에서 월급쟁이로 사는 것 보다 낫지 않겠냐는 거야.

공자 말씀에 화이부동(和而不同)이란 말이 있어. 군자는 개성을 지키는 게 좋은 거야. 소인배는 동이불화(同而不和)야. 불교에 화엄경이라는 것이 있다. 꽃으로 장엄하게 한다는 말이야. 논두렁, 밭두렁, 산골짜기에 있는 장미만, 튼リップ만이 아니라 모든 꽃들이 화음을 이룬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생소할 수 있는데, 거체전진(擧體全眞) 즉 모든 게 다 이유가 있다는 말이야. 만물에는 각자의 존재 이유가 있어 중요한 것이야. 생긴 것이 조금 못나고, 공부를 못하는 사람도 다 그 존재의 이유가 있어. 다 이유가 있고 그게 있어야 살맛이 난다는 거지.



난 이사장으로서 성적 때문에 뭐라고 할 생각은 없어. 학부모들이 뭐라고 할지도 모르겠는데, 그래도 아이들이 개성 있게 성의 있게 살았으면 좋겠어.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해주신다면 그것이 좋은 거야. 아름다운 걸 보고 아름다운 건 줄 알고, 틀린 것과 옳은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단다. 선생님들께서 아이들 가슴에 뭐 하나씩 넣어주었으면 좋겠어. 내가 지금껏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이라도 가슴에 안고 가면 나는 행복하겠네.”

Epilogue

인터뷰가 진행되면서 지용택 이사장님의 가슴 속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다. 학생들이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마음. 개성을 잃고 특정 흐름 속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개성과 존재 이유를 찾고 사회의 별로 빛나기를 바라시는 마음. 그리고 역경과 고난을 비겁하고 부끄럽게 피하기보다는 그 자체를 감내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 많은 독서와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갖춘 지식인이 되길 바라는 마음. 이 마음들을 모아 우리 하늘고등학교 학생과 하늘 가족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던 이 시간이 매우 의미 있고 행복했다.

인터뷰:

강동석 이사님 인터뷰

● ● ●

강동석 이사님



Prologue

건설교통부 장관, 인천국제공항 설립자, 한국전력공사 사장, 2012 여수 세계 박람회 조직위원장까지. 이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는 누구인가. 현 인천하늘고등학교 이사진의 강동석 이사님이다. 이사님이 바라는 하늘고의 모습과 국가의 공인으로 살아온 그의 인생을 ‘하늘나래’가 취재하였다.

Interview

이사님께서 학창시절에 가지셨던 꿈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내가 살던 사회는 매우 단순했어요. 당시에는 사회기반시설도 잘 갖추어지지 않았었고, 직업도 다양화되지 않았었습니다. 내가 학생일 때는 주산업이 농업이었고, 직업이라고 해보았자 공무원, 신문사 직원, 은행원, 국영기업체 직원. 이 정도가 내가 살던 시절의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꿈이라는 구체적인 것은 가지지 못했고 ‘이 세상에 쓸모가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막연한 생각 정도 했어요.

고3쯤 되어서 문화인류학이라는 인류의 민속, 문화를 연구하는 학문을 접하고 나도 문명사학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때 당시 고등학교 역사 선생님께서 대학교 교재를 가지고 수업하여서 안목을 높여주셨죠. 사학을 동양, 서양 융합해서 배우게 하셨어요. 나도 그 책을 읽은 계기로 ‘사학자가 되면 멋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역사와 국가에 대한 애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공항 건설, 여수엑스포, 경부 고속도로 개통 등 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였을까요?

“나는 인천공항 건설을 맡기 전까지 공무원 생활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몸에 배인 체질이 공직관이다 보니 매사에 책임감이 컸죠. 공항을 처음 지을 당시에, 공항을 직접 운영해보거나 건설을 해본 경험이 없었어요. 나랑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지요. 거의 문외한. 게다가 이 공항은 세기를 바꿀 수 있는 21세기형 공항일 것이라는 기대를 내심 받았어요. 이런 일에 있어서 자신감은 가질 수가 없었고 소명감으로 일을 했어요. 자신감을 얻으려면 정보가 있어야 하고, 무언가 구체화된 실력이 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우수한 공항들을 벤치마킹하고 공부했죠. 우수하다고 평가받던 외국 공항은 모두 다 방문했어요.

결국, 나한테 맡겨진 일을 꼭 해내야 한다는 책임감과 소명감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 소명의식. 지금 나이에 와서도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을 자주 맡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운이 좋았어요. 내가 남보다 특별히 출중한 능력이 있고, 지식이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겸손이 아니라 실제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게 이렇게 몇 번씩 리더의 자리를 맡겨주신 것은 능력이 아니라 신뢰가 밑바탕이 된 것 같아요. 한 번 사람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일을 성취하니깐, 그것이 일을 맡겨야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신뢰를 주었어요. 이런 신뢰가 쌓이면 선순환이 되어서 내가 한 번이라도 더 기회를 많이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 아까 말했듯이 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운은 그저 타고난 운으로서 오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함께 일한 부하, 동료, 상사. 이런 사람들이 “야! 강 아무개 어땠냐?”라는 질문에 대해 “아 그 사람 참 열심히 일합니다. 참 바르게 일합니다.”라고 말해주면 나를 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나를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선순환 되어서 나의 운을 형성해주는 것 같습니다.”

국가와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을 갖게 되신 계기가 무엇인가요?

“나는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공직에 있었던 사람들이나 후배들에게도 부드럽게 강조하는데, 자라나고 교육받고 하는 것이 저 혼자만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닌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있어준 것은 나의 가정, 사회, 나라입니다. 그래서 대학에 진학해서 공부를 하고 어느 분야의 사회인이 되면 결국 나를 키워준 사회에 대한 책임 의식과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하죠. 망망대해에 훌륭한 공항을 만들 수 있었던 것도 주변의 노력, 사회가 있었기에 이룰 수 있었던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생각하고 있어요. 나라와 사회에. 그리고 그 감사에 반드시 보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늘고 건설을 추진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공항 건설을 하면서 3개의 섬이 없어졌어요. 땅이야 없어진다고 해도 상관이 없지만, 그 땅에 사는 섬 주민들의 생활이 문제였죠. 눈물을 머금고 나간 분들도 많았어요. 3대, 4대부터 100년 이상 살아온 그 분들. 그 분들에겐 눈뜨면 바다에 나가서 게도 잡고, 소라도 잡고, 물고기도 잡는 아름다운 삶의 터전이었지요. 그런데 국가적인 공익사업인 공항이 들어서면서 어쩔 수 없이 이주를 가야만 했어요. 삶의 터전을 빼앗은 것이기 때문에 규정대로만 보상할 수 있는 땅값이나 집값으로는 그분들의 상처를 달랠 수 없었어요. 그보다 더 큰 보상을 해드리고 싶었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십니까?”라고 물어보았더니 자녀들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씀들 하시더군요. 그래서 영종도에 인천 지역 최고의 교육 시설과 여건을 만들어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지키지 못했었는데 기



회가 왔고 그래서 지어진 것이 바로 하늘고등학교죠.”

어떤 학교를 만들고 싶으셨습니까?

“최상의 학교를 만들기 위해 전국의 좋다고 하는 고등학교를 모두 벤치마킹 했어요. 그리고 학교가 지어질 때 이상으로 가졌던 것은 명문대학교를 많이 가는 그런 학교보다는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학교생활이 참 재미있다, 참 행복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졸업해서 대학생들, 사회활동을 할 때 하늘고등학교 출신은 “향기가 난다.”, “어쩐지 하늘고등학교 졸업생은 무언가 다르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학교를 만들고 싶었어요.

고등학교 3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친구도 제일 친한 친구를 사귀고, 인간이 아름다운 도자기로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게다가 기숙학교니까 학생들이 고등학교의 좋은 추억을 가질 수 있도록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심어도 ‘여기서 이런 노래를 불렀었지. 여기서 이런 얘기를 했었지.’라는 추억을 가졌으면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생각한 이상적인 학교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젠 내 이상에 불과했나 봐요. 나중에 현실을 보니까 1차적 목표인 학생의 행복보다는 2차 목표인 대학 진학에 더 집중된 것 같습니다. 11시까지 자습을 한다, 그날따라 몸이 안 좋을 수도 있고,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을 텐데. (몸이나 기

분 상태에 따라 선생님의 동의를 얻고 조기 입실하여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다. — ‘하늘나라’) 학교생활이 행복해야 되는데 뭔가 강제가 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들기도 해요. 교사도 학생도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늘 교육 재단 이사로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요?

“교장·교감·선생님들께서는 학사일정을 담당하시고, 이사회는 학교에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하죠. 앞으로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학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Epilogue

모두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학교. 그것이 강동석 이사님이 꿈꾸는 학교의 모습이었다. 우리 학교가 생기게 된 몽클한 계기부터 리더가 되기 위해 신뢰를 갖추고 스스로 운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열정을 배울 수 있는 기회였다. 가정과 사회 국가에 대한 고마움을 느낄 줄 아는 지식인, 사회에서 아름다운 향기를 풍길 수 있는 지식인. 이러한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 따뜻한 조언과 경험에서 비롯된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인천하늘고등학교를 설계하다

● ● ●

이용선 설계사

Prologue

현재 인천하늘고등학교를 설계하신 이용선 설계사님을 뵈러 교지편집부 ‘하늘나래’가 취재를 나갔다. 서울에 자리 잡은 설계사무실에서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우리 학교가 우수시설대상을 받게 된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이용선님의 열정과 건축에 대한 가치관, 하늘고등학교 학생을 향한 조언을 들어보자.

Interview

건축이란 무엇인가요?

“건축은 50부터예요. 50이 넘어야 건축이 무엇인지 알만한 나이가 되고 비로소 제대로 된 건축을 할 수 있으며, 건축가로서의 면모를 갖추 수 있어요. 50부터니까 그럼 저는 이제 시작이겠지요? 그리고 건축가는 어떻게 보면 마스터로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케스트라에서도 각 악기들이 있고 그 악기들을 통솔하며 지도해가는 지휘자가 있듯이, 건축에서도 건축가가 공사를 하는 설계 작업을 할 때, 설비 구조 전부를 통제하는 면에서 건축가 또한 마스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건축을 볼 때 외부 형태에 비중을 너무 많이 두는 것 같아요. 하지만 건축은 외관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부부터 시작하는 것이 건축이이에요. 외관만 중요시하는 건축은 좋은 건축이 아니에요. 좋은 건축에는 편리함만을 추구한 것이 아닌 꿈과 비전이 담겨 있어야 해요. 또한 건축가는 모두 이공계 소질만 가져야한다는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건축가들은 본질적으로는 이공계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인문계로서도 소양이 있어야 진정한 건축가로서의 자질을 갖췄다고 생각해요.”



건축을 하게 되신 계기는 무엇인가요?

“고등학교 선배 중 한 명이 건축과를 다녀서 선배님의 재치 있는 소개를 통해 공대 분야이지만 상당히 예술분야에도 가깝고, 창작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창조해내는 작업이라는 건축만의 특별함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건축을 선택했어요. 건축을 더 깊이 있게 배우게 된 이유는 남의 권유나 외부 강요에 의해 결정된 진로가 아닌 내 스스로가 선택한 진로여서 그런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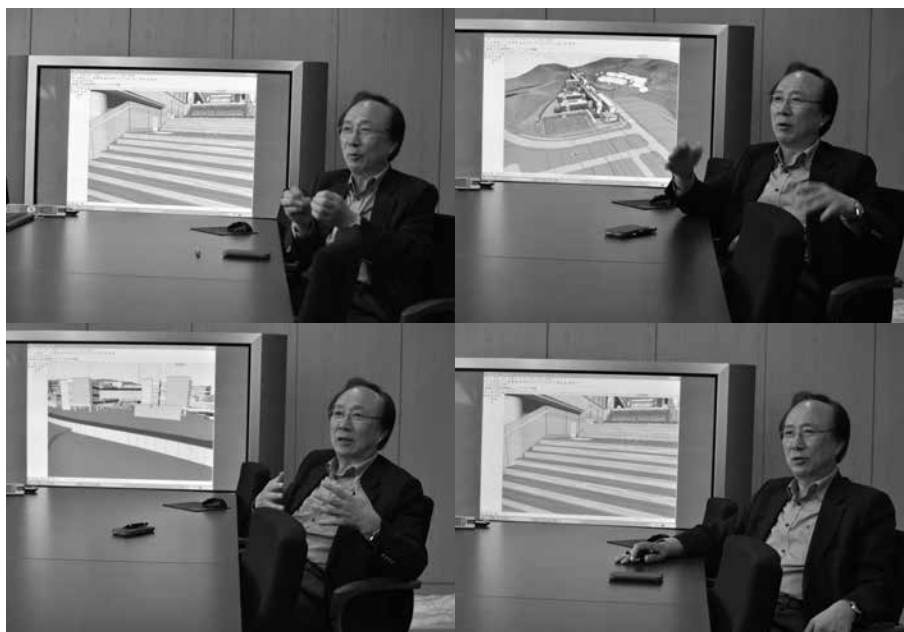
진로에 관하여 학생들을 위한 조언이 있으신가요?

“어떤 분야든지 끼가 있어야 해요. 그리고 어떤 분야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 올바르죠. 그래야 자기 나름대로의 이상과 꿈, 비전을 만들어 놓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발적,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어요. 저는 건축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집념을 가지고선 일을 하니깐 빠져들어서 깊이 있게 건축을 할 수 있었어요. 과거에는 직업선택의 폭이 좁아서 택할 수 있는 진로의 경우가 적었어요. 지금은 반대로 직업선택의 폭이 너무 넓죠. 하지만 너무 넓어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더군요. 그 이유는 요즘 학생들은 무엇이 자신이 좋아하고 적성에 맞는 것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을 선택해도 먹고 사는 건 별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승부가 나고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늘고등학교 건축 설계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설계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휴머니스트가 되어야 하며 상상력이 있어야 해요.

건축이 완성된 그 공간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사건들을 상상해 보고 그것에 맞는 공간을 창출해야 해요. 저는 하늘고등학교를 설계할 때에는 학생들이 공간에서 무엇을 하며 생활할까를 생각하며 했어요. 예를 들어 계단은 옛날에는 통로로서의 기능만 했었어요. 하지만 학생들은 길가면서 책을 읽는 경우를 종종 봐왔어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책을 읽거나 쉬어가는 공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으며, 그곳에서 책을 읽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며 놀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을 상상했어요. 그리고 계단에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로 했죠. 하늘고등학교의 체육관은 다른 학교들에 비해 잘 보이지 않아요. 체육관은 다른 과목의 교실과 같은 선상에서 접근이 쉬워야 하고, 평소에 학생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체육관이 위치하게 되었죠. 학생들의 생활에서 쉽게 접근 가능하지만 독립적인 공간으로 설계했어요. 기숙사에서 왜 이러한 구조가 되었는지 궁금해 한 적 없나요? 원래 설계도에서는 구조가 달랐어요. 사생활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자신만의 고유한 사적인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또한 4인1실로 설정한 이유는 2인1실일 경우에는 친구 간의 마찰이 쉽게 일어나고 풀어나가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4명에서 서로 도와가며 마찰을 줄여나가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많으면 사생활 측면에서 또 문제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4명이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설계했죠. 강당의 경우에는 왜 교문 쪽으로 설계한지 궁금해 한 적 없나요? 강당에는 학부모설명회 등 때문에 학부모들이 많이 오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교문에 가까운 곳으로 설계했어요. 하늘고등학교는 공간을 잘 이용해서 학생과 학교 모두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했어요. 완성되었을 때, 학생들이 무엇을 하면서 생활할



지를 상상해보면서 말이죠. 이렇게 하늘고등학교에는 공간마다 의미가 있죠. 하늘고등학교 전체적인 형태를 보면 환경과 어울려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렇게 설계한 이유는 처음에 땅을 보며 영감을 얻었어요.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주변 환경을 보면서 학교 내에서 멋진 풍경이 들어 올 수 있게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죠. 이렇게 건축은 하나하나 과정을 밟아가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예요.”

하늘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꿈과 열정을 심어 줄 수 있는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주변을 너무 의식하지 말고 자신에게 정말 재미있고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그러기 위해선 일단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죠. 만약에 본인의 뜻과 관계없이 일을 시작하게 된다면 나중에 결국 다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게 돼요. 이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시간만 걸린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열정을 가지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도 하늘고등학교 모니터링을 하고 계신가요?

“하늘고등학교에 방문할 때마다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보고 있어요. 제가 의도한 것처럼 쓰이고 있는지 아니면 새롭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보고 있어요. 학생들이 제가 건축한 공간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일주일 정도 같이 생활해볼까 생각해 본적도 있어요. 이렇게 건축을 할 때에는 사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해요.”





하늘고등학교 학생으로 느껴야 할 자부심은 무엇이라 생각하세요?

“하늘고등학교의 구조는 정말 좋아요. 학생들이 좋은 점은 평소에 이러한 구조 속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걸 정말 선택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죠. 한국이 유럽에 비해 디자인이 떨어진다는 말을 많이들 하죠? 그 이유는 유럽은 평소에 세련된 곳에서 성장해 온 사람들이기에 무엇을 만들어도 세련되기 마련이에요. 이렇게 하늘고등학교 학생들은 이러한 구조 속에서 성장하고 있으니깐 나중에 무엇을 만든다고 하면 그 때 차이가 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해 주세요.”

Epilogue

우리 학교 설계에 이렇게 많은 고민과 의미가 들어있는 줄 몰랐습니다. 학생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공간을 설계하신 만큼 우리가 그 공간들을 소중하게 다루고 그 뜻을 느껴보는 것이 어떨까요? 우리 학교가 우수시설대상을 수상할 정도로 훌륭한 시설을 갖춘 만큼 우리 하늘고등학교 학생들도 세련되고 창의성 있는 사고를 갖추었으면 좋겠습니다.

꿈과 열정이 충만한
하늘고 학생이 되길...
이 문선

인터뷰:

고양 원더스의 야신(野神)

● ● ●

김성근 감독



Prologue

고양원더스 야구장 한쪽에 위치한 감독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할아버지 한 분이 팬들을 위하여 공에 사인하고 있었다.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주름진 그의 얼굴. 김성근 감독. '하늘나라'에서 야신(野神)이라 불리는 사나이를 만났다.

감독님께서 야구 감독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노력이라고 할 것도 없어. 노력이라기보다는 나는 항상 긍정적으로 살았지 않나 싶어. 항상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도 별로 어렵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인생은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는 법이거든. 나는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어려웠던 일, 역경이 있었어도 힘든 줄을 몰랐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어려운 일이라 말하는 것들도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았지. 다만 그 순간순간에 내가 하는 일, 내가 겪어야 하는 일, 내가 해야 할 일, 바로 그것들에 그 순간 파묻혀 있지 않았나 싶어. 음… 결국 내가 한 것은 집중이지. 반드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몰입하는 것.”

한참 동안 답이 없었다.

“또 질문 할까요?”라고 묻자, “어 어 해봐.”라고 하시며 웃으셨다.

사석에서 만난 제자, 훈련에서 만나는 제자. 같은 대우를 하시나요?

“난 같은 대우를 해주지 않아. 같은 조직에 있을 때는 나랑 같이 있으면 굉장히 거리감을 느낄 거야. 그렇지만 나하고 조직에서 헤어지고 나서는 아주 가깝게 지내. 아무래도 같은 조직에 있으면 냉철하게 판단해서 대해야 할 일들이 많으니까. 격식 없이, 거리감 없이 대한다는 것은 어렵지. 하지만 인간적으로 멀리 느끼는 건 아니니까……. 헤어지고 나서는 가까워지는 거지.”





리더가 가져야 할 자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리더라고 하는 것은 사리사욕(私利私慾)을 버리고 그 조직의 결과를 내야 한다는 사명감(使命感)을 가져야 하지 않나 싶어. 자신을 버리더라도 조직에 모든 것을 부어야 해. 그런 점이 가장 중요하지. 리더의 요건이라 하면 어마어마하게 많겠지만 또 가끔은 비정하기도 해야 해. 조직의 결과를 위해선 나의 이익도 버리고 때론 개인의 이익을 버리게 해야 할 경우가 생기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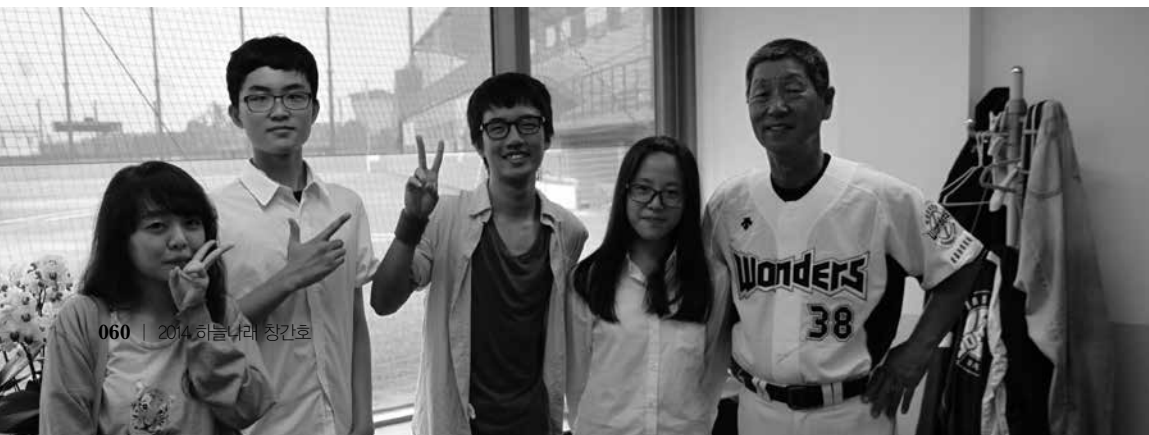
하늘고 학생들에게 열정을 갖는 법을 말씀해주신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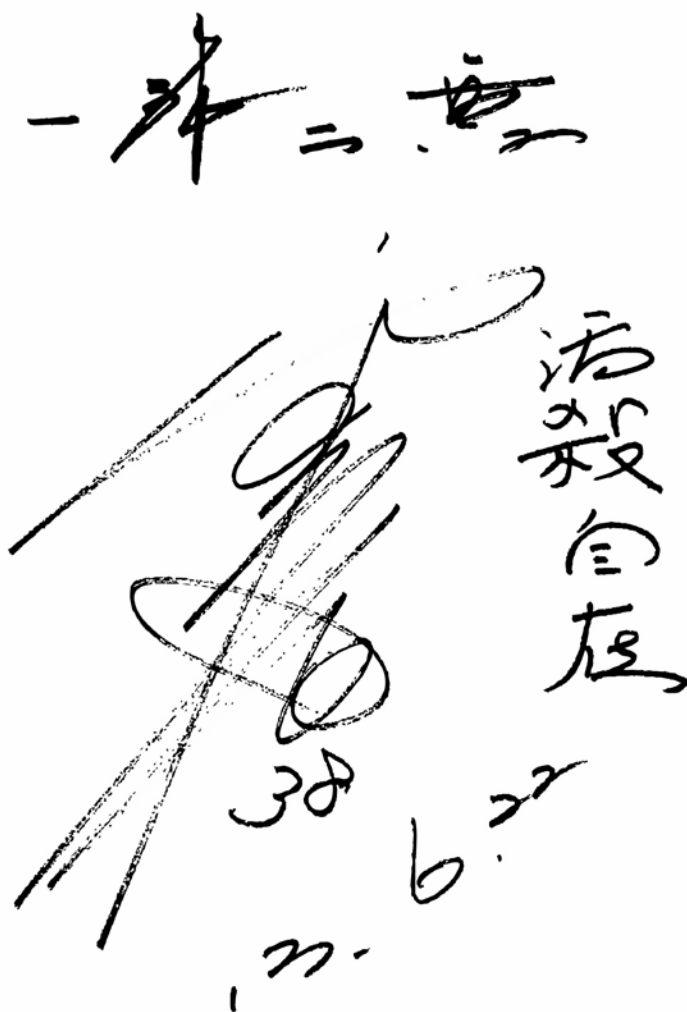
“학생들? 음.... 항상 자기 스스로 한계를 설정하면 안 돼. 한계는 인간한테는 없다고 믿어. 그저 한계라고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서 자기를 가둘 뿐이지. ‘나는 여기까지다.’, ‘여기까지가 내 한계다.’ 라고 하는 순간 일에 대한 열정은 사라지고 패배감만 남을 뿐이지. 그런 패배감이 반복된다면 무슨 일에 열정을 가질 수 있겠어?”

하늘고에는 현재 교사들로 구성된 ‘하늘 스카이 야구단’이 전패의 신화를 갖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격려의 한 말씀 해주신다면?

김성근 감독님은 피식 웃으셨다. 그리고 한동안 생각을 하셨다. 그리고 하신 말씀.

“연습!”





Epilogue

이 날은 고양 원더스와 SK 2군의 시합이 있는 날이었다. 경기 전에 인터뷰를 하려 했지만, 공영방송사들이 미리 나와 인터뷰를 갑자기 진행하는 바람에 우리는 결국 경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인터뷰를 해야 했다. 다행히 고양 원더스의 승리로 인해 인터뷰 분위기가 화기애애할 수 있었다. 길지는 않지만 힘이 있고 많은 경험에 압축되어 있는 감독님의 한 마디 한 마디에서 꿈과 열정을 향한 힘을 느낄 수 있었다. 야신(野神)의 조언에 따라 우리 하늘고등학교 학생들도 무엇이든 한 분야에 몰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며 기사를 마친다.

2013학년도 동아리 소개

1. 인천하늘고등학교 동아리 안내

연번	동아리명	동아리 소개
1	Cielo	Cielo는 하늘고등학교 교내 오케스트라 동아리로 클래식 음악뿐만 아니라 드라마 OST 등 학생들에게 익숙한 곡들을 연습하여 학년 말 학술제 때 발표 연주회를 개최함. Cielo는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베이스, 트럼펫, 기타, 플루트 외에 다양한 악기로 구성되어 있음. 오케스트라는 구성원 하나하나의 실력뿐만 아니라 동아리 부원 간의 화합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Cielo를 통하여 서로 간의 화합심, 협동력을 기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접하게 하는 역할도 하고 있음. 고등학교 생활에서 예술 활동을 함으로써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풀고 음악에 대한 감수성도 기를 수 있는 동아리임.
2	CIPIE	CIPIE는 경제, 경영을 전공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의 동아리임. CEO, COO, 기획, 전략, 재무, 마케팅 인사와 같이 동아리 부원이 맡은 역할이 기업체처럼 구성되어 있음. 경제 관련 인사의 강연, 경제 잡지 제작, 토론과 같이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미래의 경제인으로서의 자질과 실력을 갖추어 나가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생글생글, 아하 경제, 틴매경 테스트에도 단체 응시하는 등 열정이 가득한 동아리로 알려져. 이를 통하여, CIPIE는 매일 경제 선정 '전국 최강 동아리' 중의 하나로 선정됨.
3	HTTP	HTTP는 물리 실험 동아리로서 내신과 입시로 인해 암기식으로 공부하기 쉬운 물리의 원리를 실험을 통한 보고서 작성, 심화적 토론을 통하여 원리 중심의 체험 과학을 배우고 이를 체화시켜나감. 과학관, 물리 관련 전문 기관 등을 연중에 방문하고 영화 속의 물리 법칙 찾기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고 있음. 항공, 전자, 기계 등 물리와 관련된 전공을 공부하고자 하는, 물리 실력이 출중한 부원들로 동아리가 구성되어 있어 열정적인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음.
4	ALCHEMIST	ALCHEMIST는 화학 실험 동아리로 아스피린 만들기, 물질 검출 등 화학 실험을 통해 화학에 대해 깊이 있는 공부를 함. 또한 화학 관련 영상을 시청하고 과학관 등을 견학하여 화학 분야에 대해 심화된 학습을 함. ALCHEMIST는 실험뿐만 아니라 해송노인전문요양원에서의 봉사과 화학실을 활동을 하여 봉사정신을 기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5	Bio Farm	Bio Farm은 의학, 생명 공학과 같이 생물과 관련된 과목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모인 동아리임. 다양한 실험기구를 보유하고 있어 해부와 세포 관찰과 같은 간단한 실험 외에도 여러 종류의 실험을 계획 및 진행할 수 있으며, 갯벌 체험학습, 과학관 견학 등을 통하여 실험실에서 진행하기 어려운 활동을 병행함. 또한 승기천 환경정화와 양로원 봉사를 통한 생명 사랑, 인간적인 정서 형성에 중점을 둬, 부원 사이의 화목한 분위기와 지도 교사의 열정이 만나 동아리 부원들의 과학적인 사고를 폭넓게 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고 함.
6	ISHA	ISHA는 물리, 생물, 화학, 지구과학의 4가지 분야를 모두 탐구하는 융합 과학 사랑 동아리임. ISHA는 동아리 부원들을 몇 개의 조로 나누어 삼성휴먼테크 논문대회에 학기당 논문 1편씩을 써서 출품함. 창의적이고 간학문적인 사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진 현대 사회에서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과학을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동아리임.
7	Volunteacher	교육 봉사 동아리 Volunteacher는 영중중학교와 연계하여 중학교 친구들에게 직접 수업을 해주는 동아리임. Volunteacher는 사범대 탐방, 교육문제 토론, 교내 선생님들과의 인터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교사의 꿈을 키워나가는 동아리임. 동아리 구성원들은 Volunteacher를 통하여 중학교 학생들과 멘토·멘티 활동을 함으로써 자신들의 학업 역량도 쌓을 뿐만 아니라 영중중학교 학생들과 친분을 쌓는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음.
8	도서부 (DPC)	DPC는 Dream Passion Center 의 준말로 꿈과 열정을 키워주는 곳이라는 의미를 지님. 한 해 동안 국회 도서관, 서울 도서관, 교보 문고 등을 방문하는 각종 체험학습을 실행함. 팀을 나누어 매 점심과 저녁 시간마다 책을 정리하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봉사 활동을 함. 꿈을 찾아가는 부원들에게 독서를 통한 다양한 직업 탐구와 일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은 자유로운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동아리 부원들 역시 다양한 독서 활동을 하고 있음.
9	SOC	SOC는 학교 대표 홍보 동아리로서 홍보 브로슈어, UCC 등을 만들어 학교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는 것을 목표로 함. SOC는 학교 입학설명회에 참여하여 하늘고등학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학교를 소개하고 신입생 면접 때에도 봉사 활동을 함. 홍보를 위하여 여플 제작 동아리 HAM, 정치 외교 동아리 YUPAD와 연합하여 활동 영역을 넓힐 계획임.
10	THE H.P	학교 소식과 사설을 모아 영자 신문을 제작하여 대외적으로 학교를 알리고 대내적으로 학생들에게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보게 하는 역할을 함. 언론을 전공한 원어민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미국 현지식의 영자 신문을 제작하고 있으며 1년에 1회 신문을 발간함.
11	늘품	늘품은 국어교과서 제작 동아리로 국어 과목을 넓은 시각에서 총체적으로 보고 다시 세분화하여 집중적으로 확장함으로써 국어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하는 동아리임. 문학뿐만 아니라 인문학, 예술, 과학 등 비문학 분야를 모두 다루기 때문에 계열에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음.

12	하울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을 알아가고 전도사님의 신학 관련 강의와 학생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종교에 대한 열정을 배움. 인간 사랑 실천을 위한 경로원 봉사 및 월드비전을 통한 단체 후원 활동은 동아리 부원들의 인간 사랑을 고취하는데 큰 역할을 함. 이 밖에도 노래, 율동, 공연, 악기 연주를 배우며 타 고등학교 동아리 '하임'과의 기독교 축제인 '예람제'에서의 공연을 준비함.
13	HAM	기획, 코딩, 디자인 3분야로 팀을 나누어 하늘고 홍보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함. 컴퓨터에 흥미와 전문성을 가진 학생들이 직접 동아리를 이끌어 나가 어플리케이션 제작의 효율성과 열정이 뛰어나.
14	YUPAD	타 학교와의 연합과 교류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외교 동아리임. YUPAD에서는 이어도, 독도 문제 같은 정치외교 문제에 대해 조사한 후 동아리 부원들 앞에서 강의하고 사회문제에 대해 토론하는 활동을 함. 3달에 한 번씩 전국 고등학교에서 참여하는 총회에 참석하여 정책 발표대회, 토론 대회를 개최함. 앞으로 인사동 캠페인, 교내 캠페인, 사이버 토론 참가, 국회 및 청와대 방문 등 더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임.
15	카리타스	카리타스는 순수 봉사 동아리로 매월 2회 해송노인요양원으로 봉사를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는 보육원 봉사 등 봉사 영역을 더욱 넓힐 계획임. 카리타스는 봉사 외에도 사회복지 관련 영화 시청, 독서 후 감상문 작성으로 포트폴리오를 제작하고 매년 1회 유니세프에서 주최하는 모금활동에 참여해 학교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어려운 친구들을 돕는 활동을 하고 있음. 단지 봉사시간을 채우기 위한 봉사가 아닌 사람과 사랑으로 소통하는 법을 배우는 뜻 깊은 봉사를 할 수 있는 동아리임.
16	On air	하늘고등학교 방송부로 교내 라디오 방송을 하고 UCC, 방송대회에 참가함. SOC와 함께 학교 홍보영상물을 제작하고 시각 장애인을 위한 목소리 기부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음. 방송국 체험, 방송 관련 직업 탐구 등을 통해 진로와 관련된 활동을 함.
17	FAR	국제적 분쟁과 관련된 기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아리임.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마음을 일으켜 어려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는 활동을 하고 있음. FAR에서는 동아리 부원들이 원형으로 앉아서 활동 회의를 하는데 이는 둥근 지구촌을 표현한 것으로서 서로 마주 보고 활동하는 것을 통해 유대감이 끈끈해지는 계기가 됨. 앞으로 세계난민의 날에 학교에서 캠페인을 하고 12월에는 공황에서 카를을 불러 모금을 마련할 것이라고 함.
18	하늘 유네스코	세계화에 따라 국제 교류가 활발해지는 현 시대에 '융합형 글로벌' 인재를 추구하여 부원들의 세계화적 역량을 높이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두고 있음. 1인 1 펜팔활동을 통해 주로 제3국 학생과 'INTERPAL'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대화와 생각을 주고 받음. 이를 통하여 국제적인 마인드와 영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 전국 유네스코 선정 고등학교가 모여 각각의 학교가 하나의 나라를 맡아 그 나라의 문화유산 세계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하는 대회인 전국유네스코총회 우승을 목표로 함. 영종도 알리미 활동을 통해 장기적인 프로젝트로서 영종도를 알리는 홍보 브로슈어를 제작을 계획하며 이를 영어판으로도 제작하여 인천 국제공항에서 홍보할 예정임.

19	ARCHI	ARCHI는 건축 동아리로 건축에 열정이 있는 학생들이 만든 동아리임. 건축가들이 쓰는 프로그램(건물 완성도 재현 프로그램)에 대해 연구하며 장기적으로 다양한 건축물의 모형을 직접 만드는 활동을 기획함.
20	루미난트	루미난트는 밴드 동아리로 자유분방한 분위기에서 선후배 사이의 친근한 관계를 쌓을 수 있음. 루미난트는 9월에 개최하는 락 페스티벌과 연말 학술제에서 공연을 할 예정임.
21	PSYCHOLIC	심리학 동아리로 면학실, 기숙사에서 스누핑(행동 분석)을 하여 사람의 성격과 행동에 대해 탐구해보는 활동을 함. 또한 동화,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들의 행동에서 성격을 분석하고 심리학 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연을 들어 전문적인 지식을 함양하고자 함.
22	엠틴	엠틴은 국내·국제적 인권이슈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탐구하고 발표하는 동아리임. 인권관련 캠페인과 모의인권이사회를 열고자 준비 중임. 또한 제3세계에서 후원받는 아이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영어로 번역하는 일, 인권단체를 후원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인권관련 문제가 있는 나라의 장관에게 보내는 탄원서, 무기 금지 조약 체결 내용과 관련된 청원서를 작성하고 있음.
23	생기발랄	생기발랄은 '수학은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닌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순수 수학을 위해 만든 동아리임. 생기발랄은 주로 수학과 관련된 문제(예를 들어 사람을 계속 총으로 쏘다보면 사람이 없어질까.)들에 대해 서로 토론하고, 토론하는 과정 중에서 생긴 문제에 대해 다음 동아리 시간에 연구해보는 활동을 하고 있음. 내신, 수능 위주의 문제풀이식 수학이 아니라 진리를 탐구하는 의미의 생각하는 수학을 추구함.
24	움벨트	움벨트는 독일어로 '환경'이라는 뜻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과 정책이 훌륭한 독일인을 본받자는 의도로 동아리 이름을 지음. 움벨트는 생물체의 각각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환경관련 영화, 다큐멘터리를 보고 환경정책에 대해 토론, 비판을 하고 이를 알리는 캠페인 활동을 함. 식목일에 나무를 심는 활동을 하고 있으며 또한 환경의식조사, 갯벌 및 바다 생태조사, 환경관련 봉사활동 등 차차 활동영역을 넓힐 계획을 가지고 있음.
25	문예창작	문예창작동아리는 작가가 꿈인 친구들이 중심으로 모여 활동하고 있으며,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여 다양한 경험을 쌓고 싶은 친구들도 함께 활동하면서 생각의 틀을 넓히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기획함.
26	하늘나래 (교지 편집)	학교의 얼굴인 교지를 기획, 편집, 제작하는 일을 맡고 있으며 다양한 외부 인사 인터뷰와 학생들의 문예 작품들을 받아 학교의 정체성과 특성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음. 특히 학생들이 자제적으로 기획 회의를 하여 주제를 정하고 인터뷰 인사를 섭외하여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설문 조사, 학교 문화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완성도 높은 교지를 발간하기 위해 노력함.

학생활동:

학습동아리 안내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함양을 위한 학습동아리

- 학생 스스로 학습동아리를 조직하여 모임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권장.
- 매 활동 마다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운영.

	분야	동아리명		분야	동아리명
1	기타	D.Y.D.	13	기타	나는 교사다
2	사회과학	하늘 MBA	14	과학	좀구굴치
3	기타	Air	15	사회과학	SPLEG
4	과학	M.I.T	16	논술	D.A.Y.
5	인문	미상	17	어문	BB theory
6	과학	science family	18	사회과학	Psy Chy
7	인문	E 매일	19	기타	P.C.P.L
8	수리/과학	Q. E. D.	20	과학	과. 자. 연
9	인문	경제적 人	21	사회과학	미네르바
10	논술	N&D	22	어문	트리플 H
11	수리	K대 최씨의 재림	23	사회과학	His Story
12	과학	Bio centrim			



1인 1예 1체 프로그램

...

학생 개개인이 하나의 체육, 하나의 예술 프로그램을 필수로 선택

- 1)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강좌를 조사.
- 2)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위하여 학생의 선택권을 존중.
- 3) 전문성을 가진 외부강사의 영입을 통한 수월성교육 완성.

영역	강좌명	강좌 안내
예술	기초회화(소묘)	선 연습, 툰 연습, 구 원기둥 • 원뿔 • 직육면체 등 기초도형 연습
예술	가야금	가야금의 명칭을 알고 연주법을 익힌 후 가야금으로 민요 혹은 동요를 연주. - 학교 악기 대여 가능



영역	강좌명	강좌 안내
예술	다도와 중국문화 (중국차 이야기)	중국 차 문화를 역사적으로 살펴보고 다양한 중국차를 직접 마시며 행차를 실습해 봄. 차를 실재적 기호음료로 어떻게 즐길 수 있는가에 중점을 두는, '차 한잔의 힐링 체험'
예술	대금	대금의 기초 연주법을 익힌 후 여러 가지 곡을 연주. - 학교 악기 대여 가능
예술	더블베이스	더블베이스의 기초 연주법을 익힌 후 여러 가지 곡을 연주. - 학교 악기 대여 가능
예술	도자공예	도자공예의 기본 기법 학습 및 실습. 직접 흙을 빚어 나만의 작품을 만든 후 외부 가마에 구워 와서 완성해 볼 수 있음.



예술	바이올린	바이올린의 연주법을 익힌 후 여러 가지 곡을 연주. - 학교 악기 대여 가능
예술	베이스기타	베이스기타를 연습하며 단순한 베이스가 아닌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베이스를 배우는 시간.
예술	비올라	비올라의 연주법을 익힌 후 여러 가지 곡을 연주. - 학교 악기 대여 가능
예술	손글씨 P.O.P	미술과 생활의 연계성을 기초로 하여 생활에서 경험한 미적인 체험을 자신의 생각과 느낌으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 표현력과 미적 안목을 키워줌.

영역	강좌명	강좌 안내
예술	드럼	드럼의 기본부터 기초 응용까지 배우는 시간.
예술	우쿨렐레	하와이의 작은 기타, 우쿨렐레는 통기타 곡의 반주, 클래식기타로 치는 연주곡이 가능한 악기.
예술	일렉기타	일렉기타의 기본적인 연주 주법을 바탕으로 일렉기타와 Rock음악의 역사, 문화를 전반적으로 학습하는 강의
예술	종이공예	알록달록 예쁜 종이로 여러 가지 모양을 접고 만들어 멋진 공예작품을 완성.



예술	첼로	첼로의 연주법을 익힌 후 여러 가지 곡을 연주. - 학교 악기 대여 가능
예술	클래식기타	기타와 친한 친구 되기 기타 왕초보 10주 탈출 프로젝트 완성하기 - 학교 악기 대여 가능
예술	플루트	플루트의 연주법을 익혀 여러 가지 곡을 연주. - 학교 악기 대여 가능

영역	강좌명	강좌 안내
예술	피아노	피아노와 관련하여 악기, 작품, 연주법 등을 함께 연구함으로써 피아노 음악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와 응용력을 높임.
예술	해금	해금의 연주법을 익힌 후 여러 가지 곡을 연주. - 학교 악기 대여 가능
예술	보컬 트레이닝	개인별 맞춤 발성 지도 및 노래 연습을 통한 실력 향상을 시키는 체계적인 보컬 트레이닝.
체육	검도	검도는 현대 생활스포츠로 각광받고 있으며 심신 발달과 함께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고 생활에 활력을 불어 넣어줌.



체육	농구	농구의 기초 기술 학습 및 규칙의 이해, 체력 단련 및 경기 운영
체육	무용	무용을 통한 체력 단련 및 스트레스 해소
체육	배드민턴	배드민턴 기초 스텝과 경기 규칙을 바탕으로 경기를 즐기고 체력을 단련함. 공부로 쌓인 스트레스를 푸는 시간을 갖고, 친구들과 땀을 흘리면서 교우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음.

영역	강좌명	강좌 안내
체육	요가	요가를 통한 체력 단련 및 자세 교정 개인별 맞춤 상담 지도
체육	절권도	절권도를 통해 신체 원리를 이해하고, 철학 및 과학적 토대를 기반으로 건강한 신체를 단련.
체육	축구	축구의 기초 기술 학습 및 규칙의 이해 체력 단련 및 경기 운영
체육	탁구	평생 운동으로 적합한 2.7g의 매력



체육	테니스	테니스의 기초 기술 학습 및 규칙의 이해 체력 단련 및 경기 운영
체육	헬스(퍼스널 트레이닝)	개인별 맞춤 퍼스널 트레이닝 체력 강화, 체형 및 자세 교정
체육	태권도	태권도는 세계인의 무도 스포츠이며, 건강 체육으로 누구나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스포츠.

학생활동:

1인 1예 1체 활동 수기 우수작 1

● ● ●

봉수지 2학년 2반

제작년 11월, 슈퍼스타K 시즌3가 방송될 때였다. 결승 전 바로 전날 느닷없이 버스커 버스커가 좋아졌다. 갑작스러웠지만 전부터 언니가 호감을 가지고 있던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좋았다.

결국 슈퍼스타K 시즌3 출연하기 전부터 했던 거리공연을 다 봤다. 그러다가 몇몇 사람들이 이 밴드를 계기로 기타를 시작했다는 이야기에, 곡마다 올린 기타코드를 종종 봤다. 사람들이 너도나도 기타를 시작했기에 나도 기타를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집에는 기타가 없고, 살수도 없어서 코드나 익힐 생각으로 기타 넥을 그렸다. 박스를 잘라 플랫, 줄 사이 거리를 정확히 재서 넥만 진짜 기타와 똑같이 만들었다. 그리고는 생각 날 때마다 코드 연습을 하며 지냈다.

하지만 기타가 가장 친숙해서 관심이 갔을 뿐이었는지 시간이 갈수록 흥미를 잃었고, 대신 베이스에 눈이 갔다. 음향사고로 기타 소리가 나지 않을 때나 도입부로 혼자 연주 될 때만 들리던 베이스였지만 낮게 울리는 소리가 매력적이었다.

박스로 만든 기타는 한쪽으로 치워졌다. 나는 베이스를 검색하기 바빴다. 초등학교 때 피아노 학원을 그만둔 이후로 악기에 그 정도 열정을 보였던 것은 처음이었다. 이론도 찾아보고,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제작한 영상도 보고, 평소에 음악을 들을 때도 베이스 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했다.

알면 알수록 배우고 싶었다. 악기가 있었으면 독학을 했겠지만, 우리 집엔 베이스가 없었고, 나는 베이스 백까지 그럴 자신이 없었다. 악기를 사지 않고도 배울 곳이 없을까 찾아봤지만 기타와 달리 베이스를 배울 수 있는 곳은 거의 없었다.

그러다 친구들에게서 고등학교 소개 책자에 실린 하늘고등학교 프로그램, 1인 1예 1체 이야기를 들었다. 한 사람당 악기 하나씩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말을 듣고 혹시 여기서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입학 전부터 기대했었다.

원래 처음 편성된 프로그램 목록에는 베이스가 없었다. 그래서 체념하고 클래식 기타를 신청할 생각이었다. 기타를 먼저 배웠던 사람이 베이스를 배우면 좀 더 쉽다는 말 때문이었다. 그런데 프로그램 설명이 끝나고 나서 질문을 받을 때 남자 쪽에서 베이스 강좌를 열어달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선생님께서는 열리면 들을 사람 손 들어보라고 하셨는데, 너무 놀라고 당황해서 손도 들지 못하고 있었다. 남자 쪽에서만 한 손으로 쏜을 정도의 수가 나오자 선생님께서 사람이 이렇게 없으면 곤란하지만 생각은 해보겠다고 하셨다. 그 날 이후로 열렸으면 좋겠다고 버릇처럼 말하기도 했고 기도도 여러 번 드렸다. 그리고 얼마 후 베이스가 새로 개설되었다. 친구들이 기타를 살 때 나는 베이스를 고르며 1인 1예 1체 시작하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보는 것과 직접 해보는 것은 확실히 달랐다. 기타보다 줄도 훨씬 두껍고, 플랫 사이 거리도 엄청 넓어서 중간 중간 계속 쉬어야 했다. 손끝이 아프고 손이 저렸다. 수업이 끝나고 난 후부터 살짝만 눌러도 아프다가 며칠 안 되어 굳은살이 생겼고, 2시간 만에 생긴 굳은살은 1주일 정도 갔다. 나 빼고 다 남자인데다 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 손은 손대로 아프면서 소리는 소리대로 나지 않았다. 그런데도 내가 매주 1인 1예 1체 시간만 기다린 이유는 내가 그토록 베이스를 원했고, 선생님께서 본인 손도 작다며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신 것이 위로가 됐고, 아파도 굳은살이 생긴 것을 보면 뿌듯했기 때문이었다.

베이스를 배운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전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들리지 않던 베이스 소리가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했다. 음악을 들을 때면 습관처럼 베이스 음을 찾았고, 베이스 라인을 찾기까지의 시간도 점점 줄어들었다. 손가락에 힘이 없어 췌소리만 나던 것이 음이 되고, 플랫 위에서 덜덜 떨던 손가락으로 슬라이딩까지 할 수 있게 됐다. 1년을 거의 채웠을 때쯤 듣기만 하던 곡을 미숙하게나마 끝까지 연주할 수 있었다.

나는 이번에도 베이스를 선택했고, 다음 학기에 1예와 1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도 베이스를 할 것이다. 베이스를 하는 2시간은 한 주 동안 써버렸던 활력을 채우고도 남았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얼마 후 1인 1예 1체가 있는 날을 생각하거나, 그 교실 옆으로 지나가기만 해도 행복했다. 그 덕분에 기뻐던 날이 많아서, 1인 1예 1체는 학교 프로그램 중 가장 애착이 가고, 고마운 프로그램이다.

1인 1예 1체 활동 수기 우수작 2

● ● ●

박 소 영 1학년 5반

나에 대한 믿음을 키우다

처음부터 1체 수업을 수영으로 들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다. 아무래도 참여하는 여자 동급생도 적을 것 같았고, 수영을 한다면 당연한 일이긴 하지만 수영복을 입고 해야 한다는 것이 나에게는 부담이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운동이 수영이기도 했고, 아예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운동보다는 내가 잘하는 운동을 발전시키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르게 되었다.

신청을 하고 첫 번째 수업을 들으려고 나갈 때, 인원을 보니 2학년 남자 선배들이 대부분이고 내 예상대로 여자 동급생은 나를 포함해서 3명밖에 되지 않았다. 처음에는 옷을 입고 나가는 것조차 어색해서 주눅거리며 나갔었다. 수영을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선생님께 배우고 나는 수영을 어느 정도 배워놓은 상태였기에 자율적으로 연습하며 자세 교정을 받았다. 그렇게 어색하지만 수영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것은 보물찾기의 시작이었다.

초반에는 자유형을 주로 연습했다. 그리고 이 때 가장 고민했던 부분은 스피드였다. 자유형을 하는 이유가 빠르게 나아가기 위함인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나의 스피드가 그다지 빠르지 않았다. 하지만 스피드는 빠르게 향상되지 않았다. 무작정 스피드를 빠르게 하자니 호흡을 따라주지 않았고 호흡에 맞춰서 하자니 스피드가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았다. 따라서 내가 선택한 방법은 호흡이 따라갈 수 있는 보통 빠르기로 100m나 200m 정도로 길게 연습하여 폐활량을 키우고 그 후에 스피드를 키우는 방법이었다. 이 연습 방법은 생각보다 매우 효과적이었다. 폐활량을 키우고 나니 큰 호흡이 필요한 접영을 할 때에도 힘이 덜 들었고 자세도 더 바르게 나왔다. 또한 내가 원하던 목표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증대된 폐활량을 가지고 단시간 내에 최대의 에너지를 내니 속도가 전보다 훨씬 빨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따라서 마지막 시간에 릴레이식으로 한 수영 시합에서 내가 마지막 주자로 달리게 되었는데 주자를 교차할 때는 조금 늦었지만 곧 따라잡아 우리 팀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다. 선생님께서도 스피드가 좋아지면서 칭찬해주실 만큼 향상되었고 단지 선생님의 칭찬뿐만이 아니라 내가 세운 목표를 이루었다는 것에 뿌듯함이 밀려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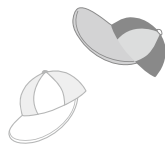
자유형을 내가 원하는 만큼의 빠르기로 할 수 있게 되니, 나머지 영법도 더 확실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머지 영법도 알고 있던 상태였지만 역시 자세에서 흐트러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연습하면서 지속적으로 교정을 받았다. 접영은 마지막에 발을 차는 부분에서 계속 발을 떨어트리곤 차서 붙이고 차는 연습을 하였고, 배영은 자세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왔다 갔다 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수영장 천장의 한 부분에 시선을 고정하고 일직선으로 나아가는 연습을 하였다. 내 몸에 배인 습관을 한 번에 고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굳이 동작을 바꿔야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들기도 하고 처음에는 내가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것이 오히려 빠르고 편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처음에 정확하게 하기로 마음먹은 이상 포기할 수 없었다. 그래서 끈기를 가지고 연습하니 결국 다른 사람들 앞에서 시범을 보일 정도로 동작이 정확해졌고, 나는 해낼 수 있었다.

이렇게 또 한 번 목표를 이루고 나니 다른 목표가 생겼다. 모든 영법을 연습하면서 반 바퀴만 하고 쉬는 것이 아니라 연결연결해서 하고 싶었고, ‘턴’을 하는 방법도 터득하고 싶어졌다. 턴을 하는 것은 예전에 배울 때에도 가장 두려운 부분이었다. 도는 타이밍과 장소를 잘 잡아야 정확하게 벽을 차고 반대편으로 쪽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

만 내가 몇 번 원래 돌아야 하는 곳보다 더 먼 곳에서 돈 적이 있기 때문에 벽이 아닌 다른 곳에 헛발질을 한 적이 있었다. 이때마다 물을 많이 먹었고 그 기억 때문인지 턴을 하는 것에 대해 공포감이 생겼었다. 따라서 연습을 하려고 해도 막상 겁이 나고 몸이 굳어져 제대로 돌지 못하였다. 하지만 선생님이 자신을 믿고 끝까지 나간 다음에 돌아오는 말씀을 해주시고 옆에서 계속 지켜봐 주셨기 때문에 돌기 전에 두려움이 밀려와도 두 눈 꼭 감고 턴하는 연습을 하였다. 처음엔 주춤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점차 동작이 자연스러워지더니 나중에는 연결해서 할 수 있게 되었다. 결국 완성을 하게 되었을 때는 동작을 성공했다는 기쁨도 있었지만 내가 나를 믿고 두려움을 이겨냈다는 기쁨이 더 컸다. 이렇듯 수영을 하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하나씩 해나가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고 수영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목표를 세우고 꾸준한 연습을 한다면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나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

마지막으로 내가 수영을 하면서 가장 큰 매력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수영을 하게 되면 물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외부와의 소통이 일체 단절된다. 그러면서 수영은 오로지 나와 나의 싸움이 되는 것이다. 아무리 밖에서 힘을 내라고 소리쳐도 들리지 않기에 내가 마음을 단단히 먹지 않으면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결국 무산이 되어버리고 만다. 하지만 내가 굳은 의지를 가지고 꾸준히 연습하고 이를 이루면 그것을 해내기 어려웠던 만큼 성취했다는 것에서 오는 희열 역시 크다. 그리고 그 희열은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것을 이루는 의지를 기르는 데도 큰 도움이 되었다.

수영을 하면서 얻은 것이 많다. 이제는 수영복을 입고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자신감도 생겼으며, 힘들어도 끝까지 해내는 끈기도 강해졌다. 하지만 무엇보다 내가 얻은 가장 큰 보물은 '나에 대한 믿음'이지 않을까.



역대 체육대회 총정리

● ● ●

임성준

이젠 ‘고서(古書)’에서나 찾아 볼 수 있는 제1회 하늘 체육대회

김원석 선생님께서는 당시 2011학년도 제1회 하늘고등학교 체육대회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셨다. ‘하늘고등학교의 체육대회는 마치 하우스 감귤의 맛에서는 나오지 않는 새콤함을 갖춘 노지의 감귤과 같은 체육대회이다. 낙오되는 1인 없이 다함께 참여하는 하늘고 학생들의 모습에서 경쟁의 치열함보다 화합의 훈훈함을 느낄 수 있었다.’

3년 전의 체육대회인 만큼 당시의 현장감과 경기 내용을 알고 있는 이는 많지 않지만 하늘고등학교 2011학년도 제1회 체육대회를 기록한 ‘고서’에서는 2회, 3회 체육대회에서는 찾아 볼 수 없었던 특색 종목들을 찾아 볼 수 있었다. ‘8자 마라톤’, ‘긴 줄 4도약’, ‘포크 댄스’, ‘전교생 닭싸움’ 등등. 위와 같은 경기는 하늘고등학교 체육대회만의 특색으로 자리매김 할 것을 시도하였다가 호응에 실패하여 2회 때부터는 그대로 자취를 감춘





것으로 추정된다.

2회 때부터 주춤하더니 3회부터 완전히 자취를 감춘 ‘미니 올림픽’도 꽤나 크게 활성화되어 있었다. 볼링, 양궁, 양말 멀리 던지기, 물풍선 던지기, 페이스 페인팅의 소규모 미니 경기에서 상품을 타기 위하여 학생들이 각축전을 벌였다고 한다.

오랜 옛날, 하늘고 1기 선배님들의 체육대회 응원복은 외부 위험요소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기능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의식 또한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에 ‘하늘대장 김민수’라는 깨알 같은 멘트를 박아 담임선생님에 대한 샴머니즘(?) 정신을 나타낸 1·1반의 응원복이 유독 돋보였다고 한다.

1회 체육대회의 응원전은 2회와 3회 체육대회의 응원전이 운동장 한가운데서 진행된 것과 다르게 체육관에서 진행되었다. 특히 1기 박수진 선배를 중심으로 하여 야구 치어리더 응원을 진행한 1·8반의 응원전은 각종 학교 홍보 책자에 그 사진이 실려 있는 등 3년이 지난 지금도 전설로 남아 있다.

1회 체육대회 때는 저녁식사로 삼겹살 파티를 진행한 후에 모두 잔디 운동장에 드러누워 불꽃놀이를 보았다고 한다. 첫 개교 후에 학교의 상황이 다소 안정되지 못한 상황에서도 학교 행사에 열정을 가지고 참가했던 1기 선배님들의 그때 그 정신이 지금 하늘고의 명품 체육대회를 있게 한 원동력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정말 잘 놀았던 제2회 하늘 체육대회

2회 체육대회 때부터는 체육대회가 운동장에서 이루어졌고 체육대회의 시작을 알



리는 각 반의 입장식이 거행되었다. ‘이 여자 반은 전체가 20명인데 반 전체 몸무게가 1.8톤이에요.’, ‘이 반에는 하늘고에서 제일 새까만 조성철이 있어요.’ 입장하는 각반의 특징과 주요 인물들에 대하여 재치 있는 입담을 늘어놓아 주신 당시 학생부장 정주원 선생님 덕분에 체육대회를 유쾌하게 시작할 수 있었다.

2기 신입생들이 들어오면서 학생 수가 많아짐에 따라 시간상의 문제로 체육대회의 종목들은 간소화되었다. 남자부의 축구와 농구 그리고 여자부의 발야구와 피구 그리고 모두가 참여한 단체 줄넘기, 줄다리기, 계주 총 7가지 종목이 진행되었다.

2회 체육대회에서 가장 눈길을 받은 응원복은 단연 2·3반의 일명 ‘보일러 수리공’ 응원복이었다. 주황색 멜빵바지인 보일러 수리공 응원복은 보는 사람도 민망하게, 입는 사람도 민망하게 만들어 버렸다. 1·6반의 ‘동물 잠옷 응원복’ 역시 개성과 독특함의 끝을 내달렸다.

2회 체육대회의 백미는 역시 응원전이였다. 2기 신입생들이 합류하면서 1회 때보다 더 파란을 불러 일으켰는데 1학년과 2학년 모든 반에서 감추었던 끼를 모두 드러내 주었다. 특히 모두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던 ‘에반게리온 댄스’를 신용섭 학생을 중심으로 성공리에 마친 1·2반의 응원전은 하늘고 역사상 가장 혁명적이었던 응원전으로 남아 있다.

모든 일정이 종료되고 학생들은 삼겹살 파티 후에 운동장으로 모두 모였다. 학생들은 동그렇게 원을 둘러앉아 기타를 치고 폭죽을 터트리며 체육대회의 불타는 밤을 만끽했다. 밤하늘을 수놓은 폭죽놀이도 보았다. 잠깐의 댄스파티 후에 모두 기숙사로 돌아가 체육대회의 여운을 느꼈다. 두 배 늘어난 학생 수만큼이나 두 배 더 알찼던 2회 체육대회의 밤은 그렇게 지나갔다.

고품격! 2013학년도 체육대회

비교적 선선했던 가을에 진행되었던 1, 2회 체육대회와 달리 3회 체육대회는 고3 선배님들의 대입 시험 준비를 위하여 무더운 여름날 진행되었다.

각 반 입장식을 거행하고 교장선생님의 축사와 전교회장의 선서 낭독 후 간단한 체조를 하고 본격적으로 '제 3회 하늘고등학교 체육대회'의 막이 올랐다. 긴장된 모습을 한 채 반의 단합 구호를 외치는 선수들에게서 진지한 승리의 정신과 상금을 향한 집착으로 무장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3회 체육대회의 경기 구성은 2회 체육대회와 동일했다. 1,2학년 남학생들의 축구, 농구 경기와 여학생들의 발야구와 피구 경기 그리고 모두가 참여한 단체 줄넘기, 줄다리기, 계주가 있었다. 학생들은 자신의 역량에 맞추어 누구보다 치열하게, 누구보다 재미있게 경기에 참여하였고 질서 또한 잘 지켜준 덕분에 큰 사고 없이 대회가 진행되었다.

응원전은 해가 거듭할수록 진화하였다. 백 덤블링, 절권도, 사탄 코스프레, 선생님들의 애교 넘치는 댄스까지.... 구성은 물론 소품마저 화려해진 2학년과 1학년의 응원전은 매 순간마다 보는 이들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냈다. 특히 김지원 학생을 중심으로 하여 댄스곡 '추격자, 땡, 난리나'를 메들리로 춘 1-5반의 응원전은 '완벽함'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모든 이들의 찬사와 박수를 받았고 장동욱 학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2-5반의 '빨래 주머니 응원'은 응원에 빨래 주머니를 이용한다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 응원계의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사건'이었다.

점심시간에는 그 날 사설 모의고사를 보신 1기 선배님들의 삼겹살 파티 후에 2기, 3기의 삼겹살 파티가 진행되었다. 파티와 함께 한 밴드부 '루미난트'의 즉석 길거리 공연은 더위에 지쳐버린 학생들의 마음을 다시 불타도록 부추겼다.

3회 체육대회는 인천하늘고등학교의 체육대회의 격을 높이는 자리였다. 더 치열해진 경기 모습들과 더 화려해진 응원전. 이전 체육대회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모두가 참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해가 거듭될수록 가열되는 열정에 2014학년도 3기와 4기의 '제4회 체육대회'의 모습이 벌써부터 기대된다.



학생활동:

농촌 봉사 활동



배승욱 임성준

인천하늘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2013년 10월 23~25일 농촌 체험 활동을 다녀왔다. 학생들은 각 반별로 선비마을, 용설호 문화마을, 미리내 마을, 신기 블루베리 체험 마을, 흰돌리 마을, 꽃뫼마을, 인척골 마을, 풍산개 마을 중 한 마을을 선택해서 갔으며, 각 마을에서 떡 만들기, 메기 잡기, 농사일 거들어 드리기 등 다양한 농촌 체험 활동 및 봉사 활동을 하였다. 학생들은 이번 농촌 체험 활동에서 직접 농사일을 체험해 봄으로써 우리에게 밥상이 차려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고가 있었는지 몸소 느껴볼 수 있었으며 시끄러운 도시를 벗어나 시골의 자연 속에서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한다. 그 즐거웠던 시간들을 짧게나마 정리해보았다.

꽃뫼마을(1반)



‘일이 적다.’라는 점이 학생들에게 매력 포인트. 적은 일을 손쉽게 끝내고 진정한 자연의 경관과 친구들과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고 한다. 특히 맨손으로 메기 잡기와 연잎떡 만들기, 삼색묵 쑤기와 같

은 특색 있는 체험 활동은 다른 농촌 마을과 꽃뫼 마을을 차별화 시킨다. 건강하고 풍요로운 농촌에서의 3일이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농촌 클래스를 원하는 내년 1학년 학생들에게 강력 추천한다고 한다.

미리내 마을(2반)

천주교의 역사와 숨결이 살아 숨 쉬는 마을이다. 천연 라벤더 오일을 넣은 젤리초와 소프트 식물을 빵아 만든 천연 비누 만들기는 여학생들의 소녀 감성에 어울리는 좋은 체험 소재였다. 물론 고구마를 캐는 즐거운 경험도 하였다.



선비 마을(3반)

마을에 우리가 평상시 흔히 볼 수 없는 한옥이 가득하다. 훈장님과 의예 교육을 통하여 선비의 몸과 정신을 비로소 느낄 수 있었으며 풍등 날리기, 국궁 체험 등 다른 마을에서 할 수 없는 한국의 전통 문화 체험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



흰돌리 마을(4반)

밥이 맛있는 마을. 한 학생은 할머니께서 구워주신 조선 김의 마력에 폭 빠졌다고 한다. 바비큐 파티를 하면서 고기를 배터지게 먹을 수 있었다는 최대 장점. 마을 산의 정상에 있는 흰돌 바위에서 1분 동안 야호 외치기 체험을 통해 2·4반 학생들은 그 순간 마을 사람들과 동화될 수 있었다고 한다.



용설호 마을(5반)

회관 앞의 거대한 호수가 장관이다. 또 마을을 둘레로 만들어진 자전거 도로는 학생들에게 잊을 수 없는 자연의 경관을 보여주었다. 2·5반은 시골 출신인 이현영 선생님의 칼 같은 지도 아래 고구마 캐기, 고추 지지대 뽑기 등 중노동을 하루 종일 했다고 한다. 이를 통하여 진정한 땀과 굳은살의 의미와 농촌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웠다고 한다.



신기 마을(6반)



국선도를 통한 바른 자세로의 교정 활동은 신기 마을의 필수 코스이다. 농장에서 재배되는 블루베리가 제철이 아니어서 직접 수확하지는 못했지만 블루베리 칼국수와 잼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블루베리 맛의 지평을 열어주었다. 봉사 활동 중간 중간에 나온 새참이 진짜 맛있었으며, 동네 아저씨들과 함께한 배 과수원 서리는 잊지 못할 추억이라고 한다.

풍산개 마을(7반)

한국의 전통견인 풍산개의 종속을 이어가고 있는 마을이다. 개썰매 등 풍산개와 함께 하는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 특이한 소재를 가지고 있는 농촌 마을로 테마가 있는 농촌의 풍경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강력 추천한다고 한다. 7반의 활동 내용은 10월 25일에 방영된 KBS2 '6시 내고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처골 마을(8반)



와인 족욕, 마차 트래킹과 같은 고품격 농촌 체험과 토란, 고추, 감 수확 등 토속적 농촌 체험을 고루고루 하였다. 시간에 여유가 생기자 즉흥적으로 원래 계획에 없었던 더 다양한 체험을 하게 해주시는 등 따뜻한 인심이 가득한 마을이라 한다. 2·8반의 담임 이현주 선생님의 기운을 모아서 일을 순식간에 해치우고 놀 수 있었다고 한다.

즐거웠던 2학년들의 농활을 간단히 정리해 보았다. 이 활동은 지역 신문사와 방송에서도 취재를 나와 더욱 의미 있게 보낸 활동이었던 것 같다. TV 출연 장면으로 마지막을 장식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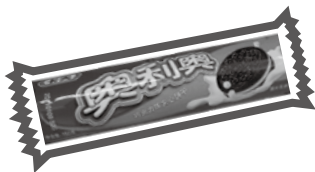


학생활동:

수학여행기

이재하 1학년 3반

얼마 전 수학여행으로 중국 북경에 다녀왔다. 사실 나는 일본 오사카를 선택했지만 아쉽게 일정이 변경되는 바람에 중국으로 가게 되었다. 중국에 처음 갔을 때는 누런 하늘, 냄새나는 공항 때문에 별로 첫인상이 좋지 않았다. 하지만 친구들과 관광지를 돌아다니면서 우리나라에 비해 규모가 굉장히 큰 중국의 성과 거리에 감탄했다. 이번 수학여행이 내 첫 번째 해외여행이라 그런지 외래어를 한자어로 표기한 제품들이 눈에 띄었다.



가장 먼저 소개할 것은 호텔의 매점이나 왕푸징 거리에서 쉽게 살 수 있었던 코카콜라다. 중국의 코카콜라는 영어 Coca Cola를 可(가)口(구)可(가)樂(락)으로 바꿔서 사



용하고 있었다. 입을 때는 ‘커커우커리’로 읽는다. 언뜻 들으면 코카콜라 같기도 하고 ‘입안이 즐겁다’ 정도의 뜻이 있어서 신기하다. 코카콜라의 음과 의미를 합쳐서 단어를 만들 기 어려웠을 것 같다. 전체적인 모양은 똑같은데 코카콜라만의 개성이나 세련된 느낌이 사라진 것 같아서 아쉬웠다. 맛도 우리나라의 코카콜라보다 탄산이 좀 빠진 맛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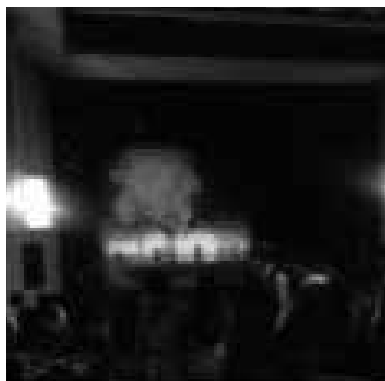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초코파이도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情(정)을 내세워 광고하는 오리 온이 중국에서는 仁(인)을 붙여 팔고 있었다. 나라마다 중요시하는 가치관이 달라서 그런가 보다. 역시 공자와 맹자의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름은 好(호)麗(성)友(우)派(파)로 쓰고 ‘하오리요우 파이’라고 읽는다.

또 하나는 우유에 찍어 먹으라는 광고로 유명한 ‘오레오’다.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걸 모양은 똑같다. 하지만 奧(오묘하다)利(리)奧로 쓰고 ‘아오 리 아오’로 읽는다. 맛은 우리나라 과자랑 별다른 것이 없다. 우리나라에서 오레오 광고할 때 아빠와 아들이 나오는 것처럼 중국도 그러는지 궁금하다.



펩시는 젊은 고객들이 많이 찾는 식품 기업이다. 펩시는 한국에서도 여러 아이들, 화려한 광고를 TV에 내보내고 있다.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솔직히 한국 아이들에 비하면 좀 부족해 보이지만 딱 보기에 젊고 신선해 보인다. 위의 광고에서 파란 배경을 사용해서 펩시콜라의 시원함을 강조하고 광고 모델들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펩시를 보면 영어로 PEPSI라고 쓰여 있어서 중국에서도 영어를 쓰는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중국에서 펩시콜라는 百事可乐(백사가락)으로 쓰고 ‘바이쓰크러러’로 읽는다. 우리나라 말처럼 원음과 거의 똑같이 발음할 수는 없어도 한자로 이처럼 비슷하게 표현해 내었다는 것이 신기하다. 코카콜라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펩시콜라와는 맛이 약간 달랐다. 아마도 짜고 강렬한 맛을 좋아하는 중국인들의 입맛에 맞추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다.



버스를 타고 가던 중에 가이드 아저씨가 까르푸 이야기를 해주셨다. 까르푸는 우리나라에서 이마트, 홈플러스에 밀려 철수한 상황이지만 중국에서는 굉장히 인기 있는 마트라고 한다. ‘家乐福’이라 쓰고 ‘지아러푸’라고 읽는다.

수학여행에서 우리는 텐진 조윙기 때문에 첫날에 북경 서커스를 관람하러 갔다. 북경 서커스는 서커스와 다양한 기술이 한데 어우러진 중국 특유의 예능이다. 서커스가 유명한 나라 몇 개국 중 최고가 북한이고, 그 다음이 러시아, 중국이라고 할 정도로 중국의 서커스는 세계적인 수준이다.

가장 처음에는, 척 보기에도 7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아이들과 근육질의 어른들이 함께 공연을 펼친다. 그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이미 서커스에 입단하기로 되어 있었다고 한다. 서너 살 때부터 서커스 연습을 했다고 하는데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충분히 생각해 보고 관련된 교육을 받기도 전에 부모나 주변 어른들에 의해서 강제로 서커스를 하는 아이들이 무척 불쌍했다.

서커스의 프로그램은 꽤 다양했다. 우선 한 가지를 소개하자면, 마치 연체동물처럼 몸을 움직이는 쇼가 있다. 관절을 이리저리 꺾어서 전갈처럼 가슴을 땅에 대고 허리를 위로 올려서 발을 눈앞에 놓기도 했다. 그러고는 무릎을 꿇고 허리를 뒤로 땅까지 완벽하게 닿게 하면서 유연함을 뽐냈다. 관객들의 환호성에 신이 났는지 몸을 과하게 움직여서 솔직히 좀 징그러운 면도 있었다. 또 하나는 의자에 누워서 발로 우산을 잡아 저글링을 하는 공연이다. 우리가 쓰는 무겁고 큰 우산이 아니라 대나무 막대기와 얇은 천으로 되어 있어 매우 가벼워 보이는 우산이었다. 우산 하나를 다른 우산 위에 올려서 한 발 위에 두 개, 다른 발에 우산 한 개를 합쳐서 무려 우산을 세 개나 가지고 저글링을 했다. 우산 저글링이 끝나고 어떤 남자가 들어오더니 공을 가지고 탭댄스를 추면서 저글링을 했다. 누군가가 무대 옆에서 공을 던져 주면 남자는 그것을 받아서 저글링을 하고 한꺼번에 바닥에 튀기기도 했다. 공 6개를 가지고 땅에 튀길 때는 각각의 공이 지나가는 궤도가 완벽히 일치해서 마치 사람이 아닌 기계가 하는 공연 같았다. 계단을 오르락내리락하며 공을 튀길

때는 공연장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환호성을 질렀다. 자유자재로 수많은 공을 다루는 그 남자를 보면서 탄성이 절로 나왔다.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환호하자 그 남자도 자극을 받아 공을 계속해서 주문했다. 7개에서 갑자기 10개로 늘려서 땅에 튀기기 시작했는데 의욕이 너무 앞섰는지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마지막 쇼에서는 5명의 여자들이 자전거를 타고 무대를 빙빙 돌다가 한 명이 다른 사람의 자전거에 올라가 자세를 취하면서 시작되었다. 피날레 부분에서는 한 사람이 운전하는 자전거에 무려 5명씩이나 올라가 에버랜드에서나 볼 법한 자세를 선보였다. 자전거의 속도가 다소 느려지긴 했지만 뛰어난 균형 감각에 감탄이 절로 나왔다. 서커스가 끝나자 모두 나와서 인사를 했다. 음악과 서커스가 한데 어우러진 멋진 공연이었다.

우리는 중국의 천단공원에 가기도 했다. 공원이라기엔 규모가 270제곱미터로 엄청나게 크다. 영락제가 스스로를 위해 만든 공원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왕족과 몇몇 귀족들만 쓸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 있다. 공원에는 체조를 하는 사람, 악기 연주하는 사람이 많았다. 천단공원 내부에 들어서면 거대한 건물이 있다. 이름은 ‘기년전’(지니엔텐, 幾年殿)인데 삼중 처마로 된 원형 궁전이고 높이는 38m나 되며 지름은 32.7m라고 한다. 중국 사람들은 이곳에서 오곡의 풍요를 빌었다. 제사 지내는 용도로 쓰기에는 너무 큰 것 같다.

지도에서 자금성을 가운데에 놓으면 남쪽에는 천단, 북쪽에는 지단, 동쪽에는 일단, 서쪽에는 월단이 있다. 순서대로 하늘, 땅, 해, 달에 제사를 비는 곳이었다고 한다. 3층의 푸른 지붕은 ‘유리기와’라고 한다. 이것은 하늘을 상징하는데, 명대에는 아래부터 자주색, 황색, 푸른색의 세 가지 색으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자면, 건물 중앙의 ‘용정주(룽징주, 龙井柱)’는 일 년 사계절을, 가운데 12개의 기둥은 12개월을, 바깥쪽의 12개 기둥은 12지신을, 내외 처마 기둥 24개는 24절기를 상징한다.

이곳에 오면 반드시 체험해 봐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회음벽(후이인비, 回音壁)’이다. 길이는 약 193m이고 한자 그대로 소리가 돌아오는 벽이다. 굉장히 길지만 아무리 멀리 있어도 벽 근처에서 말을 하면 반대편 친구가 내 목소리를 뚜렷하게 들을 수 있다. 우리가 내는 목소리가 담벼락을 따라서 주위로 퍼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약 200m 밖에서도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하니 천단공원에 가면 꼭 해봐야 하는 체험이다.

천단 공원에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다. 가이드가 깃발을 들고 외국인들을 안내하는데 공원 밖의 거리에는 중국인들만 많아서 천단공원에서 외국인을 보는 것도 하나의 관광이 될 수 있다. 특히 러시아 사람들은 꽤 친절한 편인지 지나가는 우리를 보고 인사를 했다. 우리도 “Yeah~”하고 환호하며 맞장구쳐줬다.

베이징 차오양취 주센차오제다오 다산즈에 있는 798거리는 면적이 약 60㎡ 정도 된다. 가이드 아저씨의 말을 빌리면, 이곳은 원래 국영 798 공장, 구소련의 지원을 받은 무



기 공장이 들어찬 공장 지대였다. 냉전이 끝나고 난 1950년대 말부터 무기 공장이 하나 둘 사라지고 그중 706, 707, 718, 751, 797, 798의 여섯 공장에 전자타운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얼마 동안은 여섯 구역이 모두 제 할 일을 하고 있었지만 현재 798은 예술가들이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 이들은 베이징과 그 인접 지역에서 몰려온 사람들인데 허름한 공장 터를 예술가만의 창의력을 발휘해 갤러리로 바꿔버렸다. 거리마다 다양한 조각들, 전시물, 그림, 벽화가 들어서 있어서 눈 돌릴 틈이 없다. 이 거리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대부분 모델 뽑치는 패션 감각을 가지고 있었다. 무료로 개방된 갤러리들도 많아서 비싼 입장료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버스에서 내려서 처음 길을 쫓 따라가 보면 어떤 상가 안을 지나가게 된다. 거기에는 일부터 부쉬 놓은 듯한 유리, 공장 도구들이 전시되어 있다. 좀 더 길을 따라가다 보면 옆에 무료 갤러리가 하나 있다. 그 안에는 호랑이를 주제로 한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크기가 매우 커서 벽 한 면을 꽉 채울 만한 것도 있다. 호랑이 특유의 위엄 있고 용맹한 모습은 생생하게 살려낸 작품들이었다. 역동적인 호랑이의 얼굴에 나도 모르게 움찔하며 카메라를 들이댔다.

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금세 허기가 진다. 거리의 중앙까지 들어가면 아기자기한 음식점들이 모여 있다. 우리는 한 서양 음식점에서 피자를 주문해 나눠먹었다. 1인 당 25



위안으로 들어서 50위안에 피자 한 판을 먹었다. 중국 음식은 한국 음식과 많이 달라서 먹기 거부하지만 이곳은 서양인들이 많이 찾아오는 편이라 그런지 햄버거, 핫도그, 피자 와 같은 패스트푸드를 파는 음식점이 즐비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주의할 점이 하나있다. 바로 바가지를 조심해야 하는데 내 친구는 15위안짜리 아이스크림을 45위안에 샀고 같은 곳에서 이영종 선생님도 바가지를 쓰셨다. 평소에는 카리스마 넘치는 이영종 선생님이지만 낯선 중국에서는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속아 주신 것 같다. 798거리에서 음식을 사 먹을 계획이라면 잔돈을 많이 가져가야 한다. 100위안같이 큰돈은 5위안, 10위안으로 작게 나눠서 가지고 다녀야 한다. 처음 말한 가격에 딱 맞춰서 줘야 나중에 판소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2011년 학술제

2011년 학술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다. 통일교육과 인간과 문화를 중심으로 과제연구를 발표하였고, Cielo와 루미난트의 콘서트 그리고 교수님들을 초청한 주제별 강연이 이어졌으며, 첫날에는 하늘 골든벨과 주제별 영상제가 펼쳐졌다. 처음 하는 학술제였지만 그 준비과정과 뜨거웠던 분위기만은 첫째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였다.

시간	27일(화)	28일(수)
9:00 - 10:00	학술제 개회식 [강당]	과제연구, 인간과 문화, 인간과 환경 발표 [강당]
10:00 - 11:30	과제연구, 통일교육 발표 [강당]	
11:30 - 12:30	점심식사 및 휴식	점심식사 및 휴식
12:30 - 14:00	갈라 콘서트 [강당] (오케스트라 동아리)	갈라 콘서트 [강당] (밴드 동아리)
14:00 - 15:30	주제별 강연	주제별 강연
15:30 - 16:30	하늘 골든벨 [강당] (국, 영, 수, 사, 과)	외부 대회 시상자 발표[강당]
17:00 - 18:00		학술제 폐회식 [강당]
18:00 - 19:00	저녁식사 및 휴식	저녁식사 및 휴식
19:00 - 21:00	주제별 영상제 [강당] (통일, 문화, 환경)	

주제별 강연	27일	28일
인문/사회	신홍철 경희대 교수 [호텔경영] - 103명 [강당]	김영순 인하대 교수 [문화인류] - 24명 [대회의실]
자연/공학	윤운규 EM환경센터 실장 [환경] - 57명 [대강의실]	박경미 홍익대 교수 [수학] - 44명 [특기교과실]
예술	노주영 성악가 [오페라 이해] - 33명 [대회의실]	이정범 영화감독 [영화] - 118명 [대강의실]

‘인간과 환경 발표’에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번	논제
1	에너지 효율성을 높인 주택과 건축물 연구
2	송도 11공구 갯벌의 바람직한 이용방향 연구
3	새만금 간척사업이 갯벌 생태에 미치는 영향
4	목축 시 발생하는 메테인의 연소생성물인 이산화탄소의 흡수방법 분석
5	제모제가 피부에 미치는 영향 탐구 및 조사
6	대체수자원으로서의 빗물의 가치와 활용 방안





2012년 학술제

2012년 학술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다. 과제 발표가 더욱 다채로워졌으며, 오케스트라와 밴드, 댄스팀과 연극부의 공연이 이어졌다. 그 외에도 영상제와 하늘장학퀴즈가 학술제를 뜨겁게 달구었다. 두 번째 해인 만큼 학생들의 연구 활동이 두드러져 교수님들의 초청 강의를 대신하는 많은 과제 발표가 이루어진 것이 특징이다.

	27일 (목)	28일 (금)
09:00 - 09:15	학술제 개회식	과제발표회 II • 한문 : 2개조 • 통일교육 : 3개조 • 인간과 문화 : 3개조 • 인간과 환경 : 3개조 • 외부대외 수상작 소개
09:15 - 13:00	과제발표회 I • R&E 논문 발표 : 13개조 • 학습동아리 발표회 : 5개 동아리 (미상, 문학별곡, DEF, 이번주의 수학, 움벨트)	
12:30 - 13:30	점심식사 및 휴식	폐회식 / 방학식 (12:00)
14:00 - 18:00	동아리 공연/재능한마당 • Cielo(오케스트라) (30 min) • 루미난트(밴드) (45 min) • 댄스팀 (15 min) • 연극부 (30 min) • 학년별 공연 10팀 (90 min)	
18:00 - 19:00	저녁식사 및 휴식	
19:00 - 20:00	영상/영화제 • 학생제작 영상물 시연회 • 학교홍보동영상 (35 min) • 수학 UCC (8 min) • 동아리 Q 제작물 (15 min)	
20:00 - 21:00	하늘장학퀴즈	
상시	우수 과제물 전시회 (본관 2, 3층 복도)	

학술 발표 주제와 발표자, 학술 전시물의 전시는 다음과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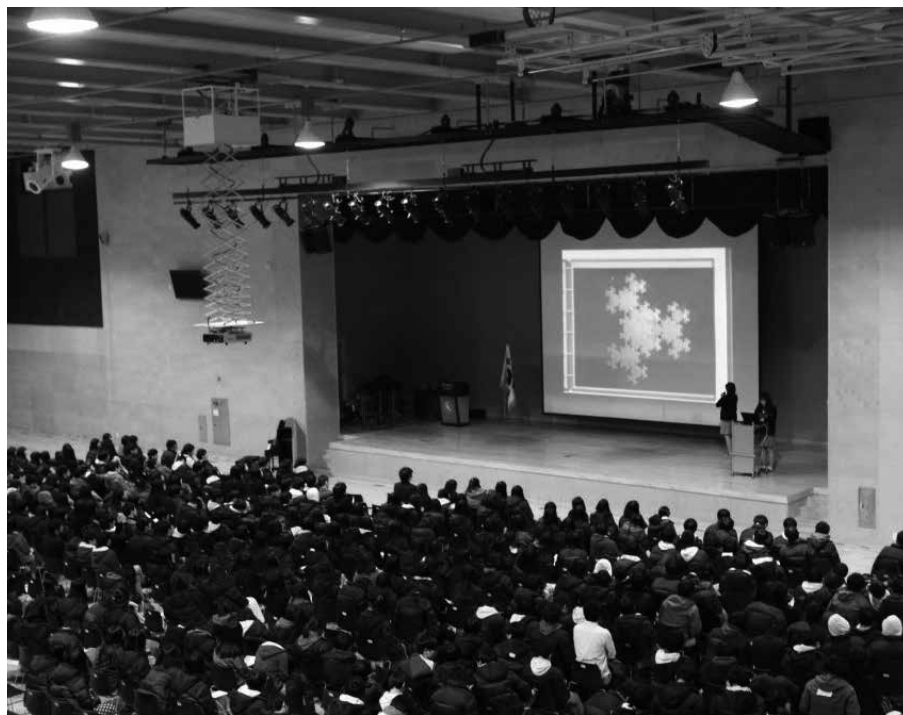
1. 학술 발표자(2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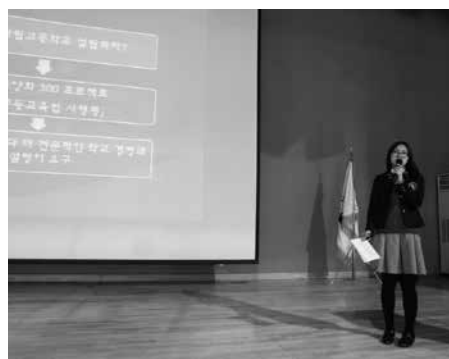
순번	영역	주제	구성원
1	인간과 고전사회	돈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고찰, 그 과거와 현재	2-1 박경주 2-1 박준경 2-1 이승호 2-2 김선헌 2-2 조계원 2-2 안주영
2	인간과 고전사회	고전을 읽는 자세, 선택적 수용 - 논어의 불완전성에 근거한 고전 읽기의 자세 고찰	2-2 최경빈 2-2 강성욱 2-2 김준휘 2-2 허우용 2-2 서주한 2-2 천재범
3	R&E 수학	프랙탈	2-5 이승윤 2-5 변승현 2-8 조정원 2-8 김영은 1-2 이동환
4	R&E 물리	RMT를 이용한 뉴욕 주식시장 분석	2-5 민재원 2-5 김현수 2-6 최민호 2-6 정인준 2-7 윤소연
5	R&E 역사	15~18세기 교류의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하여 공동체 인식 확산	2-3 이도희 2-4 이수정
6	R&E 사회	청소년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독도 문제와 앞으로의 미래 외교 방향 제시	2-4 이철민 2-4 천재범
7	R&E 사회	인천하늘고등학교의 통일교육 현황 및 실태	2-1 서주한
8	R&E 사회	하늘고등학교 학교 경영과 컨설팅	2-1 박경주 2-4 김혜진
9	R&E 사회	학생 관찰을 통한 심리학적 연구	2-2 안주영 2-2 최경빈
10	GMU 화학 ¹⁾	페룰린산의 항산화 효과를 이용한 항암치료	2-8 원수빈 2-8 정민경 2-8 조효연
11	GMU 화학	카테킨의 응용을 통해 의학적인 효과에 대한 기대 및 전망	2-5 장익환 2-5 조재웅 2-6 박정원
12	GMU 생물	울바키아 박테리아의 자손의 성비율	2-8 고인영 2-8 서정화 2-7 제미성
13	GMU 생물	울바키아 DNA 추출을 통한 존재 유무 확인	1-1 최강민 1-2 임성준

1) KAIST-GMU(조지메이슨대학)와 연계된 R&E를 여름방학 중 진행하였고 이와 관련된 발표를 진행함.

3. 학술 전시물 전시자

순번	영역	주제	구성원
1	환경과 녹색성장	생체지표 유전자를 이용한 해양생태계 위해 정도 평가	2-6 조재영
2	화학 전공연구	체외착제 혈액투석을 통한 킬레이트제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	2-6 박정원 이상현
3	화학 전공연구	당뇨병과 감미료, 그리고 당뇨치료제	1-6 전희진 1-7 박유빈
4	화학 전공연구	유해한 파라벤	1-7 양세영 1-8 최은지
5	화학 전공연구	MSG의 진실 : 정말 위험한가?	1-5 최예지 1-3 이충현
6	외부 대회	멀미약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2-8 고인영 서정화
7	외부 대회	모의 UN에 대한 소개 및 참가 권유	2-3 여지은
8	외부 대회	다시마 추출물을 이용한 의료용 연구제 개발	2-8 고인영 서정화 원수빈 정민경
9	외부 대회	음펨바 효과의 검증 및 전망에 대한 탐구	1-3 이규철 1-4 조성환
10	외부 대회	창의적 빛물이용 경진대회	2-5 김학준





하늘제 첫째 날_ 과제발표회 I

순번	영역	주제	발표자
1	통일교육	통일 후의 교육 통합 모색	손동찬 외 5명
2	통일교육	북한의 영화에 관하여	강재언 외 6명
3	통일교육	통일세에 관한 연구	공성호 외 7명
4	열정-사회	문화가 사람들의 열정 형성에 미치는 영향	박찬우 외 3명
5	열정-사회	열정 분야와 비열정 분야에 대한 학생들의 학업능력 비교	이재은, 이영주
6	열정-교육	학습에 대한 열정 -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업 방식 및 교내 프로그램의 분석과 새로운 수업 방식의 모색	오현지 외 2명
7	열정-심리	종교에 대한 열정의 결과로 나타나는 종교 체험에 대한 심리학적 분석	김민경 외 2명
8	열정-경제	경제적 성공을 향한 기업들의 열정과 그에 따른 노력, 그것의 부작용 그리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	노성준 외 5명
9	열정-경제	조세정책을 중심으로 한 고령화 사회의 복지국가에 대한 열정	김지호
10	열정-경제	사회적 현상과 과학적 현상에 대한 엔트로피를 이용한 분석과 그 대안	전기호 외 4명
11	열정-역사	과거부터 현재까지 역사적 사건들과 그 흐름에 미친 열정의 영향에 대한 고찰	이태현 외 3명
12	열정-생물	과거부터 현재까지 역사적 사건들과 그 흐름에 미친 열정의 영향에 대한 고찰	윤예담, 이채빈
13	열정-수학	Lactobacillus Acidophilus 의 생균체와 사균체의 Staphylococcus aureus에 대한 증식억제효과 연구를 통한 체내 환경의 질서 확립	문경덕 외 4명
14	KAIST	Simplex방법을 이용한 최적해 구하기 -선형계획법의 이해와 풀이	우상범 외 4명
15	KAIST	뉴런의 비선형적 특성과 연결주의적으로 바라본 인공 신경망에 대한 이해	소준석 외 2명
16	KAIST	생체적합성 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한 인공혈관 지지체 제작 후 기계적 성질 탐구 및 수술 없는 유통기한 혈관 형성 방법 구상	양혜성 외 5명
17	Tetenov	CRYSTALLOGRAPHIC PLANE GROUPS AND ORBIFOLDS	손채연 외 3명
18	Tetenov	REGULAR POLYTOPES AND REFLECTION GROUPS	고승규 외 4명



하늘제 첫째 날_오전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진화 중인 ‘하늘제’의 첫날이었다. 개회사와 공지사항 전달 후 점심시간 전까지는 학술 발표 시간이었다. 30일 오전 일정은 통일논문, R&E, KAIST R&E, Tetenov R&E 발표로 구성되어 있었다.

통일논문의 첫 번째 순서였던 ‘통일 후의 교육 통합 모색’은 통일 후 도래할 혼란한 사회를 보다 빨리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사뭇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남북한의 교육의 통합이 시급하다는 내용이었다. ‘북한의 영화에 관하여’에서는 북한의 영화 종류를 분류하고 북한의 영화 촬영소 등을 소개했는데, 소개한 영화에 관한 첨부자료 덕분에 재미있게 들었다. ‘통일세에 관한 연구’는 경제적으로 호황기였던 독일이 통일 후 경제 위기를 겪었던 것에 주목하여 우리나라도 통일에 대비하여 일정 수준의 통일세를 거두는 것이 통일 후 겪을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내용의 발표였다.

이후로는 R&E 발표가 이어졌다. ‘문화가 사람들의 열정 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문화에 따라서 사람들의 열정 수준과 그 분야가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 착안한 발표였다. 같은 ‘열정’을 주제로 한 ‘열정 분야와 비열정 분야에 대한 학생들의 학업능력 비교’는 소수 학생을 심도 있게 실험, 연구하여 열정을 지닌 분야에서 학업 능력이 월등하게 우수함을 한 눈에 들어오는 실험 과정 소개가 인상적이었다. ‘학습에 대한 열정’은 작년에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작한 영상과 함께 시작되었다. 교내 교육 프로그램을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학습할 수 있는 권리인 ‘학습권’에 초점을 두고 이를 최대한으로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수업을 제안했다. ‘종교에 대한 열정의 결과로 나타나는 종교 체험에 대한 심리학적 분석’은 불교, 기독교, 천주교, 도교 신자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종교적 체

험과 수면 현상에서의 공통점을 도출하여 이를 심리학적으로 분석한 발표였다.

‘경제적 성공을 향한 기업들의 열정과 그에 따른 노력, 그것의 부작용 그리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에서는 우선 경제적 성공을 위해 기업들이 보인 열정에 대한 예시를 들었다. 그리고 그 열정이 초래한 부작용을 짚어내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조세정책을 중심으로 한 고령화 사회의 복지국가에 대한 열정’은 대한민국에 도래하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 알맞은 복지를 시행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 사용될 조세 정책에 대한 발표였고, ‘사회적 현상과 과학적 현상에 대한 엔트로피를 이용한 분석과 그 대안’에서는 세계를 통합적 관점으로 바라보기 위해 현재 대두되고 있는 엔저현상과 지구 온난화를 엔트로피에 접목시켜 사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다루었다.

KAIST R&E는 총 세 팀이었었는데, 그중 ‘뉴런의 비선형적 특성과 연결주의적으로 바라본 인공 신경망에 대한 이해’는 카오스와 이를 활용한 MATLAB을 학습한 후 고안한 카오스에 기반을 둔 인공 신경망의 학습 방법과 예시 등을 연구한 결과물이었다. ‘생체적 합성 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한 인공혈관 지지체 제작 후 기계적 성질 탐구 및 수술 없는 유통기한 혈관 형성 방법 구상’을 연구한 학생들은 신생 혈관 형성 원리를 이용해 수술 부위에 바이패스식 혈관을 제작하는 방법을 구상했다.

KAIST R&E 발표 후에는 Tetenov R&E 발표가 이어졌다. ‘CRYSTALLOGRAPHIC PLANE GROUPS AND ORBIFOLDS’는 manifolds와 orbifolds, 평면에서의 group action, 그리고 불연속적인 군과 fundamental domains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crystallographic groups를 다양한 케이스로 분류하여 설명한 발표였다. ‘REGULAR POLYTOPES AND REFLECTION GROUPS’는 symmetry의 개념과 그것의 종류인 rotation과 reflection를 정사면체와 정육면체에 적용한 발표였는데, reflection으로 여러 수학적 체계를 만들고 이를 확장시켜 다른 체계와 연결하는 내용도 다루었다.

모든 발표가 끝난 후에는 오후 사회자들이 발표 내용에 관하여 퀴즈를 냈다. 과자를 주기도 했고, 평소엔 매점에서 사 먹지 않았던 아이스크림 교환권을 주기도 했다.



하늘제 첫째 날_ 점심(부스)

2013 하늘제에서 친구들을 재미있게 해준, 또는 다양한 체험으로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게 해준 활동이 있었다. 바로 30일 1시에서 2시 사이에 진행된 동아리, 반별 부스이다. 올해 동아리 부스는 움벨트의 ‘화분 만들기’, 생기발랄의 ‘수학 게임’ 등이, 반 친구들이 힘을 합쳐 운영한 부스로는 2학년 1반의 ‘일본 음식 오키톨미야끼 만들기’ 등이 있었다.

일본어의 강선이 선생님과 민경훈 외의 다수의 2학년 1반 친구들이 함께한 ‘오키톨미야끼 만들기’는 생소할 수 있는 일본문화(일본 마사지)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와 맛있는 음식으로 학생들을 사로잡았다.



2학년 8반의 부스에서는 직접 만든 토스트, 직접 구운 소시지, 직접 탄 코코아를 판매하였다. 수입은 전액 기부하는 데 쓰여 부스를 방문한 학생들의 마음까지도 따뜻하게 했다.



심리 동아리 Psycho의 부스 Psycholic에서는 심리와 관련된 신기한 체험들을 할 수 있었다. 타로 점, 집중력 테스트 등은 특유의 참신함과 독특함으로 학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1학년 8반의 ‘공짜 다방’ 부스에서는 클럽 분위기의 반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다과를 즐길 수 있었다. 오전에 학술제 발표를 듣는 동안 누적된 피로를 따뜻한 차와 함께 녹일 수 있었다.





어플 제작 동아리 'HAM'은 동아리 부원들이 직접 만든 게임을 해 볼 수 있는 부스를 만들었다. 마우스 피하기, 건물 부수기에서 직접 기획한 RPG까지 장르도 다양해 많은 학생들이 이 게임을 즐기러 이 부스를 찾았다. 부스활동 시간이 끝나갈 때쯤 화이트보드는 거듭되는 기록 경신으로 파랗게 되어 있었다.



수학 동아리 생기발랄에서는 카드에서 꺼낸 모든 수의 합이 소수일 때 종을 올리는 '소수 할리 갈리', 입체 도형 만들기, 칠교, 확률 등 여러 수학 관련 게임을 진행하며 수학에 흥미를 불러일으켰다.



물리 동아리 HTTP의 부스에서는 지레의 원리를 이용한 과자 투석기 만들기 등을 통해 '물리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었다.



환경 동아리 '움벨트'의 부스에서는 우유갑을 이용해 재활용 허브 화분을 만드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움벨트에서 직접 키운 지렁이도 볼 수 있었다.



생물 동아리 'Biofarm'에서는 달고나 만들기, 아광안경, 알긴산 구슬젤리 만들기 등 한 가지 분야에 국한되지 않은 다양한 과학 체험을 할 수 있었다.

하늘제 첫째 날_오후

점심시간 이후에는 오케스트라 공연, 김지은 선생님과 팝페라 가수 최의성 씨의 공연, 1예 1체 발표, 하늘스타 H가 진행되었다. 오케스트라 Cielo 단원들은 'B rossette'(하얀거탑 ost), 플롯 앙상블(여인의 향기 ost), 하이든의 '놀람 교향곡' 등과 편곡한 교가를 연주하여, 악기의 완벽한 화음과 조화로 학생들에게 아름다운 선율과 감동을 선사하였다. 또, 팝페라 가수 최의성 씨는 어려웠던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며 학생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고, '지금 이 순간'을 포함한 몇 곡을 들려주었다.

공연이 끝나고 1예 1체 발표가 시작되었다. 학생들은 하늘고등학교만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인 1인 1예 1체를 통해 1년 동안 갈고닦은 예술, 체육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이 날은 피아노, 가야금, 해금, 플루트, 농구, 절권도, 라크로스, 보컬 트레이닝 학생들이 1년 동안 배운 것을 전교생에게 보여주었다.

곧이어 '제1회 하늘스타 H'의 막이 올랐다. 학생들의 숨겨져 있던 노래와 춤 실력을 확인할 수 있었고, 심사 위원 선생님들의 재치 있는 심사평도 공연을 보는 재미를 더했다. 참가자와 학생들 모두가 즐거웠던 시간이었다. 하늘스타 H가 끝난 후, 투표를 통해 순위를 결정하고 3등까지 시상을 했다. 1등은 민경훈(2-1) 외 8명의 '샤방샤방' 팀이 차지했고, 2등은 김지원(1-5) 외 11명의 'X5'팀에게 돌아갔으며, 3등은 하현구(2-1) 외 11명의 'Real Hip-Hop'이었다.

이 중 1등 팀의 수상 소감을 들어보았다.

일단 이런 과분한 상을 저희에게 주셔서 감사드리고, 처음 9명이 모여서 호흡을 맞춰보게 되었을 때는 하나의 박자에 아홉 명이 어우러질 수 있을지에 대해 커다란 걱정이 있었지만 아홉 명 모두 최선을 다했기에 이런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 '우리'라는 이름으로 땀으로, 열정으로, 꿈으로 9명이 하나가 되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점수를 주신 선생님들과 학생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그 누구보다 샤방샤방했던 제 8명의 친구들과 이 상의 영광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하늘고 학생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2학년 1반 민경훈 외 8명 대표 민경훈〉

하늘제 첫째 날_저녁

저녁에는 식당에서 반 별로 바비큐(삼겹살)파티를 했다. 삼겹살 냄새와 왁자지껄한 소리로 가득 찬 식당에서는 몇 분 간격으로 곳곳에서 '파이팅'의 구호가 터져 나왔다. 저녁을 맛있게 먹은 학생들은 마지막에 있을 댄스파티를 위해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다시

체육관으로 모였다.

하늘제 첫째 날_ 밤

저녁 8시쯤 시작되었던 하늘고등학교의 자랑스러운 밴드부 ‘루미난트’의 공연은 가장 이범우 학생의 동아리 소개로 시작되었다. 하늘제를 위하여 1기, 2기, 3기 루미난트 회원들이 모두 모여 공연을 진행하였다. 포르투갈어로 ‘자체발광’이라는 뜻의 ‘루미난트’라는 이름에 걸맞은 멋진 공연이었다.

이문세의 ‘붉은 노을’로 경쾌한 시작을 알리고, 부활의 ‘사랑해서 사랑해서’라는 곡으로 1기 학생들의 단결력을 보여주었다. 다음 곡은 소녀시대의 ‘힘내’로 하늘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노래 제목처럼 긍정적인 힘을 실어주었다. 노브레인의 ‘넌 내게 반했어’에서는 2기 보컬인 김태운 학생의 귀여운 가사 실수가 있었지만 무대를 내려오는 등의 무대매너와 확성기 사용 등으로 분위기를 띄워 학생들의 전폭적인 호응을 받았다. 3기 보컬 김은별 학생의 허스키한 목소리와 어울렸던 2NE1의 ‘Ugly’는 학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영화 ‘미녀는 괴로워’ OST ‘마리아’는 1기 홍기은 학생과 최민석 학생이 뛰어난 가창력으로 소화했다. 마지막 곡은 레이디 가가의 ‘Poker Face’로, 학생들도 함께 후렴구를 따라 불렀다. 밴드부의 공연을 보며 하늘고등학교의 학생들이 함께 무대를 즐기고 호응하던 모습은 잊을 수 없는 멋진 추억이었다.

학술제를 위해 매일 연습하고, 긴장한 모습보다는 무대를 즐기는 모습을 보여준 ‘루



미난트' 부원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댄스부는 약 8분 동안 의자를 이용하기도 하며 유연하고 파워풀한 춤을 선보였다. Pussycat Dolls의 'Buttons', 현아의 'change', 이효리의 'Chitty Chitty Bang Bang', 피에스타의 '비스타', 그리고 다시 Willow의 'Fireball'. 선정된 5곡 모두 밀리터리룩의 의상과 어울렸다. 또한 조명도 댄스부를 위해 설치했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화려했다. 열띤 응원을 하던 학생들의 모습이 인상 깊었다. 공연이 끝나도 객석에서는 '앙코르' 소리가 계속됐다.

댄스파티는 체육관에서 9시부터 9시 반까지 총 30분가량 이루어졌다. 이는 2013년 하늘제의 변화된 모습 중 하나였다. 의자를 모두 양쪽으로 밀어내고 무대 조명만 남긴 채 불을 켰다. 내려졌던 막이 올라가면서 노래가 흐르고, 본격적인 댄스파티가 시작되었다. 학생들은 쌓였던 스트레스를 날리고 숨겨져 있던 춤 솜씨를 마음껏 뽐냈다. 프로그램이 진행됨에 따라 고조되었던 분위기는 댄스파티 때 정점을 찍었고, 학생들의 끼 분출도 정점을 찍었다. 친구들과 춤을 추며 즐기다가 마지막에 '빠빠빠'가 나오자 체육관에 있던 모든 학생들이 "점핑! 점핑!"이라는 가사에 맞춰 뛰어올랐다. 올라갔던 막이 내려가고, 불이 켜지자 상기된 얼굴에 땀이 흐르는 친구들이 여럿 보였다. 즐길 땀 즐기고 뒷정리도 깔끔하게 해내는 학생들의 모습은 "역시 하늘고"였다.

하늘제 둘째 날_ 과제발표회 II

순번	영역	주제	발표자
1	인간과 문화	남성의 치마착용 낯설게 보기	김도현 외 4명
2	인간과 문화	목욕 문화 낯설게 보기	박범석 외 4명
3	인간과 환경	바이오돔에 대한 고찰	성민석 외 5명
4	인간과 환경	LEED 인증 제도와 하늘고등학교가 LEED 인증을 받기 위해 개선해야 할 방향	이경호 외 5명
5	인간과 환경	창의적 환경정화와 새로운 생태계조성을 위한 연구	김혜미 외 5명
6	인간과 환경	Biosphere의 한계 요소 극복을 통한 보안 전략 모색	주지연 외 6명
7	인간과 우주	인천국제공항과 면세점의 상호 이득 및 바람직한 모습	박소영 외 7명
8	인간과 우주	스마트공항 개념에 대한 연구	김용호 외 6명
9	인간과 우주	지속 가능한 항공 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	김지희 외 6명

10	글로벌 경영과 항공물류	Globalized management strategy and tactics of Walmart	김민재 외 4명
11	글로벌 경영과 항공물류	'맥도날드'의 글로벌 성공 전략과 대한민국 기업들이 나아가야하는 방향	이은서 외 4명
12	항공엔지니어	헬리콥터에 대한 고찰	강재연 외 4명
13	학습동아리	날개의 받음각과 양력의 관계	정민석 외 7명
14	학습동아리	간도는 지금 안녕하십니까?	김민재 외 8명
15	인간과 고전사회	맹자를 통한 현대한국사회의 복지 문제에 대한 해결책 모색	이유나 외 2명
16	인간과 고전사회	'仁' 사랑의 기술	박진현 외 5명

하늘제 둘째 날_오전

31일 일정은 학술발표와 방학식뿐이었다. 인간과 문화, 인간과 환경, 인간과 우주, 글로벌경영과 항공물류, 항공엔지니어, 학습동아리, 인간과 고전사회의 7개의 영역이 그 날 발표로 배정되어 있었다.

학술제 둘째 날을 열었던 '남성의 치마 착용 낫설게 보기'는 굳이 낫설게 보지 않아도 이미 낫선 주제였고, 그래서 더 재미있었다. 남자가 치마를 입었던 기간은 바지를 입었던 기간보다 길지만, 현대에는 치마를 입는 남자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래서 발표자들은 설문조사로 치마를 입지 않는 이유를 알아보고, 그 결과를 근거로 미래의 치마 착용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목욕 문화 낫설게 보기'에서는 목욕 문화가 달라지는 요인으로 크게 3가지를 들었다. 제례, 청결과 미용, 치료, 유희와 같은 목욕의 목적은 문화적 요인으로, 기후에 따라 달라지는 목욕 문화는 환경적 요인으로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목욕 문화를 바꾸는 기술적 요인으로는 목욕시설이나 목욕 도구의 변화를 들었는데, 발표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폼클렌징을 목욕 도구 사진으로 활용했다고 밝혀 웃음을 자아냈다.

인간과 환경 교과과의 첫 번째 순서였던 '바이오 돔에 대한 고찰'은 CELSS의 개념을 설명, 과거에 진행되었던 실험과 실패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이후의 CELSS 설계 방향을 제시했다. 발표자들은 CELSS에 꼭 필요한 요소로 산소와 물, 중력을 들고 원형 우주정거장으로 중력이 생기게 하는 방법 중 한 가지를 소개했으며, 마지막으로는 순환에 중점을 두고 직접 설계한 CELSS를 보여주었다. 이어지는 발표 'LEED 인증 제도와 하늘고등학교가 LEED 인증을 받기 위해 개선해야 할 방향'에서 LEED는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이다. 친환경 건축물 인증 제도에는 LEED와 우리나라의 GBCC가 있는데, LEED의 기준이 가장 까다롭다고 한다. LEED를 취득한 건물의 사례를 보여주고, 하늘



고등학교가 인증을 위해 개선해야 할 점도 함께 다루었다.

‘창의적 환경정화와 새로운 생태계조성을 위한 연구’, ‘Biosphere의 한계 요소 극복을 통한 보안 전략 모색’에서는 창의적 가상 생태계 조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biosphere2의 실패 원인을 분석했으며 창의적 환경정화 방법과 그 한계를 지적했다. 또한 기권, 암권, 수권에서의 환경오염, biosphere 2의 구조를 설명하고 직접 구상한 biosphere2를 소개했다.

인간과 우주 발표는 세 팀이었다. 우선 ‘인천국제공항과 면세점의 상호 이득 및 바람직한 모습’에서 발표자들은 Luis vuitton의 신라 면세점 입주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다.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인 Airstar avenue의 마케팅 전략, 면세점의 목적과 설립 배경, 공항과의 상호 관계, 인천공항과 면세점의 입지 등을 다루었는데, 발표자들의 관심 분야에서 면세점의 성공 요인을 분석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스마트 공항의 개념에 대한 연구’에서는 Smart Airport의 전망을 시대 변화에 비추어 예측했다. 그다음 U-Airport의 개념과 해외 적용 사례를 소개하고 Smart Airport와 U-Airport의 개념을 비교한 후 Smart Airport의 서비스 개념도를 보여주었다. ‘지속 가능한 항공 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의 발표자들은 문제를 제기하고 연구목적을 밝힌 후 항공산업의 경제성에 대해 말했다. 항공산업으로 인한 기후변화와 소음 문제를 지적하며 지속 가능한 항공 경영을 위해 갖추어야 할 것에 대해 발표했다.

다음은 ‘글로벌 경영과 항공 물류’영역의 발표였다. ‘Globalized management strategy and tactics of Walmart’는 월마트의 성장과 경영철학에 대한 발표였다. 월마트는 낮은 가격 책정을 위해 edi system을 구축하고 지역 경제와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는 관계를 형성했으며 UPS를 통해 판매 정보를 모으고 틈새시장을 공략했다고 한다. 월마트로부터 우리나라 기업이 배워야 할 것으로 인간중심적 경영을 강조했다. 또 다른 팀의

주제는 ‘맥도날드의 글로벌 성공 전략과 대한민국 기업들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었다. 맥도날드의 성장 배경을 설명하고 기업정신, 위기와 극복 사례를 소개했다. 맥도날드의 글로벌화 전략으로는 나라별 메뉴, 현지화, 글로벌 캠페인이 있었는데 각 국가의 문화를 반영한 독특한 메뉴가 특히 돋보였다.

항공엔지니어 영역, ‘헬리콥터에 대한 고찰’에서는 헬리콥터의 개념과 구조, 이착륙 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직접 개발한 방식을 소개했다. 한 가지를 설명할 때마다 첨부한 영상을 재생했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학습동아리 활동 내용 발표 중 ‘날개의 받음각과 양력의 관계’는 발표자가 비행기 안에서 볼 때 날개가 기울어져 보였던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으로 흥미를 불러일으키면서 시작되었다. 날개의 받음각이 달라질수록 양력은 어떻게 변하는지 실험한 영상이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 ‘간도는 지금 안녕하십니까’에서는 첫 번째 발표자가 학습동아리 이름이 하늘 규장각인 이유와 그동안 다루었던 토론 주제를 알려주었다. 그 후 주제 중 한 가지인 간도 문제에 대한 토론 내용을 중국 측과 한국 측으로 나누어 각 국가가 근거로 하는 사료를 보여주며 발표했다. 결론에서는 ‘역사는 주관적이다. 역사를 폭넓은 관점에서 바라보자.’는 메시지를 남겼는데, 결론 발표 직전에 한 발표자가 했던 ‘결론은 제가 하겠습니다. 느낌 아니까’라는 말이 아직까지도 떠오른다.

1학년 학생들의 발표가 끝나고, 2학년 학생들이 준비한 ‘인간과 고전사회’ 발표가 계속되었다. ‘맹자를 통한 현대한국사회의 복지 문제에 대한 해결책 모색’ 발표자들은 우선 최근의 대자보 열풍을 비롯한 몇 가지 사건을 엮어 그 사건의 공통점을 찾았다. 그 후 맹자는 당시 문제 해결을 위해 왕도정치를 주장했음을 언급하고 맹자의 사상을 현대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용했다. 또한 맹자의 사상과 맞는 외국의 복지사례도 소개했다.

‘仁, 사랑의 기술’ 발표자들은 삶에서의 사랑 중 5가지, 효, 업, 정치, 우정, 이성간의 사랑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논어의 구절을 바탕으로 해결했는데, 그중 몇 가지 사례를 사연으로 만들어 ‘보이는 라디오’의 형식을 빌려 발표했다. ‘봄D, 숨D의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프로그램에서 사연을 소개하고 그 사연에 고전을 인용해 조언을 해준다는 설정이었다. 사연의 내용과 연기력, 참신함이 돋보였다.

이들에 걸쳐 진행된 학술발표는 학생들이 오랜 기간 연구해 얻은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지식을 얻거나, 알고 있었던 지식을 더 깊고 넓게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연구 방법, 과정에서 발표자들의 사고의 흔적을 찾으며 ‘저런 방법도 있었구나.’, 혹은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와 같은 생각을 하게 해 앞으로 진행할 연구에 또 다른 길을 열어주기도 했다. 이전에 비해 많은 변화가 이루어진 2013년 학술제, 하늘제는 1년간의 학업에 대한 보상이었다. 지식뿐만 아니라 경험, 감성까지도 공유하는 장이 되었던 하늘제는 하늘고등학교의 전통이 되어 계속될 것이다.

특별취재:



인천하늘고의 지식의 보고(寶庫), 도서관

● ● ●

김민경 임지은

하늘고등학교의 지식의 보고(寶庫), 도서관을 취재하였다. 최신 시설과 다양한 도서를 구비하고 있으며, 도서 활동 진작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실시하는 곳이다. 자 이제 전미라 사서 선생님을 인터뷰한 '하늘나라'와 함께 우리의 보고에 대한 탐색을 떠나보자.

1. 도서관 소개

2012년 2월 13일 2,500권의 책을 소장한 규모로 개관한 정보도서관은 2012년 한 해 동안 선생님과 학생들이 함께 파주도서전시회와 교보문고 등을 방문하여 다양한 지적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다방면에 걸친 양질의 책을 소장하는 작업을 통해 개관 일 년 만에 만여 권의 장서를 소장할 수 있었습니다.

4층과 5층이 계단으로 연결된 복층 구조의 하늘고등학교 도서관은 5층 서가에 KDC 000~700번까지의 책들이 구비되어 있으며, 4층에는 KDC 800~900번까지의 문화, 역사 분야의 책들이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독서 토론을 위한 회의실과 30년 후의 자료 보존을 위한 보존 서고, 고3들이 주로 사용하는 멀티미디어 공간, 창가 측의 북카페식 열람석이 있습니다.

2. 도서관 특색 프로그램

도서관에서는 아침 독서와 독서 인증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책을 보다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연 2회 이상 대규모 행사를 진행하여 학생들이 도서관을 친숙하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안도현 시인을 초청하여 강의를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며, 선생님들의 추천 도서를 선정하고 추천을 통해 학생들에게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 아침독서 길찾기 및 독서 인증제

- 하늘고 선생님들의 추천도서, 서울대 권장도서 100선, KAIST 신입생 필독도서, 경희대 한의대 교양도서, 서강대 교양도서, 미국 대학위원회 SAT 추천도서를 기본으로 한 아침독서용 코너 서가를 제작.

• 아침독서용 코너 장서 현황

	하늘고 선생님	서울대	KAIST	경희대 한의대	서강대	SAT	합계
추천권수	62	100	72	91	230	100	655
소장권수	38	81	33	74	98	49	373

- 아침 독서 시간에 읽은 책들을 독서종합지원시스템에 기록하여 이를 하늘고 독서인증로 활성화함.

급수	독서교육종합시스템 독후활동	DLS대출권수	연체 (FAIL / PASS)
1급	7권	14권	연체2회까지는 PASS 연체3회부터는 FAIL
2급	5권	10권	
3급	3권	6권	

• 도서관 행사

행 사 명	내 용
사제(師弟)드림	교사 추천 도서를 직접 학생들에게 수여하는 행사
프렌(Friend)드림	친구들에게 자신의 추천 도서를 직접 선물하는 행사.
책갈피 나누기	대출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책갈피를 나누어주는 행사.

• 안도현 시인 초청 행사



3. 향후 발전 과제

R&E(Research and Education), 전공 연구 등의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있는 하늘 고등학교의 특성상 학생들은 많은 전공 서적을 필요로 합니다. 현재 자연 과학 분야의 전공 서적에 한정되어 있어 다른 분야의 전공 서적 책들도 구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자기 계발을 위한 진로 분야의 책 또한 마련할 생각입니다.

4. 추천하는 책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미치 앨범)>을 추천합니다. 20살이 되어 대학 과제로 처음 접했던 책입니다. 삶과 죽음에 대해 심도 있는 고찰을 담고 있는 책이어서 학생들이 읽게 되면 멀게만 느껴지는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현재의 삶을 좀 더 충실하게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5. 사서의 하루

사서 선생님은 우리들이 쉬는 시간에 더 바쁘게 움직이십니다. 점심시간, 매 쉬는 시간, 종례가 끝난 후의 30분 그리고 저녁 시간이면 학생들의 책 대출, 반납을 위해 손이 분주해지신다고 합니다. 또 그 외의 시간에는 1학년들의 독서활동종합지원시스템의 독서

인증제 관리를 하며 학생들의 독후감에 코멘트를 달아주십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책을 미리미리 선정하여 예산이 책정되었을 때 신속한 구매가 가능하도록 해주십니다.

6.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

안녕하세요. 사서 교사인 전미라입니다. 하늘고등학교 도서관은 여느 대학 도서관보다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는 만큼 많이 이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대학생이 되면 많은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책들은 전공 서적에 제한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등학교 때 다양한 분야의 책을 좀 더 가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도서관의 청결 유지와 쾌적한 공간 사용을 위해 물 이외의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평균 대출되는 책이 10권 내외인 일반 고등학교에 비해 우리 학교는 약 300권 정도의 책이 대출됩니다. 이렇게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는 하늘고 학생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많은 이용을 해 주었으면 좋겠고,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독서 활동을 하는 것이 하늘고의 전통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7. 앞으로의 계획

개관 3년을 맞은 2014년에는 매달 수서 작업을 통해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들을 적시에 제공하는 한편 한국도서관협회의 학교도서관장서기준에 맞춰 자료를 구성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점차적으로 하늘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독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월별 행사들을 진행해 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하늘인들의 날개 펴기

교지 작품 응모:

누가 흰색과 검은색은

● ● ●

김 종 찬

웅기종기 모여 사랑을 나누는 흰색 건반
그 사랑을 질투한 검은색 건반
그것들이 모여 사랑의 선율을 만들어 내는
피아노를 보라.

누가
흰색과 검은색은 사랑을 나눌 수 없다고 하였는가.

쿵광쿵광 이정표가 되기 위하여 속살을 드러내는 흰색 분필.
또각또각 꿈을 향하여 얼굴을 내리는 검은색 샤프심.
그것들이 모여 이상세계를 만들어내는
분필과 샤프심을 보라.

누가
흰색과 검은색은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없다고 하였는가.

교지 작품 응모:

세 번째 탄생

● ● ●

구 정연 1학년 8반

나는 보았다
시들어가는 눈망울을
두 번째 아기가 돼버린 그분을
내 이름을 다정히 부르시며
내 손에 쥔 흰 쌀밥과 고기반찬을 보시며
맛있냐고
자신은 미음 같은 죽을 받아 드시며
그럼 나는 쪼르르 건너가
다시 서실 수 있게 받쳐드리며 안아드리며
익숙지 않은 가벼움에 죄송하여

나는 들었다
밤새 앙앙 울어대는 목소리를
지독히 평온함과 싸우시는 그분을
난 살아있다 하시며
내 손에 쥔 온기와 안타까움을 보시며
괜찮냐고
자신은 해진 가죽 같은 손을 하시며
그럼 나는 꺾악 잡아
더는 무섭지 않게 받쳐드리며 안아드리며
익숙지 않은 가벼움에 죄송하여

저 조그마한 항아리 안에
사람의 음식, 온기와 있으실는지
저 조그마한 항아리 안에
큰 사랑이 여전하신지

앙앙.

교지 작품 응모:

노예의 삶

● ● ●

오현택

모두가 잠들 무렵
아직까지 잠들지 않은
나와 우리 주인
나는 너무 졸린 나머지
깜빡 졸기도 하지만
그 때마다 나에게
날아오는 물과 고통은
정말 야속하기까지 합니다.

드디어 내가 소망하고 원했던
취침시간이 되자
주인은 방금까지 하던 것을
종합하고 정리하라고 하곤
그냥 침대에 드러누워 버립니다.
그래도 주인의 명령이니
다시 나는 일을 시작합니다.

힘겹게 일을 다 하고
편안하게 침대에 누워
자려고 하니
시끄러운 음악소리에
주인이 하품을 하며
일어나 잠도 자지 못한
나를 데리고 아침운동을
하러 갑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버틸 만했습니다.
하지만 나를 가장
견디기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시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우리 주인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이상한 종이뭉치를
저에게 주며
‘문제를 풀어라’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그 문제들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복잡해졌습니다.
게다가 문제를
틀릴 때마다
나는 나의 주인에게
갇은 모욕과 구타를
당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인과 저는
차에 치이고 말았습니다.
주인은 어디로 갔는지
내가 지금 얼마나 다쳤는지
알고 싶어도 온 세상이
검은색으로 둘러싸여
알 길이 없습니다.

비록 지금 죽어도
여한은 없습니다.
그저 빨리 죽어
누군가의 주인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에게는
정말 잘 대해 줄 것입니다.

모두 꿈이었습니다.
내가 죽는 꿈을 꾸면서
행복해하는 것을 보니
삶이 정말 괴롭기는
한가 봅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머릿속에서

교지 작품 응모:

이무기

● ● ●

박예리 1학년 8반

나는 오늘 땅 위로 나갔네.
기껏 버틴 오백 년에 하도 지쳐
수선화 비치는 물 위로 나갔네.

꾸물꾸물 세상 구경하는 나를 막대기로 헤집어 놓네.
용도 아니고 뿔도 아닌 내게 돌을 던지네.
짧은 다리도 없이 허우적대는 흙투성이 몸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나
용기 내어 비늘 세우고 나를 드러냈는데
나를 받아주는 곳 이곳 밖에 없나
제힘으로 기어 나온 나의 목을 조르네.

스물스물 사과를 건넌 무리가 내게 말을 하네.
조금만 더 잠들면
날치도 나는 하늘을 날 수 있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나
뒤뚱거리도 뛰어오르는 내가 되고 싶은데
내가 살 수 있는 곳 이곳 밖에 없나
결국 나는, 결국 나는 잠들 수밖에 없나

나는 오늘 땅 위로 나갔네.
기껏 버틴 오백 년에 하도 지쳐
내가 묻혀있는 물 위로 나갔네.

나는 오늘 물 위로 나갔네.
죽은 듯이 버텨야 할 또 다른 오백 년에
풀죽어 돌아온 강물이 시리네.

백일장:

공중전화

● ● ●

이재웅 2학년 6반

주목받는 존재가 아니어도 좋다.
단지 가끔 급한 누군가가
나로 인해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걱정을 덜어주는 그런 존재일 수 있다면

나를 만나러 온 것이 아니어도 좋다.
엄동설한 등갓길의 소녀가
겉에서 손발을 녹이며
내 따뜻함에 미소 지을 수 있다면

과거의 청춘이 그리지만은 않다.
바쁘게 달려가는 그대가
나를 보며 추억에 젖어
소소한 행복과 여유를 느낄 수 있다면

해설 핸드폰이 대중화되기 전에는 사람들의 주 통신수단은 공중전화였다. 지금은 핸드폰에 밀려 뒤로 밀려났지만 가끔씩 핸드폰이 없고 전화가 필요할 때, 도움이 되고 추운 날에는 손발을 녹이러 부스 안으로 들어가 본적도 있을 것이다. 이 시는 공중전화가 원하는 자신의 바람을 나타낸 것이다.

백일장:

인쇄물

● ● ●

고혜원 2학년 3반

삶이라는 하얀 A4용지에
하루하루를 인쇄해간다.

부드럽게 잘 써지고,
오타로 좌절하고,
잉크 부족으로 희미해질지라도

마지막 마침표를 찍을 즈음엔
후회는 없기를.

해설 삶과 죽음을 한 장의 인쇄물이라고 생각해보았다. 아무것도 없는 백지상태인 갓난아기 때부터 지금 까지 우리는 흰 종이에 하루하루를 기록해가는 것이다. 어떤 일이든 잘 풀리는 때가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때는 실수, 여러 장애물들 때문에 좌절하고 꿈, 목표가 희미해질 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삶의 과정 중 한 부분일 뿐이다. 나는 우리가 인생의 인쇄물을 완성할 마침표인 죽음을 맞이할 때 후회가 없다면 만족스러운 인쇄물, 즉 만족스러운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이 시를 쓰게 되었다.

백일장:

중국 수학여행

● ● ●

박 예 리 1학년 8반

온통 빨간 중국의 거리에서
내 머리 위로 나는 용의
꾸물꾸물 살아있는 꼬리를 먹었다.
먹다 버린 음식을 주워 먹는 사람,
은근슬쩍 소매에 지갑을 넣는 사람
꼬리를 진흙에 담근 채
머리는 하늘을 나는
중국의 용을 어렴풋이 맛보았다.

해설 실제로 본 중국의 모습은 내 상상을 뛰어넘었다. 거대하고 화려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우리가 먹고 버린 음식을 주워 먹는 거지이다. 이러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보고난 후에야 '사회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조금이나마 깨달았다.

백일장:

삶과 죽음

● ● ●

배 승 욱 2학년 4반

일요일 낮 12시 5분. 노인이 일주일이나 기다려온 순간이 이제 5분 남았다. 노인은 벌써부터 어깨가 들썩이고 가슴이 두근거린다. 노인은 천천히 거실의 소파에 앉는다. 잠시 후 빠라빠..... 하는 음악소리가 들려오고 한 할아버지가 외친다.

“전국~ 노래자랑!”

노인은 아이같이 웃으며 텔레비전 화면 속 진행자를 따라 외친다. 얼마 남지 않은 이 때문인지 어눌한 발음이다. 노인은 텔레비전을 보는 내내 방송 출연자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박수를 치기도 하며, 진행 측의 탈락을 알리는 ‘땡’ 소리에 또 즐겁게 ‘아 유, 즈런, 쫘쫘, 허허’하는 소리를 내며 텔레비전을 보았다. 그러니까 노인은 텔레비전을 보는 시청자가 아닌 무대 앞의 관객이었다.

그렇게 웃고 즐기는 사이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끝났다. 할아버지는 갑자기 외로워진다.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는 수만 명의 사람들과 있었지만 지금은 오직 자기 혼자만 있는 것이다. 노인이 텔레비전 광고를 싫어하는 것도 편안함 뒤 찾아오는 외로움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그날 저녁, 노인이 밥을 먹고 있다. 물론 텔레비전도 켜져 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연예인들이 맛집을 찾아가 맛있는 음식을 먹는 내용이다. 노인은 그들의 개그와 재롱에 허허 웃는다. 여러 가지 진수성찬이 나오자 그들은 환호성을 지른다. 노인도 덩달아

즐겁다. 노인은 텔레비전을 보지만 시청자가 아닌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가족, 친구이기 때문이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그들 앞에는 이탈리아식 스파게티와 피자요리가 있지만 노인 앞에는 김치, 김, 오래되어 딱딱해진 밥이 있을 뿐이다. 노인은 밥을 우물우물 씹으며 말했다.

“많이 묵으라. 많이 묵어.”

불 꺼진 어두운 방에는 노인과 환한 텔레비전만이 있었다.

어느 날 아침 파르르르르 하고 전화벨이 울린다. 노인은 화들짝 놀라며 TV소리를 줄인다. 이제 드디어 보름 만에 그의 말에 응답을 해줄 사람이 생긴 것이다. 노인은 두 손으로 수화기를 집어 든다. 이윽고 목소리가 들려온다.

“아버님, 저예요. 잘 지내시죠?”

이 목소리는 첫째아들 며느리다.

“어, 어 그래. 나는 밥 묵었나.”

“예, 아버님.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버님 요번 달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아버님 요새 적적하셔서 텔레비전 많이 보시는 건 알겠지만 이제 좀 줄여주셨으면 해서요. 저번에 보니까 아버님 텔레비전 켜놓고 주무시던데.....”

“알았다. 아이, 그 TV 그냥 보는 거지 재밌어서 보냐.”

“예, 아버님. 조만간 찾아뵙게요.”

“어이, 그래. 그 애기들은 잘 지내냐?”

“.....”

더 이상의 목소리는 들려오지 않았다. 노인은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리모컨을 들어 텔레비전을 껐다. 세상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고요했다. 그 고요한 세상 속에 텅그러니 노인이 있었다. 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가만히 소파에 앉아 있는 것뿐이었다.

노인은 지금 주말 연속극을 보고 있다. 며느리와 전화통화 후 텔레비전 시청을, 아니, 그의 가족, 친구들과의 만남을 줄여왔지만 이 주말 연속극은 1화부터 보던 프로그램이라 노인이 포기할 수 없는 것이었다.

“쿨럭, 쿨럭.”

오늘따라 노인의 기침이 심했다. 그동안 앓아오던 폐병이 심해진 것인지 감기에 걸린 것인지 어쨌든 노인은 물을 마시러 소파에서 일어났다. 그 순간이었다. 머릿속에 섬광이 번뜩 이는 듯하다가 세상이 파랗게 보이기 시작했다.

“어유, 어유.”

노인은 지끈지끈 아파오는 머리를 부여잡다가 그만 소파에 쓰러져 버렸다.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듯했다. 아, 이제 죽는 것인가. 노인은 생각했다. 내가 죽으면 내 시체는 누가 치워줄까. 아니 누가 내 죽음을 알아줄까..... 노인은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싸늘하게, 아무도 찾지 않는, 혼자 덩그러니 죽어 썩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두려움을 느꼈다. 죽음만큼은 외롭지 않길 바랐는데.....

의식이 더욱 더 희미해지던 차였다. 덜컥. 끼이익, 현관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다.

“아버님, 저희 왔어요. 아버님, 주무세요? 아버님! 아버님! 여보, 아버님이 이상해.”

“뭐? 아버지, 아버지!”

노인의 귓가에 자식과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래도 참 다행이야. 덩그러니 혼자 썩지는 않아도 되겠어.’

노인은 희미한 미소를 띄었다.

“어제 오후 세시, 인천 □□동 A아파트에서 한 노인이 숨진 지 일주일 만에 경찰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발견은 지독한 악취 때문에 옆집에 사는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이구, 아이구, 아버지 혼자서 얼마나 외로우셨습니까. 아이구 아버지.....”

“어휴, 그렇게 혼자 가실 줄 알았으면 진작에 찾아보는 건데.....”

“그러게요, 정희엄마. 휴, 그나저나 노인네가 TV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돌아가실 때까지도 TV를 켜놓고 돌아가셨다네요.”

“가뜩이나 살기도 어려운데 전기세 엄청 나왔겠구만.”

“어유, 그래도 돌아가신 분한테.....”

“어마, 그러고 보니까 지금 주말 연속극 할 시간이네. 도대체 그 부잣집 딸녀는 왜 그 지 같은 놈을 만나서 아버지를 고생시킨대?”

“그러게요. 임신했다는 소리 듣고 아버지가 쓰러져 버렸잖아요.....”

글마당:

한문보고서

한시(漢詩) 바깥 쓰기

● ● ●
최윤미 1학년 5반

霜三月昭夜河明客子思鄉別有懷獻寄書宵然
以死忽此鄰也擗衣聲人未斷環佩玉夜之星
低雲暫止勾蹤別國不相中今在他鄉聽想似不知
采柳重將輕不意春確平一平年遙憐弱體
多憂汗預識交深勞玉腕為雷以敘客衣單為
復先然閨閨寒雖忘客儀誰可問不知意意思
空端寄異土今有新識想同心今夕嘆息此時獨自
閨中此夜誰知明眸倍憶一兮心已懸雲中兮不
可穿即將同尋尋聲兮止為然多不日眠
楊泰師詩夜聽揚不詩丁亥立張畫

1. 원시(原詩) : 夜聽搗衣聲 야청도의성

2. 작가(作家) : 양태사(楊泰師)

발해 문왕 때 귀덕장군(歸德將軍)인 양태사(楊泰師)가 지은 한시이다.

759년(문왕 23년)에 일본에 부사(副使)로 갔다가 이 시를 지어 읊었다고 한다.

3. 출처(出處) : 경국집(經國集) - 일본에서 편찬한 한시집

4. 해설(解說) : 이 작품은 고국을 떠나 타향에서 향수를 느끼는 작자가 간절한 마음으로 고향과 조국을 생각하며 읊은 노래이다.

霜天月照夜河明 (상천월조야하명)

客子思歸別有情 (객자사귀별유정)

厭坐長霄愁欲死 (염좌장소수욕사)

忽聞隣女搗衣聲 (홀문린여도의성)

聲來斷續因風至 (성내단속인풍지)

夜久星低無暫止 (야구성저무잠지)

自從別國不相聞 (자종별국불상문)

今在他鄉聽相似 (금재타향청상사)

不知綵杵重將輕 (부지채저중장경)

不悉青砧平不平 (불실청침평불평)

遙憐體弱多香汗 (요련체약다향오)

預識更深勞玉腕 (예식경심노옥완)

爲當欲救客衣單 (위당욕구객의단)

爲復先愁閨閣寒 (위복선수규각한)

雖忘容儀難可問 (수망용의난가문)

不知遙意怨無端 (부지요의원무단)

寄異土分無新識 (기이토분무신식)

想同心兮長嘆息 (상동심혜장탄식)

此時獨自聞中間 (차시독자규중문)

此夜誰知明眸縮 (차야수지명모축)

憶憶兮 心已懸 (억억헤 심이현)

重聞兮 不可穿 (중문헤 불가천)

卽將因夢尋聲去 (즉장인몽심성거)

只爲愁多不得眠 (지위수다불득안)

서리 내리는 하늘에 달 비치고 은하수 환하니,

나그네의 마음 간절하기는 돌아갈 생각뿐.

긴긴 밤 근심에 겨워 오래 앉았노라니,

홀연 들리는 이웃집 여인의 다듬이 소리.

바람결에 실려 오는 소리 끊어질 듯 이어지며,

밤 깊어 별들 낮아지도록 잠시도 못지 않네.

고국 떠난 후로 저 소리 들어보지 못했는데,

지금 타향에서 들으니 소리 서로 비슷하네.

그대 든 방망이 무거운가 가벼운가,

푸른 다듬이 돌은 고른가 거친가.

약한 체질 온통 구슬땀에 젖었으니,

옥 같은 두 팔도 힘이 부쳐 지쳤으니.

홀웃으로 떠난 나그네 구하자 함인가,

규방에 외로이 있는 시름 잊자 함인가.

그대 모습 그려보나 물어볼 도리 없고,

부질없는 원망만 끝없이 깊어 가네.

먼 이국땅 낯선 고장에서,

그대 생각 하노라 긴 탄식만 하네.

이럴 때 들려오는 규방의 다듬이 소리,

그 누가 알랴, 이 밤 시름 깊은 저 설움을.

그리운 생각에 마음 높이 달렸건만,

듣고 또 들어도 뚫어 알 길이 없네.

꿈속이라도 저 소리 찾아보려 하지만,

수심 많아 잠도 이루지 못하네.

5. 바꿔 쓴 시 : 朝聽起床歌-조청기상가(작가 : 최윤미)

6. 해설 : 가을이 깊어가는 하늘고 기숙사. 이른 아침 기상 노랫소리가 들린다. 그 소리는 크고 우렁차 학생들을 단잠에서 깨워 아침 체조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원시(原詩)에 서의 다듬이 소리는 고국을 떠올리게 하는 아름다운 선율의 소리로서 여인과 청자의 거리를 좁혀 주는 매개체로 사용된다. 그러나 조청기상가(朝聽起床歌)에서의 아침기상 노랫소리는 화자가 원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만 하는 현실을 뜻한다. 하늘고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 보았을 법한 ‘아침 체조는 과연 필요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화자는 조청기상가(朝聽起床歌)의 3,4연에 걸쳐 던지고 있다.

霜天月照夜星明 (상천월조야성명)
 舍子思歸別有情 (사자사귀별유정)
 厭坐長霄愁欲死 (염좌장소소욕사)
 忽聞朝起床歌聲 (홀문조기상가성)

聲來大輪因機至 (성내대륜인기지)
 起床衾脫無暫止 (기상금탈무잠지)
 昨夜望無朝體操 (작야망무조체조)
 今在枕上聽相似 (금재침상청사사)

不知體操利將害 (부지체조리장해)
 不悉操多益不益 (불실조다익불익)
 驢精神切朝時困 (단정신체조시곤)
 今識疲深勞奕體 (금식피심노연체)

爲學生精神起床 (위학생정신기상)
 勸精神尤瘡之痛 (패정신우단지통)
 唯音聲難問事由 (유음성난문사유)
 不知遙意怨無端 (부지요의원무단)

遠島里生疏舍子 (원도리생소사자)
 想體操今長嘆息 (상체조혜장탄식)
 此時獨自朝中間 (차시독자조중문)
 此朝誰知明眸縮 (차조수지명모축)

望望兮 心已懸 (망망헤 심이현)
 重奄兮 不可止 (중엄헤 불가지)
 卽將因夢助聲去 (즉장인몽서성거)
 只爲愁多不得眠 (지위수다불득안)

서리 내리는 하늘에 달 비치고 별빛 환하니,
 기숙사 머무는 나 귀향 생각 깊도다.
 긴긴 밤 홀로 누워 시름 이기지 못하는데
 홀연 들리나니 아침 기상 노랫소리

스피커에 실려 오는 소리 크고 우렁차
 일어나 이불을 젖혀도 잠시도 멈추질 않네.
 어젯밤 자기 전에 아침 체조 없길 빌었건만
 지금 침상에서 들으니 (어제와) 다르지 않네.

아침 체조는 효과 있나 효과 없나
 과연 운동이 이익 많나 이익 없나
 힘든 정신 아침마다 온통 괴로우며
 가냘픈 몸 힘이 부쳐 지치는구나.

학생들의 정신을 깨우고자 함인가
 지친 정신 더 괴롭히고 또 괴롭히려 함인가
 노랫소리만 들리니 물어볼 도리 없고
 부질없는 원망만 끝없이 깊어 가네.

먼 섬 동네 낯선 기숙사에서
 체조 생각 하노라 긴 탄식만 하네.
 이럴 때 들려오는 아침 기상 노랫소리
 그 누가 알랴. 이 아침 우리의 깊은 이 설움을

간절한 바람에 마음 높이 달렸건만
 귀를 막고 또 막아도 멈추질 않네.
 꿈속에라도 저 소리 없애보려 하지만
 수심 많아 잠도 이루지 못한다네.

7. 한자어 풀이

한자	霜	照	河	情	厭	坐	霄	愁	忽	床	續
뜻	서리	비치다	강	뜻, 생각	가득 차다	앉을	하늘	시름	돌연	상	이을
음	상	조	하	정	염	좌	소	수	홀	성	속

한자	因	久	衾	暫	止	昨	操	似	將	害	悉
뜻	인할	오랜	이불	잠시	멈다	어제	부릴	잇다	장차	해칠	다
음	인	구	금	잠	지	작	조	사	장	해	실

한자	益	驢	切	困	預	兮	更	深	勞	腕	勸
뜻	더할	말힘 부칠	온통	괴로울	미리	어조사	고칠	매우	힘쓸	팔	지칠
음	익	단	체	곤	예	혜	경	심	노	완	패

한자	痺	痛	唯	遙	意	怨	端	疏	誰	眸	縮
뜻	앓을	아플	오직	멀다	뜻	원망할	바르다	멀다	어떤 사람	자세히 보다	줄일
음	단	통	유	요	의	원	단	소	수	모	축

한자	懸	穿	助	輪	脫	今	奕	尤	舍	望	
뜻	매달	뚫을	없앨	우렁 차다	벗다	이제	가날 프다	더욱	집 (기숙사)	바랄	
음	현	천	서	륜	탈	금	연	우	사	망	

글마당:



환경동아리 UMWELT

세수나 양치할 때 물을 받아서 하나요?	집에서 무엇을 사용하나요? Yes : 선풍기 No : 에어컨	음식은 먹을 만큼만 받나요?	이면지를 사용하나요?
전자제품 사용 후 코드를 뽑나요?	컴퓨터 사용 후 모니터를 끄시나요?	샴푸는 얼마큼 사용하시나요? Yes : 펄핑 1번 No : 펄핑 2번 이상	쓰레기를 버릴 때 분리해서 버리시나요?
변기를 내릴 때 대·소변을 구분하시나요?	겨울에 내복을 입나요?	도시락을 쌀 때 일회용품을 이용하시나요?	사람이 없는 방의 불을 끄나요?
A	B	C	D

최고야! 아름다우세요. 당신은 환경지킴이예요.	아깝다... 조금만 노력하면 당신도 환경지킴이가 될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당신도 최악이 될 수 있어요.	최악이야! 당신은 환경파괴자예요!!

최근 하늘고에서 가장 혁명적이었던 사건은 무엇일까요? 학교 매점에 국물 있는 라면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우리 하늘고 학생들은 이로 인하여 열광의 도가니에 빠졌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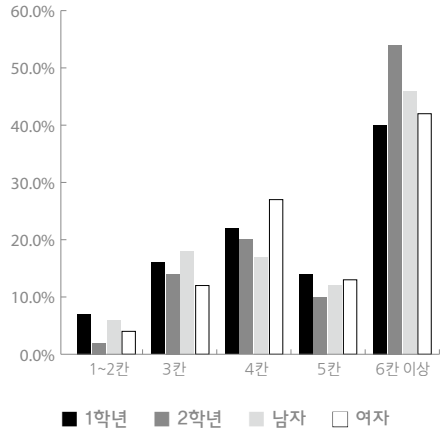
그러나 화장실 변기 위에 흘린 라면 찌꺼기, 휴지통 주변에 널브러져 있는 라면 용기들은 볼 때마다 얼굴을 찡그리게 합니다. 우리의 안전 근육을 자극하는 바로 그 라면! 라면을 끓이기 위하여 우리는 정수기의 뜨거운 물을 사용하는데 너무 배가 고프 나머지 물을 끄지 않고 먹기에만 바쁜 어떤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 한숨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이것뿐일까요? 하늘인들의 생활 속에서 사소하지만 환경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분리수거 및 재활용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 수도꼭지를 제대로 잠그지 않는 것, 이동 시 교실의 불을 끄지 않는 행동, 양치를 할 때 물을 세게 틀어 놓는 것, 컴퓨터 전원을 끄지 않는 것과 같은 환경 파괴적인 행동은 빈번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실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해보고자 환경동아리 움벳트는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설문지는 코인 세탁기 사용 횟수, 이동 시 불을 끄는 빈도, 잔반을 남기는 빈도 등과 같이 일상생활 속에서 무심코 지나쳤던 실수들에 대한 질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 남/여, 1학년/2학년의 차이가 컸던 휴지 칸 사용 수, 엘리베이터 이용 횟수, 샤워 시간의 응답결과를 보이고자 합니다.

휴지 세 칸만 써도 해결할 수 있을 텐데...

graph 휴지 칸을 얼마나 쓰고 있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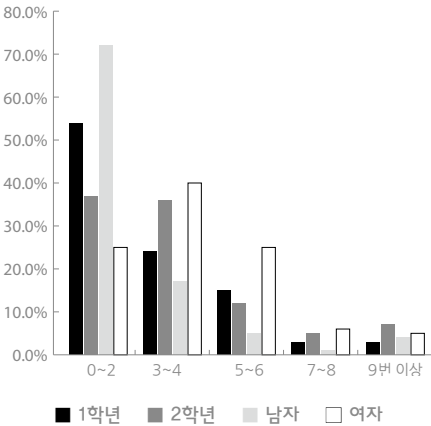


응답 결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대체로 6칸 이상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두루마리 휴지 한 개를 만들기 위해서는 약 220g의 펄프가 필요한데 펄프 1톤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30년생 나무가 20그루 필요하다고 합니다. “에이~ 얼마 안 필요하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한 사람이 1년 동안 사용하는 종이의 양(153kg)이 30년생 원목 27그루라는 것을 생각하면 상당히 많은 양이지요? 휴지 사용 시 한, 두 칸 적게 쓰는 것만으로도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답니다!!! 놀랍네요, 한, 두 칸 적게 쓰는 것이 불편하시나요? 그러면 한 롤의 휴지를 100% 재생종이로 바꿔보세요, 42만 4900그루의 나무를 구하는 것과 같다고 하니, 이것도 괜찮은 방법 같네요!

엘리베이터 많이 타고 다니면 나이 들어서 고생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인천하늘고등학교 여학생들은 늙어서 고생 좀 할 것 같네요, 우리학교 학생들은 기숙사 생

graph 엘리베이터, 얼마나 타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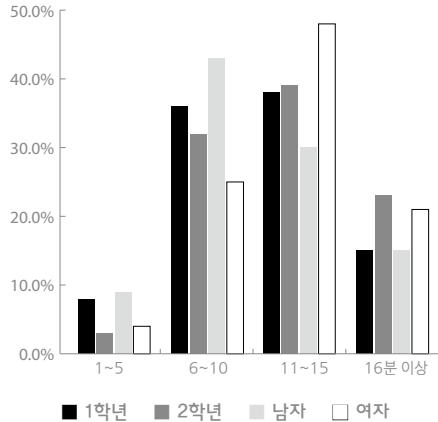
활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느라 운동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계속 지속하게 되면 몸이 앞, 옆, 뒤로 커지겠죠? 몸이 커지면 고혈압, 고지혈증과 같은 성인병이 뒤따르게 됩니다. 이를 예방하는 간단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엘리베이터 대신에 계단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한 층을 올라갈 때 7kcal가 소모되니 1층에서 5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간다면 10분간 자전거를 타고, 등산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보이게 되는 것이지요. 실제로 뉴욕의 시장인 마이클 블룸버그는 '비만과의 전쟁'을 선포함과 동시에 계단 이용을 장려하기도 했습니다. 하늘고등학교 학생들도 계단 이용을 통해 환경과 건강 모두 지키면 좋을 것 같네요.

권장 샤워시간은 3분이라는데...

샤워는 보통 몇 분 동안 하시나요? 설문조사 결과 5분 이하로 샤워를 하는 학생은 소수였으며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오랫동안 샤워를 하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물 사용이 환경과 무관한 것처럼 보이지만 수자원의 부족도 현재 심각한 문제로 대두

되고 있으며 버려진 물을 정화할 때 배출되는 탄소량도 무시할 수 없는 양이라고 합니다. 탄소 배출을 막기 위한 권장 샤워 시간은 3분이라고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3분 안에 샤워를 하기는 어려운 일이지요. 3분에 샤워 시간을 맞추기는 어려우니 샤워 시간을 3분 줄이는 것은 어떨까요? 사소하지만 환경을 지키는데 기여할 수 있겠죠?

graph 샤워, 몇 분 동안 하니?



간단한 설문을 통해 하늘고등학교 학생들의 환경과 관련된 실태를 조사해보았습니다. 작은 날갯짓 한 번에 폭풍우가 일어날 수 있는 나비효과와 같이, 우리의 사소한 행동이 환경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변화가 긍정적인 변화가 될지, 부정적인 변화가 될지는 우리의 변화에 달려있습니다.

그림마당:

문예공모

● ● ●

최미나 배승욱 김지영

(위에서부터)



편지:

5월의 군자당훈

● ● ●

이영종 선생님



Prologue

하늘고 군자당의 창시자. 아이들을 군자로 성장시키기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이영종 선생님께서는 매달 군자당의 당훈을 편지와 함께 주신다. 군자로 성장하기 위해 갖춰야 할 여러 가지 인성적인 측면들을 가르쳐주시는 이영종 선생님의 2013년 5월의 당훈을 편지와 함께 공개한다. 인성 교육이 중시되고 인성을 대학에서 평가하는 이 시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이 편지와 함께 우리 하늘고등학교 학생 모두가 군자로서의 덕목을 갖추기 바란다.

1. 변화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국어 선생님께서 칠판에 이 두 글자를 쓰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어른들은 변하는 거 안 좋아한다. 왜? 돈 들어가고 피곤하거든... 하지만 너희는 변화를 즐길 줄 알아야 한다....”

스펜서 존슨은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란 책에서 변화를 추구하는 삶을 가리켜 ‘두려움에 대한 선택’이라고 정의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사라져버린 치즈에 대한 미련을 빨리 버릴수록 새 치즈를 빨리 찾을 수 있다!”

군자당 당수는 말한다. 우주의 그 어느 물질이든, 그 물질로 이루어진 어느 공간이든, 그 공간을 지배하는 어느 시간이든, 변화하지 않는 것은 없다. 변화는 끊임없이 계속된다. 변화가 끝없이 계속된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현재에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으며, 한편으로 더욱 겸허해질 수 있다.

2. 과정 그리고 결과

중간고사가 끝났다. 집에 가서 부모님과 함께 나누었음직한 대화를 한번 가상해볼까?

“우리 아들, 시험 본다고 고생 많았지?”

“.....”

“그래, 많이 어려웠어?”

“실수도 많이 하고..... 아~ 너무 못 봤어요. ㅠㅠ”

“괜찮아. 최선을 다했으면 됐지 뭐.....”

(그리고 나서 부모님도 나도 모두 마음이 편치 않다. 놀아도 노는 게 아니다.... 귀교 후 성적 확인 할 걸 생각하면 끔찍하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와 같으리라. 난 여기서 궁금한 게 있다. 결과를 떠나서 과정에 최선을 다했으면 그것으로 충분해? 과연 그럴까? 과정에 충실

하면 결과가 반드시 좋다는 보장이 있나?

일정한 과정이 끝나고 나면 결과가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그 결과가 나쁘다면 과정이 아무리 좋았던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실제로 난 교사 노릇하면서 자신의 노력만큼 결과를 얻지 못하는 학생들을 많이 보았다. 우리 주변에는 고등학교 3년간 누구보다 치열하게 공부했지만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합격하지 못해서 재수를 하거나 원치 않던 학교에 마지못해 입학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오로지 결과만 가지고 학교와 학생을 평가하는 우리 세대에서 이 문제는 교사 이영종을 오랫동안 괴롭혀 온 고질병이었다.

3. Long Now

지난달 우연한 기회에 『느림의 지혜』(스튜어트 브랜드, 2000.5)란 책을 읽게 되었다. 그리고 그 속에서 ‘long now’라는 개념을 접하고 흐릿하게나마 이 문제에 대한 단서를 찾았다.

우리를 평가하는 모든 시간적 기준은 현재이다. 그 현재 속에 과정과 결과라는 작은 단위들이 얹혀있다. 현재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위에서 우리가 고민했던 과정과 결과의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다. 현재의 범위가 오늘 하루로 제한된 사람을 생각해보자. 그 사람은 하루 동안 자신에 대해 매겨지는 타인의 평가에 의해 고무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한다. 현재의 범위가 1개월 정도인 사람은 매월 보는 모의고사의 결과에 일희일비 한다. 2달 정도 되는 사람은 중간고사, 또는 기말고사의 결과에 좌우된다. 크게 넓혀서 3년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대학입시 결과에 목을 땔 것이고….

이렇게 현재의 범위를 조금씩 확장시켜 가다보면 우린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된다. 현재의 범위가 길고 넓은 사람에게는 그때그때 주어지는 결과가 결코 절대적이거나 고정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그것 역시 긴 현재 속에 있는 과정일 뿐이다. 새옹지마(塞翁之馬)의 고사를 떠올린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long now’란 현재를 이처럼 길게 보자는 것이다. 우리 은하가 한번 자전하는 데 2억 2천만년이 걸린다고 한다. 지구는 우리 은하가 대략 25바퀴를 도는 동안만 존재해 왔을 뿐이다. 400만년 전에 출현한 우리 인류는 은하가 겨우 0.018바퀴 자전하는 동안만 존재하고 있다. ‘long now’의 시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쉽게 절망하거나 자만하지 않는다. 왜? 아직 현재가 끝나지 않았다고 믿기 때문이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믿는 사람은 서두에

말한 것처럼 ‘변화’에 언제나 능동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 얼핏 보기에 끝난 것 같아 보이는 결과도 실상은 다음 결과를 위해 진행되는 과정의 일부일 뿐이라는 진실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20세기를 대표하는 수학자이자 철학자 화이트헤드Whitehead(1861~1947)는 이렇게 말했던 것이다.

“모든 실재(reality)는 과정(process)이다.”

군자당 1학년 1반의 5월훈은 이것이다.

LONG NOW

군자들이여, ‘long now’를 소유하라.

중간고사 결과에 일희일비하는 자는 소인배(=very short now)일 뿐이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내지 아니하면 또한 군자 아닌가? 그가 성내지 않음으로써 군자일 수 있는 것 - 그것은 그가 ‘long now’를 누리고 있기 때문이니라!!!

- 2013.4.30. 오전 교무실에서
군자당 당수 이영종 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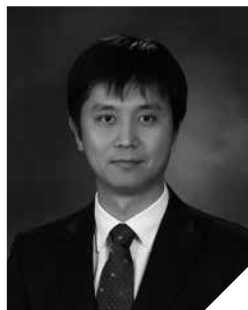
기획 인터뷰:

인생사가 궁금한 선생님 1,

- 김경훈 선생님 편

● ● ●

안하영 이시은



Prologue

‘하늘나라’가 ‘하늘고 설명서 ver.1’을 위한 설문 조사에서 인생사가 궁금한 선생님들을 투표하여 투표 순위가 높은 3분의 선생님을 선정하였다. 그 중 하늘고의 영어 교사이자 특성화부를 담당하시는 김경훈 선생님을 만났다. 뛰어난 가창력의 소유자이자 무한한 유머 감각으로 하늘고 학생들을 즐겁게 해주시는 김경훈 선생님을 더욱 깊이 알아보도록 하자.

CCM 앨범을 내셨잖아요? 그 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들이 궁금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라……. 음 아무래도 CCM 앨범이다 보니까 착한 노래들을 부르잖아. 그래서 의미 있는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학생들과 함께 아프리카 난치병 어린이 돕기 자선공연을 했던 것이 가장 기억이 나. 공연장을 빌려서 아는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성금을 모으는 일을 했어. 또, 방학 때 공연 쪽으로 봉사활동도 했고 무대도 꾸미고, 또 다른 사람들의 무대 연출 같은 것도 많이 도와줬어. 학생들이랑 같이 연주도 하고 노래하고, 플루트 연주도 하고, 보컬 동아리 애들도 와서 노래도 같이 하고……. 그리고 도우미도 하고, 티켓 만들고 포스터 만들어서 붙이고 풍선 장식하고……. 의미 있는 일을 같이 해서 좋았고 무엇보다 아프리카 기아 대책 후원으로 기부했다는 것이 가장 좋았어.

또 음반 내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하늘고 학생들 돌보는 일들을 하기에 시간도 모자라서, 공부시키고 상담하고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하고 이런 일들을 하다보니까 이제는 악상이 잘 안 떠올라.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웃음) 그래도 앞으로 좀 여유가 생기고 우리 학교도 역사가 깊어지면서 보다 안정화가 되면 생각해 볼 수 있겠지? 지금은 개교 초창기니까 많이 바쁘지만 앞으로 CCM 학생들하고 음악도 만들고 자선공연이나 좋은 일들을 할 기회가 있으면 언젠가 하고 싶다.

하늘고로 웃긴 말장난 부탁드립니다. 선생님의 유머 감각을 보여주세요.

하: 하하하

늘: 늘 행복한

고: 고등학생들

유행어가 많으시잖아요. 어떤 의미로 사용하시나요?

1) “이 자~숙이~”

겉을 주기 위해서 1-3반 아이들에게 먼저 시작했어.

처음에는 무섭게 하려는 의도였는데…

2) Great!! (여러 의미로 사용된다.)

① 칭찬을 해줘야 할 때.

② 엉뚱한 소리할 때 희화화의 용도.

③ 용기를 주기 위해서.

④ 어처구니가 없을 때 쓰는 말.

3) Very Good

great 의 후속작품. 같은 의도이다.

4) No~~~~(두 가지 의미가 있다.)

① 더 어처구니 없는 발언에 반응할 때. 예를 들어 방금 가르쳐 줬는데

또 물어보거나 할 때 그 좌절감을 표시하는 것.

② 희화화하기. 할리우드 영화에서 남주인공이 위험에 처한 여주인공을

구하러 가는 장면을 보고 착안했어. (하늘나라의 첩언 — 하이톤으로 카위

선생님 시간에 하도 아이들이 no~~라고 해서 카위 선생님께서 항의가

들어왔다는 얘기도 전해진다.)

5) 또 질문

질문을 유도하기 위해서. 힘드니까 처음으로 했다가 우연히 용도를 발견했지.

왜 수업시간에 목소리 톤이 계속 바뀌시나요?

중간중간 고음과 저음으로 톤을 변화시키면서 학생들을 깨우기 위해서이고 재밌게 하기 위해서이기도 해.

대학 때 유학을 다녀오셨는데,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은 없나요?

평소에 한국문화에 관심이 많았었어. 어느 날 김치가 너무 먹고 싶어서 유학 생활 때 친해진 중국인 친구와 김치를 2만 원 어치를 사왔었지. 그런데 어느 날 냉장고에 있던 2만 원 어치의 김치가 없어진 거야. 알고 보니 미국 홈스테이 직원이 김치 냄새를 맡고 썩은 것 같다고 버린 게 기억이 나. 이 일을 계기로 한국문화를 알려야겠다고 생각해서 갈비, 잡채 등을 친구들에게 먹였었지.

또, 유학 생활 때 각국 음식 페스티벌을 하었는데 궁중 떡볶이와 매운 떡볶이를 요리했지. 주변 사람들이 처음엔 잘 알아주지 않았지만 결국엔 떡볶이가 제일 인기가 많았었지. 외국인들이 레시피를 알려달라고 제의를 했지만 주지 않았어.

결혼하시는 소감이 어떠신가요?

기분은 좋긴 한데 뜻 모를 불안감도 있고, 나이가 늦은 만큼 더 가정적인 가장이 되고 싶다는 소망이 있어. 더 진중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야. 부인은 내가 평소의 생각했던 이상형이야. 아이들 덕도 크지.

언어유희로 학생들을 많이 웃기시는데 기억에 남는 언어유희는 뭔가요?

농촌 봉사 활동 갔을 때 그릇 만드는데 시간이 남아서 무기력한 학생들에게 “배 따

러 옹기메(온김에) 근처 옹기체험장에 가서 우리 다 같이 옹기종기 모여서 옹기 그릇을 구경하며 서로의 옹기(온기)를 느껴보자” 라고 말했더니 경훈쌤답다고들 학생들이 이야기했지.

합기도를 잘 하시잖아요? 어떤 계기로 하게 되신 건가요?

지,덕,체의 합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그래서 운동을 시작했지. 합기도를 해서 군대 가기 전에는 곤지암이라는 곳에 사부님이 도장을 차려서 한 달간 산에서 수련했었어. 그리고 군대를 갔고.

난 고1 때는 야자를 하지 않고 공부와 병행하면서 기타를 치거나 헬스장을 다녔어. 2학년 되면서는 안 했어. 오로지 공부에만 집중했었지. 그렇지만 남자는 무술 하나쯤은 해야 한다고 그 당시에 생각했었어. 그래서 대학교 때도 계속 운동을 했어. 그 당시 선생님의 인생관이 그랬거든. 지금은 후회해. 젊었을 때 여행을 다니든지, 외국을 나가든지, 연애를 한다든지 그랬어야 했는데...(웃음)

어쨌든 합기도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 2개랑 동메달 3개를 땀어. 그리고 미국에 가서 생물학전공자였던 그 당시 FBI에 지망을 하는 친구에게 합기도와 쌍절곤을 가르쳐줬어. 쌍절곤을 하사하고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FBI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어. 뿌듯했었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쌍절곤과 다도세트를 미국에 가져가서 친구들과 파티를 할 때 다도세트를 풀어놔었어. 미국친구들이 캠코더로 찍었던 게 기억이 나. 또 미국캠퍼스에서 스케이트 보드를 타고 다닌 것도 기억이 나네.

Epilogue

모두의 예상대로 많은 경험을 하며 살아오신 김경훈 선생님의 인생을 짧게나마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이런 많은 경험들이 우리 하늘고등학교 학생들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다. 언젠가 김경훈 선생님의 새로운 CCM 앨범이 나올 날을 기다려 본다.

기획 인터뷰:

인생사가 궁금한 선생님 2,

- 신은재 선생님 편

● ● ●

전소연 봉수지



Prologue

하늘나라가 ‘하늘고 설명서 ver.1’을 위한 설문 조사에서 인생사가 궁금한 선생님들을 투표하여 투표 순위가 높은 3분의 선생님을 선정하였다. 그 중 하늘고의 국어 교사이자 1학년 담임이신 신은재 선생님을 만났다. 다양한 직업과 경험을 토대로 하늘고 학생들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시는 신은재 선생님을 더욱 깊이 알아보도록 하자.

집 근처에서 유물이 발견된 적이 있었다는데, 그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생활의 발견’이라는 영화의 배경이 선생님이 어렸을 때 살았던 경주야. 지금은 그 자리에 공원이 세워져서 내가 어릴 적에 지냈던 그 공간은 현실에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 그 어렸을 때, 우리 집 옆에서 나무를 심으려고 땅을 팠는데 항아리가 나왔어. 그 때는 너무 어려서 그 항아리가 가치 있는 유물이라는 사실을 몰랐지. 뿐만 아니라 침성대나 반월성처럼 어린 시절 등하곶길에 매일 봤던 그런 익숙한 풍경들이 국사책에 실려 있고, 어떠한 역사적 가치를 지닌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했을 때는 미묘한 충격을 받았어. 그 경주라는 공간,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그런 것들이 지금 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감수성을 만들어준 것 같아. 결국 그 때 발견했던 유물들도,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공간에서의 어린 시절을 장식하는 한 부분이고, 가장 익숙했던 것들이라고 할 수 있어.

야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셨다는데 그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야학이라는 곳은 기본적으로 정규 교육과정을 제대로 밟지 못한 사람들을 가르치는 곳이야. 학창 시절에 우연히 매체에서 야학이라는 단어를 들었는데 그제 시간이 지나도 또렷하게, 강렬하게 인상이 남았어. 특별한 목적이나 이유가 있긴 것은 아니었지만 ‘언젠가 한 번쯤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늘 하고 있었지. 그리고 내가 허름한 청바지에 낡은 티셔츠를 입고, 머리를 질끈 동여매고 배움의 혜택을 받지 못한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을 항상 상상했어. 그 상상 속의 사람이 나이기를 바랐던 것 같아.

결국은 그 상상을 실제로 만들었어. 그 일에 더 집중하고 싶어서 휴학까지 했지. 처음 야학에 갔을 때 환경은 열악했고, 학생은 수십 명인데 선생님은 둘 뿐이라 바빴어. 그러다 다른 선생님이 그만두고 더 바빠졌지. 그래서 친구들을 데리고 왔어. 처음엔 나 한 명이었지만 결국 선생님은 12명까지 늘어났고 그때서야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어.

야학이 교사로서의 경험을 쌓는 역할을 한 것인가요?

야학을 했다고 해서 학교에 가서 교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 그 때는 그저 ‘야학’이라는 단어에 매혹되었을 뿐이었어. 하지만 막상 교사가 되고 난 후에는 그때의 경험들이 도움이 많이 되었지. 지금은 또 섬에 있는 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기도 해. 그 곳에선 더 즐겁게 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막연한 환상이 있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가봐야 알 것 같아. 좌충우돌 끝에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지프차를 몰고 다니시는데, 혹시 바꾸실 생각은 없으신지……?

없어. 아버지가 쓰시던 차를 물려받은 건데, 아버지한테 굉장히 의미 있는 차이기도 하고, 물건에 욕심도 없어서……. 오래 사용한 물건을 잘 못 버리는 것 같아. 집엔 20년 된 수건도 있고 지금 타고 있는 시계도 24살 땀가 첫사랑한테 받은 선물이야.

차를 본 주변 반응은 어떤가요?

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원피스를 입고 트럭 운전석에서 내릴 때 다들 놀라지. 그래도 나를 지켜본 사람들은 다들 나랑 잘 어울린다고 말해. 눈이 오면 우리 학교에서 그 길을 뚫고 갈 수 있는 얼마 안 되는 차 중에 하나야. 아 그리고 다들 내가 운전 못 한다고 생각하는데 나 운전 잘하고 측면주차도 잘해. 화물차 뒷 칸에 다른 선생님들도 많이 태워. 김민희 선생님은 한 번 타시고는 학을 떼고 가셨고 차 뒤에 실려 있는 연장보고 놀라시는 분도 계셨고. 내 생각에 내 차에는 이중언 선생님이 가장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 쇠창살 안에 갇혀 있는 곰 한 마리를 보는 느낌이랄까.

이상형이 ‘뇌가섹시한 남자’라고 하셨는데, 무슨 의미인가요?

이렇게 말하긴 좀 그렇지만, 나는 가끔 보통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많이 해. 그래서 누군가 나를 온전히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내 동반자면 좋지. 대화가 잘 통하고, 나를 이해해 줄 수 있으면서도 지적인 능력이 있어서 대화를 나눌수록 충만해지는 느낌이 드는 사람이 내 이상형이라고 생각하면 돼. 사람은 기본적으로 외롭잖아. 그래서 나는 누군가와 동질감을 느끼고 싶어. 오롯이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외로운 세상을 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표현이 독특하시네요.

내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달라서 그런가봐. 나는 생각이 많은 사람이거든. (생각이 많다는 말씀을 하실 때는 항상 조심스러워 하셨다.) 그런 것들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바라니까, 상대방도 생각이 많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뇌가섹시한 사람은 오랫동안 봐야 알 수 있어. 외모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혹시 운명적인 사랑을 기다리시나요?

사실 반쯤 포기했지만 여전히 기다리는 것 같아. 김경훈 선생님을 보면 역시 사람은 은 모르는 거잖아. 내가 내년에 1인 1예 1체를 담당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 (웃음)

전에 1:100에서 우승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KBS에서 일할 때, 밤새 일하고 난 다음 날 PD한테서 연락이 온 거야. 방송에 나올만한 차림이 아니라고 하니 조명이 비치지 않는 구석 상단에 배치되었어. 그런데 신기하게도 대부분의 문제가 내가 경험한 것에서 나온 거야. 예를 들면 어제 봤던 신문, 알고 있던 접두사 문제 이런 것들이. 마지막 문제는 찍었는데 천운이었는지 찍은 게 맞았어.

지금까지 여러 경험을 하셨는데, 직업을 고르는 학생들을 위한 조언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나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거의 매일 신문을 봤어. 너무 익숙한 매체가 신문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지. 우리 사회가 사실 고등학교 때 본인이 원하는 직업을 찾을 기회가 적잖아. 학생들은 주로 그 직업이 가지는 이미지에 현혹되는 것 같아.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원한다고 생각했던 직업을 가졌을 때 생각하지 못한 벽에 부딪히고 방황하는 것 같고.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잘해야 할 것은 선택이라고 생각해.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그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 같아.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노년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인생을 살다가 숨이 턱턱 막히는 순간에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어. 그 장면들은 내가 원하는 순간이고, 그렇게 내가 원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루어졌던 것 같아. 운이 좋았던 것일 수도 있지만 단언컨대 나는 노력을 했던 사람이고 시간을 촘촘하게 썼던 사람이야.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내가 무언가를 성취한 순간에 배 아파한 적이 없는 것 같다. 다들 내가 한 노력에 합당한 대가라고 해줬어. 대학에 붙었을 때도, 기사시험에 합격했을 때도 그랬었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노년은, 또 힘든 순간에 떠오르는 그 장면을 실현시키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Epilogue

구사하는 단어 하나하나에 생각의 깊이가 느껴지는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 보았다. 많은 경험은 많은 노력에서 왔음을 알 수 있었다. ‘뇌가 색시한 남자’를 꼭 만나셨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인터뷰를 마친다.

기획 인터뷰:

인생사가 궁금한 선생님 3,

— 이중언 선생님 편



● ● ●

배 승 욱

Prologue

‘하늘나라’가 ‘하늘고 설명서 ver.1’을 위한 설문 조사에서 인생사가 궁금한 선생님들을 투표 하여 투표 순위가 높은 3분의 선생님을 선정하였다. 그 중 하늘고의 국어 교사이자 1예 1체에서 절권도를 담당하시는 이중언 선생님을 만났다. 외관상으로는 국어 선생님을 연상하기 어렵지만 우리에게 국어와 논술을 가르쳐 주시는 이중언 선생님을 더욱 깊이 알아보도록 하자.

Interview

하늘고로 오시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계속 사립학교에 근무했고, 또 근무하던 학교들 대부분이 역사가 깊은 학교들이 많았어.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평균 연령이 상당히 높았고, 교직 경력도 10년이 넘어가는 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계속 막내로 근무를 하게 되었지. 그러다 보니 내가 상상하거나 꿈꾸는 일들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들이 쉽지 않았어. 생각해 보니 계속 이렇게 지내면 40대까지도 막내로 지내게 생겼어. 그래서 신설 학교로 옮겨야겠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7년 정도 인천에서 근무하면서 인천이라는 지역에 정도 많이 들고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나게 되었지. 그래서 인천을 떠나기 싫었는데 마침 하늘고등학교가 개교했다는 소식을 들었지. 학교의 설립 취지도 매우 공감되어 좋았고, 좋은 학생들과 다양한 수업도 할 수 있다고 생각되었어. 그렇게 내가 생각하고 꿈꾸던 것들을 실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곳이라고 판단해서 교사 채용에 응시하게 되었고 결국 지금 너희들을 가르치고 인터뷰도 하게 된 거지.

선생님하면 절권도를 빼놓을 수가 없죠? 어떤 계기로 배우게 되신 건가요?

이 얘기를 하면 누구나 웃지만 어릴 때 몸이 많이 약했어. 태어날 때 2.2kg의 미숙아로 태어나서 많이 아프기도 했고 몸이 약하다 보니 이를 걱정하신 부모님께서 나를 유치원 대신 스포츠센터에 보내셨어. 5살 때부터 운동을 하게 되었지. 그러다 보니 운동은 그냥 삶이 되었어. 5살 때부터 30살 정도까지는 항상 운동을 했지. 수영 선수를 하기도 했고, 특공무술, 보디빌딩도 했었지만 웬지 늘 부족함이 있다고 느껴져. 근데 이모부께서 예전에 태권도 선수셨는데 내가 어릴 적부터 절권도 얘기를 자주 해주시곤 했지. 그래서 관심은 있었지만 한국에서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었어. 하지만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고 결국 가르치는 분을 알게 되었고 처음엔 도장이 없어서 그 분 집에서 배우기 시작했다가 도장도 생기고 해서 배우게 된 거지. 절권도를 배우면서 아이스하키도 배우게 되고 좋은 경험들이 많았어.

운동 때문에 대만에 다녀오신 적도 있다는 데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들이 있다면?

대만에 가서 운동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오래 머물렀던 것은 아니고…. 처음 대만에 갔을 땐 아는 중국어가 인사말과 숫자 세는 것밖에 없었어. 그러다보니 물건을 사거나 밥을 먹을 때 엉뚱한 말을 해서 소소한 사건과 사고가 많았지. 지면상으로 얘기하기엔 너무 길고……. 언젠가 수업 시간에 만나다면 들을 수 있겠지? 이미 들은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기억에 남는 일은 운동을 가르쳐야 할 일이 있었는데, 가르치러 가보니 사자춤을 추는 사람들이었어. 그런데 전신에 문신을 하고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중국의 유명한 조직인 흑사회의 하부 조직원들이었어. 근데 그 때는 그게 뭐 별거 있냐고 나한테 배우는 사람들인데 이런 생각으로 막 대하며 가르쳤지.(웃음) 근데 실력을 인정받으니까 굉장히 깎듯하게 대해주었어. 하루는 배우던 사람 하나가 팔 전체에 김스를 하고 나타났어.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어제 배운 걸 써보고 싶어서 사고를 쳤다고 하더라고. 길게 가르치지 않은 게 다행이야.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있다 보면 자꾸 시비가 걸리고 싸움이 일어나고 해서 굉장히 피곤했거든. 그래서 더 이상 가르치러 가지 않았지. 물론 한국에 돌아와야 하기도 했고. 그 외에도 참 많은 일이 있었지만 이것도 지면으로 얘기하기엔 쉽지 않네.(웃음)

배 전체가 근육이라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정색한 채로) 내 몸을 보고 그게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하나? 배를 제외하고는 근육량이 많다는 답변으로 대신 합니다…….(웃음)

사모님과 러브 스토리가 궁금합니다.

우리 집사람은 예전에 내가 근무하던 학교 매점 사장님의 큰 딸의 대학 동기야. 복잡하지?(웃음) 그 사장님께서 여자 분이셨는데, 따님이 두 분 있었어. 두 분 다 미인이라 학교에 어머니 일을 도와주러 오면 매점 매출이 엄청 올랐었지. 남녀 공학이었는데 남학생들이 몰려와서 말이야. 어쨌든 사장님께서 나를 좋게 보셔서 처음에는 사장님 큰 딸과 만나보는 게 어떠냐고 물어보셨는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그렇게 하지 못했어. 그리고 그 학교를 떠났고 두 해 정도 지나서 사장님께 연락이 왔어. 문득 생각이 나서 보고 싶다고. 그래서 인사드리러 갔더니 그 큰 따님 분이 배가 많이 불러 있더라고. 우리 딸은 결혼해서 아이까지 출산하려고 하는데 나보고는 결혼했냐고, 안 했으면 결혼할 사람은 있냐고 물어보셨어. 그 땐 솔로였지. 그래서 없다고 하니까 펄쩍 뛰시면서 왜 혼자 지내냐고. 큰 딸에게 당장 친구들 소개시키라고 엄명(?)을 내리셨지. 그래서 처음으로 소개받아서 사귀는 사람이 지금 아내야.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 결정하고 9개월 만에 결혼했지. 그래서 많이들 물었어. 그렇게 한눈에 서로 반했냐고. 아니었거든.(웃음) 서로 소개받고 나서는 그냥 시큰둥했었어. 근데 인연이라는 게 대단한 것들이 아니라 소소한 것들로 쌓여가면서 순간 이루어지는 것이더라. 불같은 사랑은 아니었지만 돌솥 같은 사랑이랄까? 근데 그 느낌이 굉장히 좋았어. 좋은 느낌이 이어지자 결혼하는 것은 불타는 속도로 이루어졌지.(웃음) 지금도 은은하게 사랑을 이어가는 부부로 살아가고 있단다.

참 여담으로.... 인연이라는 것이 참 재미있는 게, 우리 부부를 맺어주셨던 그 사장님께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옆 동네 살고 계시더라고. 깜짝 놀랐어. 인연이라는 거, 참 놀랍지? 앞으로도 어떤 사람과 어떤 인연으로 엮힐지 알 수 없으니 우리 모두 착하게(?) 살자.

화려한 인맥을 자랑하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

화려할 것까지 있나. 이젠 연락도 이어지지 않는데. 운동을 할 때 가르치기도 했고, 그러면서 식사도 같이 하면서 알게 된 분들이 있지. 운동할 때 처음으로 연을 맺은 분은 배우 김수로 씨였어. 성격도 쾌활하고 예의바른 형이었지. 운동도 열심히 했고. 참 고마웠던 게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상갑집까지 왔었어. 마음이 따뜻한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었지. 그리고 김수로 씨가 장혁 씨를 데리고 왔어. 운동을 배웠던 연예인 중에 가장 열심히 했던 연예인이었지. 가끔은 지나치게 진지해서 재미있기도 했고. 참 순수한 사람이라는 기억이 있어. 열심히 하다보니 요즘도 그 운동을 잘 사용하고 있더라. '잠복근무'라는 영화를 촬영할 때는 김선아 씨가 와서 종종 운동하곤 했지. 여성인데도 운동 능력이 뛰어나서 감탄했었지. 미트를 잡아주는 데 어설픈 남자들보다 더 잘했어. '늑대의 유혹'이라는 영화를 촬영할 때는 강동원 씨와 조한선 씨가 운동을 했었지. 조한선 씨는 자주

보지 못했고 강동원 씨는 몇 번 봤는데, 그 때가 조금씩 이름을 알리고 있을 때라 그랬는지, 지금도 그럴 거라 믿지만 겸손한 모습이 좋았어. 그 외에도 유선 씨나 데니스 오 그리고 주연 배우들은 아니지만 같이 와서 열심히 운동하던 다른 배우 분들도 있었지. 그 팬 무명이었지만 지금은 이름을 알린 임형준 씨도 있었고, 진지한 사람들도 있었고, 시끄러운 사람들도 있었지만 다들 재미있게 지냈어. 이번에 교지 인터뷰하면서 기자하는 친구를 통해서 김성근 감독님도 만났구나. 하하.

더 있냐고? 가르쳤던 학생 중에는 ‘어반자카파’로 활동하고 있는 조현아가 있구나. 노래를 참 잘했고, 음악을 사랑하는 아이였어. 아이들이 고3 때 지쳐 있을 때 현아가 1반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실을 돌면서 아이들에게 노래를 해줬었어. 그 노래들이 복도를 타고 들려오면서 울적해 하던 아이들이 힘을 얻는 모습을 보면서 현아가 분명히 뭔가 되리라고 생각했었지. 근데 어느새 유명한 가수가 되었네. 하하.

리즈시절이라고 불릴만한 사진을 공개해 주세요.

항상 리즈라고 생각한다.(웃음) 그리고 명색이 국어 선생님인데 어쩌면 국어나 교사 관 등에 대한 질문은 하나도 안하니? 진짜 내가 내년부터는 1예 1체 강사로 바뀌어야하나 ㅠ



Epilogue

엠타~, 진정한 리즈 시절과 8년 전 사진이다. 인터뷰 질문지를 만들면서도 국어와 관련된 질문을 만들지 못한 우리를 책망하셨지만, 학생들이 선생님께 궁금한 내용이 국어와 관련된 내용이 아닐 것임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우리 하늘고등학교 학생들의 많은 부분을 채워주실 것이라 믿으며 내년에도 활기찬 선생님의 수업을 기대해본다.

특집기획:

하늘고 설명서 ver. 1 〈장소〉 편

● ● ●

임성준

‘하늘나라’에서는 하늘고를 좀 더 사실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하늘고 설명서 Ver.1’을 기획하였다. 이번 설명서에는 하늘고의 각 장소들과 선생님들에 대한 학생들의 목소리가 담겨 있다. 설명서를 통해서 하늘고의 장소들과 선생님들에 대한 여러 학생들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았다.



강당

- + 하임의 아지트 + 체육관과 혼동되는 곳 + 별자리 그림이 예쁜 곳
- + 하늘고 남녀칠세부동석의 시초 + 내 마음이 가장 편해질 수 있는 곳
- + 잠의 요정이 커튼 뒤에 숨어 있나 봐
- + 인간과 문화, 생각하기와 표현하기 수업 듣는 곳
- + 방송으로 오라고 부르면 좋은 일이지 안 좋은 일이지 궁금하게 만드는 곳



강의실

- + 집처럼 익숙한 곳 + 온갖 드림이 난무하는 곳
- + 엄중과 난동이 교차하는 곳 + 7시~18시까지 계속 사는 곳
- + 친구들과 선생님께 지식을 배우는 곳



관리실(기숙사 사감실)

- + 이동증을 내려 가는 곳 + 택배를 찾는 즐거운 곳
- + 조기 입실의 마지막 관문 + 휴지, 약품 등 물품을 챙김
- + BCR과 SAVE GREEN 상 받는 곳
- + 아침 기상송이 울려 퍼지는 그곳
- + 생활지도교사실. 사감 선생님들이 계심
- + 생활지도부실(학생부)와 혼동하기 쉬움



교과동

- + 교실의 나열 + 인구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는 곳
- + 3학년이 B동을 고정 교과동으로 사용하고 있음
- + 교과동 B는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하여 전력을 만들
- + 운동장과 가까운 교과동이 A동이고 구석에 있는 것이 교과동 B임
- + A동과 B동의 구분을 잘 못하는 학생이 많음



교무실

- + 핫 플레이스 + 들어가면 인사 최소 10번
- + 선생님 자리를 미로처럼 찾는 곳 + 시험 기간에는 출입금지 되는 곳
- + 교사실이 교무실로 쓰이는 경우도 있음
- + 방송에서 “교무실로 오세요.” 라고 한다면 본교무실일 확률이 크다
- + 잘 보일 사람도 없으면서 괜히 옷매무새를 다듬고 들어간다



교문

- + 판문점 + 이별의 장소 + 외부와의 연결 통로
- + 학교로 들어올 수 있는 문



교사실

- + 상담, 질의응답의 장소
- + 교무실로 쓰이기도 함



교사 휴게실(사진은 5층 미술실 쪽 교사 휴게실)

- + 학생들에겐 미지의 공간
- + 선생님들이 쉬는 곳이나 한 선생님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신다고 함
- + 이동 하다보면 졸린 눈을 한 선생님들이 나오는 것을 목격할 수 있음



교장실

- + 범접할 수 없는 곳 + Sky life 설치되어 있는 곳
- + 청와대, 백악관, 알카에다 기지 + 강석훈 교장 선생님이 계신 곳
- + 행정실을 통해 들어가야 하는 미지의 세계
- + 교장 선생님께 찾아가면 무언가를 주시는 곳
- + 중요 외부 인사들께서 교장 선생님과과의 만남을 위해 들어가는 곳



그린 아트리움

- + 자연 친화적인 공간 + 귀뚜라미 등 곤충들의 서식지
- + 천장의 햇빛을 받아 식물들이 자람



급식실

- + 제육볶음 + OUR HOME + 소파 쟁탈전 + 내 에너지의 원천
- + ○○ 누나 밥 치워 + 김정균 조리실장이 마스크트임
- + 언제나 신나게 먹을 수 있는 곳
- + “안녕하세요, 쯤만 더 주세요, 감사합니다.”를 제창함
- + 매점 국물 라면의 등장으로 경쟁의식 느끼고 있는 곳
- + 이주머니들과 조리장님들의 헌신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 식판의 색깔을 먼저 보게 되는 곳(노란색, 초록색 메뉴는 고품격 급식임)
- + 여학생 하루 평균 이용시간 : 40~80분
- + 남학생 하루 평균 이용시간 : 10~30분



기숙사

- + 잠만 자는 곳
- + 내가 한 달 뒤에 아이팟 받을 곳
- + 여름에 문 열면 곤충의 던전이 된다
- + 이젠 기숙사를 집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 + 기숙사에서 몰래 먹는 라면이 꿀맛이다
- + 1층, 2층, 3층 일부는 남학생들이 3층 일부, 4층, 5층은 여학생들이 사용
- + 창문을 열었을 때 시원한 백운산 산자락의 바람이 나의 컷불을 건들면 언제나 탈출 욕구가 샘솟는 곳



대강의실

- + 테테노프의 추억
- + 201호 강의실 바글바글
- + 주로 한 학년 전체 소집
- + 월드컵 때 새벽 경기를 보여줌
- + 인원이 많은 수업 교실로 사용
- + 대회의실과 헛갈려 하는 학생 많음
- + 토요일 날 1예 1체 안하는 학생들 자습하는 곳
- + 수행평가, 경시대회 등 각종 시험장소로 쓰임



대회의실

- + 선생님들 회의실 + 질의응답 하는 곳 + 멘토 멘티가 진행되는 곳
- + 교무실 옆 대회나 캠프 참가자, 영재 교육 학생들의 모임 장소
- + 교무실 앞에서 전달 할 때 혼잡이 예상되는 경우 대회의실에서 모임



도서관

- + 동아리 DPC의 활동 장소 + 도서관 특유의 냄새가 있음
- + 아름다우신 사서 선생님이 계심
- + 안도현 시인과의 만남을 가졌던 곳
- + 1층과 2층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1층에는 컴퓨터가 있음
- + 학기 중에 방과 후 수업이 없는 학생들이 이곳에서 자습을 함



동아리실

- + 체육관 갈 때 한 번씩 쳐다보는 곳
- + 왜 있는지 몰라 설산 위의 소나무처럼 외로워 보인다



드림 가든

- + 선생님들의 산책 공간
- + 운동장과 이어짐. 눈썰매나 자전거를 타면 재미있음



라크로스실

- + 우리 학교 대표 스포츠가 행해지는 곳
- + 원래 용도는 동아리실이지만 라크로스 장비 보관 및 라크로스 선수들 소집 공간으로 사용함



매점

- + 행사 제품 특히 많이 팔림 + 복사용지가 걸려 있으면 화가 나는 곳
- + 영종도에서 장사가 제일 잘될 것 같은 공간
- + 아이스크림 2+1 가워바워보 해서 지면 억울한 곳
- + 대학 수시에 합격한 선배들이 아르바이트 했던 곳
- + 아침을 안 먹은 자들이 아침 9시에 성지 순례하는 곳
- + 2013년 9월부터 국물 컵라면 판매라는 역사적 사건이 일어남
- + 가끔 자일리톨 광고에 나온 카워 수완(카워 선생님 따님)을 볼 수 있음
- + 심주석 선생님께서 가끔 매점에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시기도 함
- + 아 배불러 하고 들어가는 곳, 아 돈 아껴야지 하고 들어가는 곳, 아 살 빼야지 하고 들어가는 곳



멀티미디어실

- + 속칭 멀미실
- + 담임선생님께 이동증을 끊고 기숙사에 제출해야하는 복잡한 절차로 입장권을 얻음
- + 『왼편의 창문과 오른편의 문을 조심할 것』



면학실

- + 2번째 생활공간 + 자습의 공간(중의적 표현)
- + 나 빼고 애들 공부하는 곳 + 꿈 그리고 열정을 실현하는 공간
- + 하늘고 인생의 50%를 보내는 곳
- + 수능 끝나기만 해봐라 탈출할 테다



무용실

- + 교복 사이즈 잴 때 사용됨
- + 드라마 촬영지(닥치고 꽃미남 밴드)
- + 안 그래도 짧은 다리 더 짧아 보이게 하는 거울이 있는 곳



물리 실험실

- + R&E 하는 곳
- + 강의실로 활용
- + 내 물리 점수는 그러하다
- + 물리동아리 HTTP의 활동 장소



물의 정원

- + 이름과 다르게 물이 없다는 것이 함정
- + 이런 게 있었나 하고 오랫동안 생각해 본 결과 학교 앞의 물웅덩이가 그곳임을 알게 되는 장소



미디어 스페이스

- + 미스 + 극한의 추위 + 세계와의 통로 + 타락한 인터넷 정원
- + 꿈과 희망과 미래의 장소 + 칫솔을 물고 있는 경우가 있음
- + 창가 쪽 자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 + 일요일 오전 쉬는 시간에 유입인구가 많음



미술실

- + SOC의 활동 장소 + 예술의 혼을 펼치는 곳
- + 발코니가 탁 트여 맘에 드는 곳
- + 3년 동안 한 학기 수업 듣는 곳
- + 하늘고의 최고 높이에 위치한 교실
- + 애니메이션 제작소로 특히 작년에 학생들이 제작한 애니메이션이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와 커다란 파란을 불러일으킴
- (학교 홈페이지에 영상 있음. 공지사항 - 하늘고 홍보 애니메이션)



발코니

- + 탁 트인 마음의 휴식처 + 답답할 때 나오면 좋은 곳
- + 가끔 햇빛을 쏘이는 광합성의 장소
- + 멀리 인천 바다가 보이면 마음이 상쾌해짐
- + B동은 체험마당과 A동의 미디어 스페이스가 보이고 A동은 운동장이 보인다



방송실

- + 장비 우수 + 관계자의 출입금지
- + 함부로 장난치다가 뭐 부서지면 우리 집 팔아야 함
- + 하늘고등학교 홍보 동영상에서 완전 멋있게 나온 그곳
- + 매주 화, 목요일 아침 상미쌤이 Hello! everyone I'm Sangmi Lee!를 말씀하시는 곳



밴드부실

- + 노래방 + '루미난트' 활동 장소
- + 동아리실 근처에 있음 + 방음 시설이 잘 되어 있음



보건실

- + 목숨을 구해 주는 곳 + 예쁜 보건 선생님이 계심
- + 아픈 아이들이 외출증을 끊는 곳
- + ACE 침대가 있어 언젠가 가서 자보고 싶다
- + 나의 마음도 고쳐주세요. 괜히 엄살 부리고 싶은 곳



본관

- + 대리석 바닥
- + 교과동, 기숙사로 이동하는 모든 통로의 핵



브릿지(5층 발코니)

- + 많은 학생들이 몰려 있음
- + 하늘고에 들어온 산새들이 가끔씩 쉬어 가는 곳



사색 마당

- + 5층 면학실 사이에 있음 + 입구가 없는 마당
- + 면학실 탐방 결과 면학실과 연결된 문 하나가 발견됨.



상담실

- + 과거 면회 장소 + 외부 손님 접견 장소
- + 교복을 전시해 놓는 곳
- + 소파와 간단한 음료 구비. 포근한 의자가 있는 곳
- + 상담을 하는 곳으로 사용되지 않는 곳
- + 첫 면회 온 부모님과 폭풍 수다를 떨며 외부음식 피자과 치킨을 먹었던 곳



사위실

- + 청소 여사님들이 청소 기구를 놓는 곳
- + 있는 건 봤지만 한 번도 이용할 수 없는 포비든 킹덤
- + 거의 아~무도 사용하지 않아 가끔씩 사람이 나타나면 당황하는 곳



생물실험실

- + 생물동아리 바이오팜의 집 + 웬지 해부를 해야 할 것 같아……
- + 생물 I, II와 AP biology의 수업이 진행되는 곳
- + 개구리 실험과 양파 뿌리 세포의 분열 과정을 관찰했던 곳
- + 승주쌤 (총 27명의 학생들이 생물 실험실의 정의에 '승주쌤' 이라고 대답함)
- + 2학년 ○○○ 학생은 '진짜 이과 애들 부럽다. 실험 많이 하고……' 라는 반어법(?)이 의심되는 멘트를 남김



생활지도부실(학생부)

- + 학생부장 이강봉 선생님을 봉봉 부장님이라고 부름
- + 웬지 모르게 무서워서 심호흡 3번 하고 들어가는 곳
- + 들어갈 때 '몇 학년 몇 반 누구입니다. 어떤 용무로 ○○○ 선생님 뵈러 왔습니다.'를 제창해야 함



세미나실

- + 조성철이 전교 회장으로 당선된 곳
- + 학생회 회의라는 도발적인 국제 행사가 발생하는 곳



세탁물실

- + 시간 규칙이 철저한 곳
- + 덕분에 옷걸이가 많이 생긴 곳
- + 가끔 양말 없어지면 맑은 ‘뽕침’
- + 수건을 비롯한 세탁물을 받음. 세탁물은 성별, 학년 별로 수거 요일이 정해져 있음
- + 간주 우주 쌍둥이 어머니님과 유리 어머니님께서 구수한 인사로 맞아 주시는 곳



수돗가

- + 관상용 + 아무도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운동장 구석에 있다
- + 운동장 트랙을 돌고 세수할 때 사랑스러웠던 곳
- + 물은 안 나올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물이 나온다(단, 겨울에는 물이 나오지 않는다)
- + 2학년 문학 시간에 이용악의 ‘오랑캐꽃’을 배우던 중 한 학생이 수돗가에서 오랑캐꽃을 채집하여 김민희 선생님께 드림



안내실

- + 교복방
- + 입학 시즌에 신입생들이 자기소개서 내려 오는 곳



어울림 마당

- + 이 사진이 어울림 마당이다



어학실

- + 컴퓨터들의 무덤
- + 어학실 첫 번째 사진은 존 카워 선생님과 과거 테테노프 선생님 등 외국인 선생님들의 교무실, 두 번째 사진은 존 카워 선생님이 수업하시는 곳, 세 번째 사진이 '컴퓨터들의 무덤'임.



엘리베이터

- + 거울이 얇다 + 하늘고에서 가장 바쁜 무생물
- + 타고 싶지만 내게 오지 않는 것
- + 기숙사 엘리베이터는 남자애들이 못써서 쪼매 미안
- + 지방 축적기로 다리 아프고 귀찮을 때 이용하는 곳
- + 화면의 영어 숙어가 나오면 한번 보았다가 까먹는다
- + 다리 깎스하고 엘리베이터 쓰는 애들 보면 불쌍함
- + 이성끼리 엘리베이터를 타면 괜히 뽀뽀하고, 맛있는 척, 예쁜 척 다 한다



연결 데크

- + 겨울철의 찬바람이 거센 곳 + 기숙사로 들어가는 천국의 계단
- + 본관에서 기숙사로 들어가는 통로
- + 자습이 끝나고 나면 관장님께서 해맑게 맞아 주심
- + 처음 입학했을 때는 엄청나게 길어 보였는데 지금은 조금 짧아짐



연결 브릿지

- + 브릿지의 위쪽은 오작교
- + 교과 A동과 B동을 연결한다
- + 하늘고 전경이 보이는 아름다운 곳임
- + 애매한 사람 마주치면 인사하기 민망하여 밖을 쳐다보는 곳





운동장

- + 수돗가가 있음 + 아침점호 하는 곳
- + 폭신한 인조 잔디가 마음에 드는 곳
- + 라크로스 골대와 경기장 라인이 있음
- + 남자애들이 축구하고 여자애들도 축구하는 공간
- + 축구도 좋지만 야구도 하는 곳
- + 2학년 ○○○ 학생은 '운동장에서 하늘을 보면 예뻐'이라고 답함
- + 모 문제집의 TV광고에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는 곳으로 나옴



음악실

- + 1학년 전용 + 오케스트라 동아리 Cielo의 활동 장소
- + 예쁘고 따뜻한 음악쌤과 함께 하는 곳
- + 2학년 여러 친구들이 간식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노래 부르는 공간
- + 아 진짜 우리 학교 음악실에서 영화 '말할 수 없는 비밀' 같은 일들이
내게 일어나면 좋겠다! ㅋㅋㅋ ㅠㅠ
- + 그랜드 피아노, 더블 베이스, 가야금, 해금 등 다양한 고가의 악기를 대량
보유하고 있음. 피아노가 한 대씩 있는 개인 연습실



인쇄실

- + 있긴 하겠지만 어디에 있는지 모름
- + 지문인식으로 들어간다는 소문이 있음
- + 학생들은 물론 선생님들도 가끔 출입 금지
- + 살면서 본 가장 비싸고 커다란 인쇄기가 있는 곳



전산실

- + 기사님끼만 출입 허용 + 멀티 미디어실 앞에 위치한 미지의 공간
- + 남영쌤께서 세콤을 부르신... 전설의 장소!



주차장

- +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 곳 + 겨울에는 차가움, 여름에는 차가움
- + 지하 주차장과 지상 주차장이 있음
- + 컨퍼런스 때는 부모님들의 차가 많아져 특히 붐빔
- + 컨퍼런스 끝나고 학교에 들어올 때 상쾌한 마음으로 다시 들어오는 곳



진입마당

- + 기념석에서 교훈(校訓)을 볼 수 있는 곳
- + 벚꽃나무가 있는 거리임
- + 가지처럼 뻗어 있는 보도블록이 아름다운 곳



체력 단련실

- + 몸무게 재고 눈물 나는 곳 + 1인 1제 헬스에서 사용
- + 에어컨을 설치해 주었으면 함
- + TV가 있는 러닝머신이 있고, 한쪽 벽면이 거울임
- + 이 장소는 사용하지 않기에 우리들의 삶을 불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체육관

- + 강당과 햇갈림 + 자연광 조절 가능
- + 무용실이 함께 붙어 있다 + 하늘고 입학설명회를 하는 곳
- + 하늘고의 장엄함을 처음 경험하는 곳
- + 농구 골대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함
- + 교장 선생님의 명언을 들을 수 있는 곳
- + 농구, 피구, 배구, 넷볼도 할 수 있는 재미있는 곳
- + 여자들의 수다와 그나마의 운동을 하게 해주는 공간



체험마당

- + 교과 A동과 B동 사이의 공간 + 가끔 야외 수업 장소로 활용됨
- + 계단의 착시효과가 위험천만한 공간
- + 드라마 '상어'에서 예쁘게 나온 그 곳
- + 매화나무 꽃과 살구나무가 참 어여쁜 공간
- + 3학년 1기 선배님들을 위하여 '플래시몹'을 진행한 장소
- + 날씨가 좋으면 아이들이 하나 둘씩 나와 떠들고 노래를 부름



푸른 가로수길

- + 여름에는 푸른 잎이, 가을에는 낙엽이, 겨울에는 흰 눈꽃이 학교의 전경을 아름답게 만든다.



탁구장

- + 주로 1, 2학년 남학생들이 애용함
- + 1인 1매 1체 탁구 수업이 이루어지는 곳
- + 너무 덥거나 추울 때는 헬스장이나 체육관에서 탁구를 치
- + 탁구장 건너편에서 체육대회 응원전의 연습이 자주 이루어짐



탈의실

- + 여기서 옷 갈아입어 보고 싶음
- + 탈의실인데 왜 유리창이 있는 건지 모르겠음
- + 탈의실은 홈베이스 옆에 위치하며 사용되지 않음



특기 교과실

- + 각종 탐구 과목 수업이 진행됨
- + 교실 끝에 위치한 엔드 오브 교실



학생회실

- + 전교 학생회장과 부회장만 사용할 수 있는 장소로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 장소와 정체를 알지 못한다. 추운 구석에 위치하지만 학생회 일을 하기에는 안성맞춤이라고 한다



행정실

- + 교장실 옆에 있다
- + 가끔 간식 주는 곳
- + 에어컨을 다스리는 곳
- + 야, 오늘 급식 맛있니?
- + 유리 깨뜨리면 가는 곳
- + 복사 카드를 살 수 있는 곳
- + 하늘고의 각종 행정 업무가 이루어지는 곳
- + 마음이 편해지는 따뜻한 선생님들께서 계신 곳



홈베이스

- + 나만의 창고
- + 제2의 개인 매점
- + 햄스터의 두 볼 같은 곳
- + 하지만 언제 털릴지 모른다
- + 책, 신발, 악기를 비롯한 잡동사니를 보관하여 사용 빈도 높음



화학 실험실

- + 화학쌤 서식지
- + 김민경쌤 보고 싶어요
- + 화학 동아리 'Alchemist'가 활동하는 곳임



화장실

- + 비누가 없다 + 아침에는 남녀 공용
- + 층이 높아질수록 팔을 높게 들
- + 시험 시작 10분 전에 꼭 들리는 곳
- + 변기 열기 전에 뭐가 있을지 긴장하게 되는 곳



활력 쉼터

- + 기숙사 사감실 앞 정자가 놓여있는 곳임
- + 백운산과 붙어 있어 가끔 등산하시는 분들을 볼 수 있음
- + 여름이면 벌레들의 천국

특집기획:

하늘고 설명서 ver. 1 〈선생님〉 편

● ● ●

봉수지

수능이 가까워 올 때 시행했던 설문 조사라 3학년에 들어가는 선생님들에 대한 조사가 부족한 점이 아쉽습니다. 죄송한 마음 전하며…….

강석윤 교장 선생님

- + 아침조회 멘탈 브레이커 + 사소한 일에 엄청 기뻐하심
- + 인사하면 항상 받아주시는 분 + 우리학교에서 귀여움을 맡고 계심
- + AABA구조의 연설은 항상 귀에 쏙쏙 들어옴
- + 훈화말씀이 항상 직설적이면서도 재미있는 분
- + 2012년 일본으로 수학여행 가는 아이들을 살린 예언자

주석훈 교감 선생님

- + “뭐라구요?” + 입시계의 1인자
- + 은근 인자함이 묻어나시는 분 + 농담인지 진담인지 헷갈리는 분
- + 말 한마디로 텡스 신청자를 수십 명으로 늘린 언어의 마술사
- + ‘뉴발, 양복, 배낭’이라는 조합의 미래지향적 패션 감각의 소유자

강선이 선생님

- + 수수한데 예쁜신 쌤
- + 얼굴이 완벽한 고양이 상이신 선생님

고광철 선생님

- + 엉뚱한 똑딱이~ + 겉으로 딱딱해 보이지만 알고보면 귀여운 쌤
- + 이름부터 지구과학 가르칠 것 같은, 고광철 쌤

권혁언 선생님

- + ~할 족에는 + 入手 창시자. + 체육 이론의 神
- + 계획성 좋으신 분 + 배드민턴 정말 잘 치시는 기다리 체육쌤
- + 짜임새 있는 수업으로 기초 지식을 많이 얻음(규칙 및 자세 등)

김경훈 선생님

- + “참 쉽죠잉?? / Great~ / 베리굿~” + 유행어 제조기
- + 하이개그 아이디어 뱅크 + 노래 잘 부르는 멋쟁이 선생님
- + 양복입고 중국에 가도 현지 상인들이 외국인이라고 바가지를 씌울 것 같지 않은 외모의 소유자

김경희 선생님

- + 사랑을 이어준 새 + 시크함 그 자체
- + 중저음의 목소리!

김민수 선생님

- + 뽀사리 + 목소리가 특이해요
- + 수업시간보다 꼭꼭 일찍 들어오심
- + 첫사랑 얘기가 인상 깊었던 민수 쌤
- + 차가운 척 하시지만 은근히 사랑을 원하시는 귀요미

김민희 선생님

- + “아가들~ 집중!” / “자면 망한대!”
- + 눈이 크고 예쁘심. 초롱초롱
- + 학생들의 마음을 잘 알아주신다
- + 예쁘시다. 엄마 같다. 그냥 짱. 아....♡.♡ 좋음
- + 면학실에서 자는 친구들에게 폭풍 안마 서비스를 선물하시는 분
- + 고적거리는 듯한 판서가 특징이심. 그 판서에 중요한 건 다 들어있다는 게 함정

김예린 선생님

- + 3초 은정...? + 혀 짧은 발음이 귀여운 쌤
- + 캐리커처 그리기 가장 쉬운 쌤

김원석 선생님

- + 눈이 친근하신 원석쌤ㅋㅋ + 세훈이 아버님 / 민연 쌤 남편
- + 이과 성향 문과 + “불금을 보냈나~(손 모양)”
- + “자, 뵙니다.” + 의지 총만 원석이나 가공은 언제?
- + 적당히 자기 멋에 취해 살 수 있는 멋진 남자 그런 남자

김윤경 선생님

- + 아..파요 + 다정하시다
- + 자주 자게 해 주세요ㅠㅠ
- + 친절하게 치료해주는 멋쟁이 보건쌤
- + 미스코리아 잘 부르시던 쌤

김지연 선생님

- + “아!!!!”
- + 사투리가 매력적인 하늘고 인기 수학선생님
- + 여성스러움을 ‘추구’하시는 매력적 사투리 구단자
- + 밀어내는 듯~~ 하지만 은근히 잘 챙겨준다
- + 표정이 다양하심
- + 정 많고 나긋나긋(?)은 모르겠지만 정이 참 많으심♡ 쌤 사랑해요

김지은 선생님

- + 피아노 치실 때마다 음악회에 온 듯 한 느낌이 든다
- + 우아하고 고귀한 기품이 남다르신 분
- + 송지효 닮은, 우아한, 피아노의 여신 지은쌤!!♥
- + 페이스북에 감성적인 글을 많이 올리시는 쌤
- + 오전 쉬는 시간에 매점에 가면 볼 수 있는 다정한 선생님

김진숙 선생님

- + 망토 뒤에 손이 네 개 쫘 숨어있을 것 같은...
- + 지리를 알차게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
- + 글로벌 트래블러
- + 수업자료 활용 킹
- + 세계지리 재미있어용
- + 보기보다 정말 배려심 깊고 착한 쌤

김창재 선생님

- + 개념설명이 재미있는 수학 쌤
- + 목소리 푹!푹!큼. 왕큼
- + ♡_♡, 매력 터지는 창재 쌤
- + 상남재 / 판서 왕 / 인간 printer

나유영 선생님

- + 무슨 옷이든 소화 척척
- + 윤아의 유전자 어디서 나왔는지 알 수 있는 우월한 유전자
- + 모델 같은 몸매와 얼굴, 하지만 아이들의 먹을거리를 자주 뺏어 드시는 선생님

노혜정 선생님

- + 승주쌤 동창
- + 당황~스럼,네? / 혹시..숙제 안한.. 거..?? / 나만.. 그런건..가?
- + 명사형 종결어미와 의존명사의 종결자
- + 완전 친절하시고 고민 잘 들어주는 선생님

류대곤 선생님

- + 특유의 말투로 방송마다 모든 아이들을 류대곤 열풍으로 만드는 능력자
- + 아. 아. 아직도 소란스럽습니다!!
- + 목소리가 복도 끝에서 끝까지 울린다
- + 큰고니쌤 + 왕왕 귀여움!! 목소리 웃김
- + 제자를 잘 챙겨주시는 좋은 선생님

박용규 선생님

- + 곰돌이 닮은 선생님
- + 1학기 때 지리를 가르쳐주신, 보면 볼수록 매력 있고 귀여우신 선생님
- + 지구온난화 가르치실 때, 지구 온 나나 드립 하셨다가 하늘고 나나가 되신 용규쌤
- + 무서운 척 하지만 하나도 안 무서운 순둥이 선생님

배성규 선생님

- + 아빠 미소의 정석이란 무엇인지 보여주는 쌤
- + 무표정일 땐 무서워 보이지만 은근히 애교 많은 쌤

배준범 선생님

- + 체육시간마다 재밌는 수업 해주시는 짱짱 선생님
- + 학생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오시는 쌤
- + 체육선생님이고 학생들이 체육점수가 잘 나오도록 하시는 선생님
- + 조용히 웃긴 쌤

서연희 선생님

- + 물리여신 / 물리천재 / 필기여왕 / 근의 공식
- + 소녀감성 + 스펙 킹! 영어교육과, 물리교육과 자격증
- + 완벽주의자지만 알고 보면 여린 사람!

손재식 선생님

- + 드림 제일 잘 치시는 선생님
- + 옷 입는 스타일이 댄디한 게 왕 좋음. 제발 카라는 세우지 말길
- + 학교 한 구석에서 학생을 혼내도 전교생이 다 알게 되는 쌤
- + 학생들에게 장난과 재미로 친근하게 다가오는 영어쌤

송남영 선생님

- + 최연소 남영 쌤 + “갈까요/??”
- + 재치 있는 농담과 센스 있는 드립력을 자랑하는 선생님
- + 최상규쌤과 더불어 개그로 가득차신 분
- + 귀엽고 깜찍하고 사랑스러운 1학년 8반의 여신 남영쌤!!♥

신미영 선생님

- + 남고포스 찌는 쌤, 때로는 엄마 같은 선생님♡
- + 하늘고 남학생들을 휘어잡다...

신은재 선생님

- + kbs 여학당 선생님! + 과거가 화려하신 분
- + 우리가 애기로 보이시는 쌤ㅋㅋ
- + 일학년 완전 잘 이해해 주시고 쾌활하고 정말 멋진 쌤
- + 정말 완전 멋있으신 이 시대의 진정한 신여성
- + 국어를 가르쳐 주시고 뇌가섹시한 남자를 좋아하는 선생님

심주석 선생님

- + 수학의 진리. 꽃종년 주석사마
- + 진짜 멋있고 존경하는 쌤
- + 수업하시는 것도, 말씀하시는 것도, 걷는 것도 다 너무 멋있으신 EBS 대표 teacher!♡
- + “문과수학은 다 맞아줘야자~”
- + 수학 정말 장난 아님! 완전 잘 가르치심! EBS 인기강사♡
- + 늘 잘하고 있냐고 물어봐 주셔서 힘이 되는 쌤

이강봉 선생님

- + 강봉 멋쟁이 / 검은 가족점퍼 / 완전 카리스마
- + 개인적으로 만나면 정말 좋은 쌤
- + “어! 내가 전달합니다.”
- + 너무 배가 아팠는데 직접 뛰어가 나에게 약과 컵을 갖다 주신 은근 자상한 선생님!!
- +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나영 선생님

- + o_o
- + 발음만은 아나운서이신 쌤
- + 듣기만 해도 열정 터지는 쌤
- + 1인 1예를 하시는데도 너무 착하게 받아주시는 천사
- + 귀여우신 쌤
- + 매우 선하신 분 같아요

이다지 선생님

- + 전국구 인기쟁이. / 이다지개! / 아름다우신 얼굴에 당신의 수업은 노다지
- + 여러 사이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미인 中 미인!!
- + 이다지 쌤은 어찌 이다지도 아름다운가~
- +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 모든 역사 master 하셔서 부러움

이상미 선생님

- + Good morning everyone~ I'm Sangmi Lee
- + 아침 영어방송 쌤
- + 카워 쌤 단짝? + 완전 친절하신 쌤
- + 학생들 생각 많이 해주시는 쌤

이선영 선생님

- + 영어선생님처럼 생겼는데 수학선생님이신 분
- + 멋쟁이 쌤~! 호란 쌤!
- + 생활지도부 쌤이시지만 착하고 호탕하신 쌤
- + 학생들에게 진심을 다해 가르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고의 쌤
- + 제주도 사투리 사용이 능통하며 매우 밝고, 매사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임

이수민 선생님

- + 라바 닳으신 쌤
- + 방긋방긋 잘 웃으심
- + 셀카 같이 찍었다가 쌤 얼굴 너무 작아서 낭패 봄
- + 모델처럼 쪽 뱀은 다리와 매력 있는 얼굴을 겸비하신 쌤

이영종 선생님

- + 하늘고의 역사는 살아있다. 내 안의 죽어버린 역사 지식을 되살리는 역사계의 심폐소생술 능력남
 - + 그 자체로 도포자락 입고 갓을 쓴 선비님의 아우라가 풍기는 군자중의 군자이심♥
 - + 더 말이 필요 없이 '성인군자'로 모든 것이 설명되는 분
- + 수능 100일 기념으로 아들에게 책 전집을 선물하는 멋진 아버지이자 정말로 학생들에게 존경받는 선생님♥
 - + 학생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공감해주시며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시는 최고의 선생님
- + 수업시간 이외에도 항상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시는 분

이중언 선생님

- + 보이차를 들고 오시는, 안분지족의 삶이 얼굴에 보이는 선생님
- + 절권도와 개그, 그 중간에 국어
- + 운동, 공부, 노래, 성격, 외모, 인기 등 뭐 하나 빠지는 것 없는 슈퍼티처
- + 文과 武를 동시에 갖춘 자
- +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시고 그 와중에도 수업은 다 나가시는 효율적이고 존경스러운 선생님
- + 어딘가 모르게 편안하고 기대고 싶은 쌤

이지혜 선생님

- + 이 분의 딸꾹질 멈추는 방법 정말 특이하다
- + 치명적인 애교의 소유자. 쌤 애교에 내 달팽이관이 파괴될 것 같음.ㅋㅋㅋㅋ
 - + 조폭(조직폭식집단)회원
 - + 터프 시원 생물쌤. / 생2여신

이현영 선생님

- + 축구광 수학선생님
- + 경상도 멋쟁이!!! 이과 수학의 지지대!
- + 문과라서 수업을 못 듣는다는 이 서러움ㅠㅠ
- + 존경심이 드는 멋진 선생님
- + 수험생 체력의 수호자

이현주 선생님

- + “미친 거 아니에요?!”라는 말이 인상 깊다
- + 찹쌀떡 같은 피부를 가진 여신쌤
- + 고등학생 때 초록색 머리로 염색을 하셨다는데 그 때가 궁금하다
- +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영어쌤

이형주 선생님

- +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폭풍매력의 소유자
- + 공과 사가 명확한 남자 반☆전☆매☆력
- + 워크)_< 쟁이 + “농민의 아들 이형주개!”
- + 수업을 들어봐야 매력을 알 수 있는 신비남
- + 멀리서 보면 학생 같은 자태를 지니고 계심

임혜연 선생님

- + 결혼하시고서 더 예뻐진 쌤 + =신보라
- + 너무너무 예쁘고 귀여우신 혜연 쌤 짱짱 좋아여 ♡_♡
- + 수업하실 때는 너무나 카리스마 넘치시고 무섭지만
다른 때는 천상 여자애다가 애교도 꽤 예쁘게 부리시는 반전 선생님
- + 만리장성 가셔도 저 끝까지 퍼지는 쌤님 목소리
- + 두산이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게 만드시는 분

장윤선 선생님

- + 소녀 같은 윤선쌤 + 수학을 몸에 뼈저리게 가르쳐주시는 쌤
- + 키에 반비례하는 포스를 숨겨두는 분
- + 아이돌과 드라마에 능통하신 분
- + 언제나 상상도 못한 해법을 들고 나오시며, 조리 있는 말투가 유명하심

전미라 선생님

- + 굉장히 꼼꼼하시고 잘 챙겨주심
- + 아이들의 이름을 외우시는 친절하신 사서쌤!
- + 책에 관한 모든 것을 아실 것 같은 쌤님
- + 쌤이 와서 도서관이 발전했어요 + 항상 친절하신 쌤

전민호 선생님

- + 어디서 많이 본 듯해요
- + 부드러움 속에 번뜩이는 날카로움
- + 영어 대화와 관련된 일이라면 전민호 쌤
- + 시푸

정석진 선생님

- + 수학의 정석진 ㅋㅋㅋㅋ
- + 만화 캐릭터 같은 엄지 선생님
- + 왕 귀여우심! 웃는 것도 왕 귀여우심ㅋㅋㅋ 수업도 깔끔하게 잘하심
- + “1번~ 1번 시키려는 거 아니야.”
- + 남녀평등, 상담 기본 1시간 열정 넘치는 석진짱
- + 라바 / 스머프 / 엄지공주 /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싶은 쌤

정주원 선생님

- + 작년 생지부장 쌤이셨던, 엄할 땐 엄하지만 착한 쌤♡
- + 생지부에서 벗어나고 굉장히 편안해 보임
- + 고3 남자 선배들한테 이상하게 별주시는 분
- + 3학년 선배들의 엄마
- + 은근히 보고 싶은 쌤
- + 뽕곰 닮으셨다 / 곰 같은 매력 / 거침없는 입담꾼

조기성 선생님

- + 교재를 사랑한 남자
- + 모든 사회과목의 마스터
- + 여러 지역의 언어를 짬뽕해서 ‘조기성 사투리’를 완벽히 구사함
- + 학교 오는 날마다 면학실에 계심
- + 풍채와 달리 여린 목소리와 성격의 소유자
- + 어쩔 땐 얘기를 하시다가 혼자 좋아서 웃으신다. 우리는 안 웃기지만 혼자 또 웃으신다
- + 치명적인 눈웃음의 소유자

차미림 선생님

- + 기혼이라는 말에 깜짝 놀란 쌤
- + 목소리가 매력적인 / 말투가 독특한 쌤
- + 개미 좋아하심ㅋ

천도현 선생님

- + 일등 신랑 / 선생님 같은 남자랑 결혼 할래요!! / 여자의 마음을 잘 아는 멋진 남자
- + 부드럽고 고고한 '학'과 같은 자태 / 온화함의 끝
- + 'Sweet guy'라는 별명
- + 부드러워 보이셔서 꼭 담임반에 들어가고 싶어요

최상규 선생님

- + “닥쳐 이 XX야.”
- + 참교사가 되고픈 야구하는 상규쌤
- + 슬픔.. 기러기야빠.. 흑
- + 한문의 틀을 깨신 쌤
- + 한자가 아닌 한문! 선생님
- + LG 야구 마스터, 한문 마스터, 참교사
- + 명명덕하시고 격물치지의 경지에 오르신 참교사님

최승주 선생님

- + 수업도 판서도 완전 잘하심
- + 예상외로 허당이심
- + 결혼 하셨어.. 떠나셨어..
- + 너무 착하시고 예쁘시고 여신
- + 치마가 잘 어울리시는 선생님
- + 얼굴만큼 마음이 아름다우신 분

최정우 선생님

- + '라따뚜이'라는 별명 / 라따뚜이♡
- +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신다
- + 시크릿 팬이시다
- + PPT의 황태자
- + 5번 불계열

하정선 선생님

- + 패션 굿, 수업자료 굿
- + 주방일 보고 오신 수수한 그녀 or 전혀 주방에서 막 나온 것 같지 않게 옷을 너무 잘 입으시는 분
- + 수업준비하면 정선쌤!!! 성실하신 모습이 정말 좋아요

한옥주 선생님

- + 상담쌤 from 국제고
- + 고풍스러우심
- + 학기 초, 상담으로 내 마음을 달래주셨던 쌤

황혜경 선생님

- + 요조숙녀 같지만, 배우 뽀치는 연기력의 소유자!
- + 박학다식 감성 충만 언어의 마술사
- + Lovely 황 / 발음 乃
- + 알 수 없는 고귀함과 매력
- + 진짜 매력 만점. 우아+도도+영동함+귀여움
- + 웃기려고 노력하시는 게 보임. 그래서 웃길 때가 있음

황혜림 선생님

- +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 사진 전문! 학생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주는 참교사
- + 완전 열정적!! 최고♡
- + 수험생 멘탈의 수호자
- + 항상 얼굴에 미소를 잃지 않는 온화하신 쌤
- + 귀요미 혜림쌤 차근차근 조곤조곤 잘 수업해주심

John Cowie 선생님

- + 똑똑한 요리쟁이. / 딸바보
- + 솔직하고 재미있는 쌤
- + 외국 나가면 자신이 전혀 똥똥하지 않다는 쌤
- + ABC 게임이란 아주 재밌는 게임을 해주시는 선생님
- + 특유의 웃음소리

편 집 후 기



김민경(2학년 2반) 일 년 동안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활동하느라 다들 수고했고, 책임감 있게 잘해줘서 고마워! 동아리 하면서 교지끼리 많이 친해진 것 같아서 좋아~! 중간중간 힘든 일도 많았지만 좋은 결과 낼 수 있어서 다행이구 너희들이랑 같이 활동해서 재미있었어 ㅋㅋ 앞으로도 잘 지내자~

봉수지(2학년 2반) 몰아치려니까 힘드네.. 처음엔 재밌겠다는 생각 밖에 안했는데, 훨씬 더 많이 얻은 것 같다. 어쨌든 끝났으니까. 이번에 못한 것 +α는 내년에 더 잘 하겠지? 마지막까지 고생했다, 파티나 할까?

안하영(2학년 3반) 하늘고등학교 자랑스러운 최고의 동아리 '하늘나래'의 일원으로서 너희들과 함께한 1년 동안 정말 재미있었고 몰랐던 친구들과 선생님도 알게 되어서 좋았어. 결과물이 나오면 뿌듯해 할 우리의 모습이 떠오르는구나.^0^ 하늘고등학교 학생들의 1년 생활을 비롯한 나의 1년 생활을 다시 떠올릴 수 있어서 좋았어. 앞으로도 매년 교지를 쓴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알차게 보내는 게 어떨까?? 모두 고생했고 고3생활 파이팅하자!

이시은(2학년 3반) 하늘고의 '첫 번째 교지!'가 드디어 완성되었다니 뭔가 시원섭섭하네...! 일 년 동안 해왔던 활동이 다 기억난다! 그리고 우리 교지동아리 부원들과 중언썸과 함께 했던 일 년 너무 즐거웠어요! 인터뷰한다고 열심히 질문지도 만들고... 다 추억이다! 언제나 그리울 거야. 하늘나래! 모두들 수고했고 고마웠어. 정말 뜻 깊었어!! 멋진 고3이 되어보자! 마지막으로 하늘고 교지동아리 하늘나래가 제일 짱이지!!!

임지은(2학년 3반) 1년 동안 교지를 만들면서 처음에는 하늘고등학교의 창간호가 될 우리의 첫 교지를 어떻게 꾸밀지 걱정도 되고 막막했었는데 너희들과 중언썸과 함께 하니깐 1년 동안 재미있고 알차게 보낸 것 같아서 너무 기뻐!!~^^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도 해보고 학교 행사에 대한 기사도 써보고 나 스스로도 굉장히 뜻 깊은 1년이었던 것 같아!! 이제 고3인데 모두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어. ㅎㅎ 안뇽 애들아...

전소연(2학년 3반) 하늘고등학교 교지 창간호 하늘나래! 걱정도 많았는데 그래도 무사히 결과물이 나와서 다행이야 ㅎㅎㅎ 올해 우리가 교지 만들면서 만나게 된 좋은 사람들 생각하면서, 인터뷰할 때 들었던 좋은 말들 기억하면서 힘든 고3 생활 열심히 해서 다들 원하는 대학 가자ㅠㅠㅠ 나중에 우리 교지 보면 얼마나 뿌듯할지 벌써부터 기대된다!! 일 년 동안 고마웠고 이종언 선생님, 그리고 우리 동아리 부원들 진짜 수고했어. ㅎㅎ

배승욱(2학년 4반) 처음 만들어 보는 교지라서 어떻게 될지 걱정도 많이 했었고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성준이랑 친구들이랑 이종언 선생님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좋은 교지 만들 수 있었던 것 같다. 1년동안 동아리 활동 잘 마무리하게 해줘서 동아리원 모두한테 고맙고 남은 고등학교 생활도 열심히 잘 마무리하자. 정말 수고 많았어.

임성준(2학년 4반) '교지 편집'은 '영화 촬영' 이었다. 한 컷 한 컷마다 하늘고의 웃는, 뛰는, 노는, 공부하는 모습과 혼과 예술을 담기 위해 얼마나 컴퓨터 앞에 앉아 타자를 치고 카메라 셔터를 눌렀던가! 그렇게 1년 동안 영화 촬영에 매진하였더니 어느새 문득 떠올랐다. 우리가 교지 편집을 하며 했던 모든 순간들이 이미 한편의 영화가 되어 있었다...

지도교사 이종언 “첫사랑의 기억을 떠올리듯, 처음처럼 그렇게...” 대학 때 자주 불렀던 노래의 한 구절이다. 처음이라는 것, 처음이라서 어설픈 수 있고, 아쉬움도 많이 남지만 그래서 그만큼 열정적으로 해낼 수 있었던 것들의 이름이다. 우리 첫 교지도 돌아보면 어설픈품과 아쉬움이 많이 담겨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걸음을 디뎠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 첫 걸음에 너희들과 함께여서 행복했다. 앞으로도 우리들 “첫 마음”을 잊지 말고 살아가도록 노력해보자.



하늘나라

2014 창간호

발행일 2014년 5월 7일

펴낸이 강석운

펴낸곳 인천하늘고등학교

지도교사 이종언

편집부장 봉수지

편집부 김민경 안하영 이시은 임지은

전소연 배승욱 임성준

디자인 및 제작 **wednesday** 웬즈데이(주) 031_955_4095

출판등록 제406-2011-000062호

Copyright ©인천하늘고등학교, 2014, Printed in Paju, Korea

ISBN 978-89-97597-14-7 43370

하늘나라는 인천하늘고등학교가 매년 1회 발행하는 교지입니다.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복제와 전재를 금하며, 이 책의 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인천하늘고등학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l.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

ISBN 978-89-97597-14-7



9 788997 597147